

국립국어원 2013-03-09

바른 국어 생활

교사 직무 연수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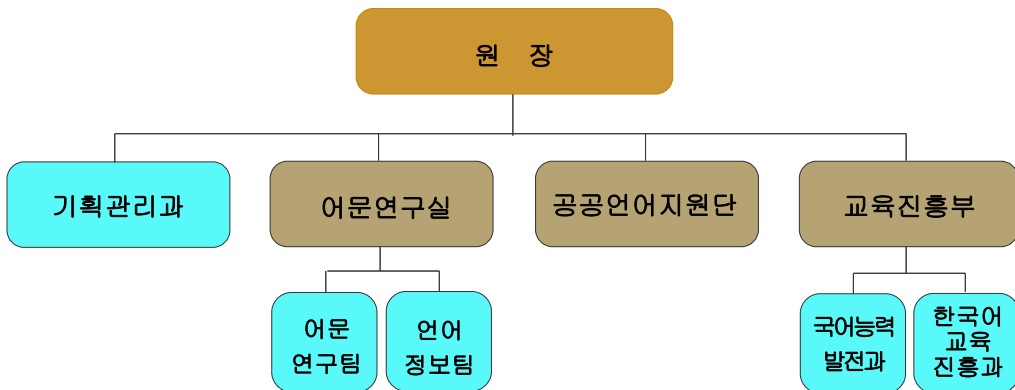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소개

설립 목적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국어·언어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



원 장	기획관리과	서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분석, 국회 관련 업무, 감사 및 사정 업무 등
	어문연구실	<p>◆ 어문연구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국어·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 ■ 언어와 문자,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 ■ 어문 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 세계 언어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p>◆ 언어정보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실태 조사 ■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 자원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전산 처리 규격, 표준화에 대한 연구 ■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 ■ 지역어 발굴 및 연구·조사 ■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언어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전문 용어 정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교육진흥부	<p>◆ 국어능력발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교육 연수 발전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 교육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p>◆ 한국어교육진흥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업 ■ 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 한국어 보급 기관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국어 관련 정보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 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어문 규정,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 국어 논저, 기사, 공개 자료실 등).

(2) 가나다 전화(1599-9979, 02-771-990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상담.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 우편으로 발송함. 정기 수신 요청:
news@korean.go.kr로.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www.malteo.net>)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양식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 운영.

국어문화학교 소개

개 관

국어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005. 7. 28.)으로 인하여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수강생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의 신청으로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어 관련 강좌와 교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운 영 목 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 영 현 황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학교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1년에는 약 1,300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약 3,800명에 이르러, 12년간 약 2만 7천 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는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2.	국어반과 번역반을 3일간씩 출판인반, 일반인반, 청소년반, 공무원반으로 운영
1999. 8.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 5일 35시간 (5점 가산)을 승인
1999. 10.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국어반 (5일간, 35시간), 번역반(3일간, 21시간) 운영
2000.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시작
2005. 10.	서울방송 신입사원 국어 교육(신입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20여 명)
2005. 12.	법제처 국어 전문 과정 교육(법제처 공무원 22명)
2006. 2.	전국 국어상담소 상담원 대상 찾아가는 국어 강좌 공동 연수 개최 (전국 10개 국어상담소, 상담원 26명)
2007. 5.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국어진흥교육팀 신설. 국어문화학교 강의전담 교수 채용
2009. 5.	직제 개편으로 국어능력발전과에서 국어문화학교 관련 업무 수행
2009. 10.	언론·출판인 대상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1.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2.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 운영 시작
2010. 6.	새터민 대상 특별 교육 과정(표준어 교육) 운영 시작
2011.	새터민 대상 표준어 교육 실시 경기도 교육청, 강서 교육청과 업무 협정으로 지역 내 학생 대상 우리말 교실 운영
2012.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과 업무 협정으로 특별 과정 운영 지역아동센터 우리말 교실 운영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운영 시작

국어문화학교 수강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

과 정 연 도	국어전문교육과정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설 횟수	수강 인원	강의 횟수	수강 인원
2001년	19	1,292	123	15,412
2002년	19	1,452	185	16,970
2003년	16	1,486	157	17,890
2004년	17	1,458	176	16,332
2005년	17	1,765	195	15,655
2006년	18	1,921	190	12,926
2007년	22	2,354	253	19,305
2008년	24	2,443	148	10,275
2009년	27	2,733	297	19,062
2010년	35	3,174	316	27,804
2011년	29	2,701	334	28,689
2012년	36	3,841	486	34,347
합 계	279	26,620	2,860	234,667

교육 과정 안내

(1) 국어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가) 공무원 및 일반인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연습, 띄어쓰기, 띄어쓰기 연습,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공 문서 바로 쓰기, 글쓰기 지도, 협력적 의사소통, 우리말 다듬기, 훈민 정음의 이해, 시청각 학습 등

(나)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자격:**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음.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읽고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학교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학교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협력적 의사소통 등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수강하고 싶은 달의 전월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효과적인 말하기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문화 등

* 강의료는 국립국어원에서 부담하고 교재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함.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을 통하여 현재 ‘한글 맞춤법’,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훈민정음의 이해’ 등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 신청하고 학습할 수 있음.

●.....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소개

추진 배경

국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소통의 시대를 열 필요

국어운동 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한국어 정화 요구 증대



사업의 비전

누구나 쉽게 소통하는 **한국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국어**



사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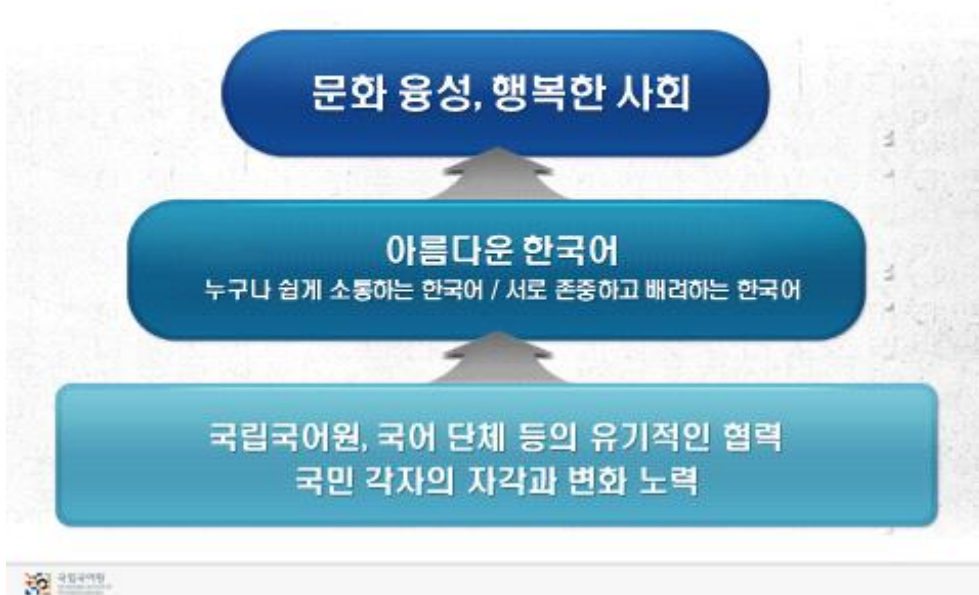
추진 체계

쉬운 공공언어, 품격 있는 방송언어, 존중과 배려의 언어문화



추진 단위별 역할

문체부 (국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 부처 협조 체계 구축 '우리말 가꾸기' 및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국립국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연구,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사업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 바른 언어 사용 기준 마련, 지침서 발간, 참여자 교육, 시민 대상 강좌 개설 및 운영 등 민간 활동 지원
참여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말 사랑 동아리 활동가 모집 및 양성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우리말 사랑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지역의 언어 환경 조사 및 개선 활동 우리말 가꾸기 시민 운동 전개 및 분위기 확산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행동 자가 점검 및 실천 항목 작성, 이행 가정, 직장 등에 전파하여 우리말 가꾸기 참여 유도





차 례

제 1 부 : 어문 규정의 이해

1. 한글 맞춤법의 이론	3
2. 한글 맞춤법의 실제	13
3. 띄어쓰기	4
4. 구별해야 할 말	56
5. 표준어 규정	7
6. 표준 발음법	3
7. 외래어 표기법	6
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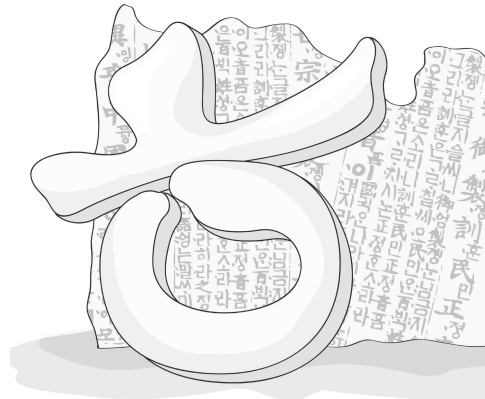
제 2 부 : 윤택한 국어 생활

1. 문장 바로 쓰기	5
2. 학교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31
3. 학교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11
4. 훈민정음의 이해	5
5. 협력적 의사소통	0



제1부 어문 규정의 이해

1. 한글 맞춤법의 이론 | 3
2. 한글 맞춤법의 실제 | 31
3. 띄어쓰기 | 45
4. 구별해야 할 말 | 65
5. 표준어 규정 | 73
6. 표준 발음법 | 93
7. 외래어 표기법 | 105
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119



한글 맞춤법의 이론



1.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면 아주 어렵고 맞춤법에 맞게 적는 것은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내가 쓴 글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 (1) ㄱ. 바블 마니 머거썌요.
 ㄴ. 바블 만이 먹어썌요.
 ㄷ. 밥을 많이 먹었어요.

- (2) ㄱ. 오시 갑시 비싸요.
 ㄴ. 오시 갑씨 비싸요.
 ㄷ. 옷이 값시 비싸요.
 ㄹ. 옷이 값이 비싸요.

그러나 위에서 보는 것처럼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사람마다 표기가 달라져,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이처럼 말을 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 이 약속을 ‘한글 맞춤법’이라고 한다.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한글 맞춤법’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글 맞춤법의 제정 경위

‘한글 맞춤법’의 역사는 19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3년 조선어 학회에서는 우리 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을 정리하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세상에 공포하였다.

이 통일안은 1937년, 1940년, 1946년 등 여러 번 개정되었으나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광복 이후에도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말도 변하게 되고 제정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문자 생활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문교부는 1970년 국어 심의회의 건의에 따라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한글 맞춤법 재심 위원회’를 두어 통일안을 수정하게 하였다. 이를 기초로 1970년 12월에 ‘한글 맞춤법안’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 ‘한글 맞춤법안’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문교부는 이 안을 학술원에 이관하여 다시 검토하게 하였다. 학술원은 이 안을 수정하여 1984년 12월에 ‘한글 맞춤법 개정안’을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문교부는 맞춤법의 개정 문제가 국가적인 사업일 뿐 아니라 국민의 문자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의 여론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985년 국어 연구소에 ‘한글 맞춤법 개정안’의 검토를 위촉하였다.

국어 연구소에서는 맞춤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비롯하여 여러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전국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였다. 1987년 4월 ‘한글 맞춤법 개정안’을 완성하여 발표한 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1987년 9월 국어 연구소의 ‘한글 맞춤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문교부에 제출되었으며, 이 안은 다시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지금의 ‘한글 맞춤법’은 1989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 88-1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부칙에 따라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맞춤법을 모른다’는 말의 의미다. ‘맞춤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3ㄱ)이 ‘맞춤법을 아는’ 사람이 쓴 글이고 (3ㄴ)은 ‘맞춤법을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한다.

(3) ㄱ.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ㄴ. 누니 마니 내리고 이썬요.

그런데 말로 할 때는 (3ㄱ)이나 (3ㄴ)의 차이가 없다. (3ㄱ)을 읽어 본 후에 (3ㄴ)을 한번 읽어 보자. 둘 다 [누니 마니 내리고 이썬요]¹⁾로 소리 난다. 이처럼 ‘맞춤법’은 글

1) 발음을 제시할 때는 ‘[]’을 사용한다.

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말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글로 적을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한글 맞춤법”을 펼쳐 총칙의 제1항을 보자.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따르면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표준어²⁾를 소리대로 적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원칙에 따라 [돌], [눈물], [꿈]으로 소리 나는 말을 ‘돌’, ‘눈물’, ‘꿈’으로 적는다.

그렇다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꽃이, 꽃도, 꽃만’을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자.

- (4) ㄱ. 꽃이, 꽃도, 꽃만
 ㄴ. 꼬치, 꼰또, 꼰만

(4ㄱ)과 (4ㄴ)은 둘 다 소리가 같다. 받아쓰기를 할 때 ‘꽃만’을 ‘꼰만’으로 잘못 적는 일이 있는 것도 소리가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에서는 ‘꼬치, 꼰또, 꼰만’이라고 적지 않고 ‘꽃이, 꽃도, 꽃만’이라고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까닭은 (4ㄱ)과 같이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 것이 글을 읽을 때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이다. (4ㄱ)과 (4ㄴ)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4ㄱ)처럼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 뒤에 붙는 ‘이, 도, 만’의 형태 또한 고정되어 어떤 말인지 금세 알아볼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말을 동일한 표기로 적는 것이 눈에 훨씬 잘 들어오고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까닭에 맞춤법에서는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꽃이’라고 할 때의 [꼬치], ‘꽃을’이라고 할 때의 [꼬출], ‘꽃만’이라고 할 때의 [꼰만] 모두를 ‘꽃’이라는 하나의 표기로 적게 된다.

또한 소리대로만 적기로 한다면 [반드시]로 소리 나는 ‘반듯이[直]’와 ‘반드시[必]’의 구별이 표기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반듯하다’와의 관련성을 따져 ‘반듯이’와 ‘반드시’로 나누어 적으면 표기에 따라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단어의 원형을 고려하는 표기의 원리가 어법(語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원리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꼬치], [꼬출], [꼰만]의 경우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꽃이’, ‘꽃을’, ‘꽃만’으로 적는다고 하여

2)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까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5) ㄱ. 아름답고, 아름다운, 아름다워
 ㄴ. 아름답고, *아름답은, *아름답어³⁾

사전을 찾아보면 ‘아름답다’가 기본형으로 되어 있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연결 될 경우에는 ‘*아름답은’, ‘*아름답어’로 적지 않고 ‘아름다운’, ‘아름다워’와 같이 적는다. ‘꽃이’와 ‘꽃만’은 [꼬치], [꼰만]으로 서로 다른 소리가 나도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 으면서 ‘아름답-’의 경우에는 같은 말을 하나의 표기로 적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꼬 치]과 [꼰만]은 ‘꽃이’와 ‘꽃만’으로 적어도 [꼬치]와 [꼰만]으로 소리가 나므로 어법이 적 용될 수 있지만 ‘*아름답은’, ‘*아름답어’는 [아름다븐]과 [아름다버]로 아예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춘다’는 말의 의미는 같은 소리가 나는 여러 표기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서로 다른 소리가 되는 ‘*아름 답은’, ‘*아름답어’로는 적을 수 없다. ‘아름답고’와 ‘아름다워’, ‘아름다운’의 표기가 다른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4. 한글 맞춤법의 실제

4.1. 한글 자모(한글 맞춤법 제2장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모두 24자이다.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모음자는 소리 자체가 글자의 이름이 된다. 자음자의 첫소리는 해당 자음자에 모음 ‘ㅣ’를 붙이고 두 번째 소리는 모음 ‘으’ 아래 해당 자음자를 받침으로 쓴다. 그래서 자음 자의 이름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등으로 규칙성을 띤다. 그러나 ‘ㄱ’, ‘ㄷ’, ‘ㅅ’은 ‘기 역, 디귤, 시읏’으로 쓰지 않고 ‘기역, 디귤, 시읏’이라고 쓰니 주의해야 한다.⁴⁾

3) ‘*’ 표시는 단어나 표현이 잘못임을 나타낸다.

4) 자모의 이름은 “훈몽자회 범례”(1527년)에서 비롯된 것이다. “훈몽자회 범례”에서는 자모의 음가를 한자로 제시하였는데, ‘ㄴ, ㄷ, ㅁ’ 등은 ‘ㄴ 尼隱, ㄷ 李乙, ㅁ 眉音’ 등으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ㄱ’ 은 ‘ㄱ 其役’으로 표시되어 있고, ‘ㄷ’과 ‘ㅅ’은 ‘ㄷ 池(末), ㅅ 時(衣)’으로 표시된 후 ‘(末)’과 ‘(衣)’

- (8) ㄱ. **모음 뒤**: 거꾸로, 가끔, 기쁘다, 부쩍, 어께
 ㄴ. 받침 ‘ㄴ’ 뒤: 잔뜩, 선뜻, 안쓰럽다
 ㄷ. 받침 ‘ㄷ’ 뒤: 살짝, 훨씬
 ㄹ. 받침 ‘ㄹ’ 뒤: 섬뜩, 움쩍, 흠씬
 ㅁ. 받침 ‘ㅇ’ 뒤: 몽땅, 엉뚱하다

‘문득’과 ‘문뜩’ 어느 것이 맞을까? 대부분의 화자들은 ‘문득’을 [문뜩]이라고 소리 내어 읽지만 ‘문득’과 ‘문뜩’은 의미 차이가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문득’은 [문득], ‘문뜩’은 [문뜩]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

- (9) ㄱ. 어느 날 문득 고향 생각이 났다.
 ㄴ. 나는 문뜩 고개를 들어 창 너머 하늘을 보곤 했다.

발음에 따라 구별해서 적어야 할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다.

- ♣ 감박/감빡, 꿈작/꿈작, 끈덕끈덕/끈떡끈떡, 문득/문뜩, 방긋/방긋,
 번득/번뜩, 번듯/번뜻, 번적/번쩍, 생긋/생긋, 싱긋/싱긋, 흘긋/흘긋, 흘깃/흘깃

4.3. ‘ㄷ’ 소리 받침: 순가락/젓가락(한글 맞춤법 제3장 제3절 제7항, 제4절 제29항)

떠먹는 것은 ‘순가락’, 집어 먹는 것은 ‘젓가락’으로 적는다. ‘순가락’의 ‘순’은 ‘술’(밥한 술)이 변한 것이고 ‘젓가락’은 ‘저(箸)’와 ‘가락’이 결합한 것으로 사이시옷이 쓰인 것이다.

- (10) ㄱ. 순가락(←술+가락)
 ㄴ. 젓가락: 저(箸)+ㅅ+가락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그러나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은 ‘ㄷ’을 밝혀 적는다. 예를 들어 ‘사흘’과 관련된 ‘사흘날’, ‘이틀’과 관련된 ‘이튿날’, ‘설다’와 관련된 ‘선부르다’와 같이 ‘ㄷ’이 ‘ㄷ’으로 바뀐 경우 ‘ㄷ’을 밝혀 적는다. 그리고 ‘거두다’와 관련이 있는 ‘건잡다’, ‘곧게’와 관련이 있는 ‘곧장’ 역시 ‘ㄷ’을 밝혀 적는다.

- (11) ㄱ. 반진고리, 사흘날, 이튿날, 선부르다
 ㄴ. 건잡다(거두어 붙잡다), 곧장(똑바로 곧게), 난가리(난알이 붙은 곡식)

을 쌓은 더미), 돋보다(←도두 보다)

이 외에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들은 ‘ㅅ’으로 적는다.

(12) 덧저고리, 웃어른, 무릎, 얼핏, 못, 옛, 자칫하면, 찻(첫사랑, 첫인상 등)

4.4. 두음 법칙(한글 맞춤법 제3장 제5절 10항, 11항, 12항)

1) 여성/*녀성, 남녀/*남여, 신여성/*신녀성

두음 법칙이란 한자어의 첫머리에서 ‘ㄴ, ㄷ’ 소리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녀(女)’라는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녀자, *녀성, *녀신’으로 적지 않고 ‘여자, 여성, 여신’으로 적는데, 단어의 첫머리에서 [녀] 소리를 꺼리기 때문이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여성/남녀, 녹색/청록, 낙원/극락)와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의 구조(해외-여행, 육체-노동)에 적용된다. 그리고 ‘신-여성’, ‘연-녹색’, ‘실-낙원’과 같이 일 음절 한자어 다음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몇몇 일 음절 한자어가 국어에서 단어처럼 인식되는 현상[예: 新舊(신구), 得失(득실)]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녀, 뇨, 뉴, 니	랴, 러, 레, 료, 류, 리	라, 래, 로, 뢰, 루, 르
어두/비어두	여자/남녀	양심/개량	낙원/극락
합성어	신-여성/남존-여비	역-이용/해외-여행	중-노동/사상-누각
고유명사	한국여자대학	신흥이발관	한국노인대학

두음 법칙은 원칙적으로 한자어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리을’, ‘녀석’ 같은 고유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회계 연도/*회계 년도, 연도별/*년도별

두음 법칙은 의존 명사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자가 같더라도 그 단어가 자립 명사로 쓰일 때와 의존 명사로 쓰일 때 표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年度’는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연도’가 되지만 의존적으로 쓰일 때는 ‘년도’가 된다. 다만 ‘신년도, 구년도’는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3) ㄱ. 연도별 생산 실적, 회계 연도/회계연도

ㄴ. 2000 년도/2000년도, 2000 년대/2000년대

ㄷ. 신년-도, 구년-도

의존 명사로 쓰이는 한자어로는 ‘년, 냥, 리’ 등이 있다.

- (14) ㄱ.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ㄴ. 몇 년 몇 월 며칠이지?
 ㄷ. 그럴 리가 없다.
 ㄹ. 몇 리냐?

3) 칼슘양/*칼슘량, 작업량/*작업양, 일양/*일량

‘량’은 단독으로 쓰이면 ‘양’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다른 단어 뒤에 쓰이면 ‘양’으로 쓰기도 하고 ‘량’으로 쓰기도 한다. ‘양/량’의 표기는 앞에 오는 단어가 한자어이냐 아니냐로 구분된다. ‘량/양(量)’은 한자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슘’이나 ‘일’ 뒤에는 ‘양’이 오고, ‘작업’ 뒤에는 ‘량’이 온다.

한자어 뒤	노동량, 작업량, 생산량, 수출량, 증가량, 감소량
고유어 뒤	구름양, 기름양
외래어 뒤	칼슘양(calcium量), 알칼리양(alkali量), 이온양(ion量)

‘란/난’도 마찬가지로 한자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한자어 뒤	투고란, 독자란, 학습란, 답란
고유어 뒤	어린이난, 어머니난
외래어 뒤	가십난(gossip欄), 펜팔난(pen pal欄)

4) 백분율/*백분률

‘율/률(率, 律, 慄)’의 표기는 앞에 오는 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율’을 쓰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을 쓴다.

모음 뒤	비율(比率), 실패율(失敗率), 감소율(減少率), 증가율(增加率)
ㄴ 받침 뒤	선율(旋律), 전율(戰慄), 백분율(百分率), 배분율(配分率), 흡연율(吸煙率)
그 외	법률(法律), 능률(能率), 출석률(出席率), 합격률(合格率), 성공률(成功率)

‘ㄴ’ 받침 뒤에서 ‘율’로 쓰는 이유는 발음 때문이다. ‘연락, 진리, 전라도’처럼 ‘ㄴ’과 ‘ㄹ’이 만나면 ‘ㄴ’이 [ㄹ]로 소리가 바뀌어 [열락, 질리, 절라도]로 소리가 난다. ‘旋律’은 [설률]이 아니라 [선률]로 소리가 나므로 ‘선율’로 쓰는 것이다.

‘열/렬(列/冽/劣/烈/裂)’도 마찬가지이다.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열’을 쓰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을 쓴다.

모음 뒤	치열(熾烈), 우열(優劣), 계열(系列), 대열(隊列)
ㄴ 받침 뒤	선열(先烈), 균열(龜裂), 분열(分裂), 반열(班列)
그 외	격렬(激烈), 극렬(極烈), 열렬(熱烈), 결렬(決裂), 멸렬(滅裂), 졸렬(拙劣), 용렬(庸劣), 행렬(行列), 정렬(整列), 병렬(並列)

4.5. 어간과 어미(한글 맞춤법 제4장 제2절)

1) 아니오/아니요

‘아니오’는 형용사 ‘아니다’에 하오체⁵⁾의 어미 ‘-오’가 결합한 것으로 문장의 서술어로만 쓰일 수 있다. 반면에 ‘예’의 짝으로 쓰는 ‘아니요’는 부정의 ‘아니’에 해요체⁶⁾의 보조사 ‘요’가 붙은 것이다. ‘아니요’는 줄어서 ‘아뇨’가 되기도 한다.

- (15) ㄱ. 이것은 책이 아니오.
 ㄴ. 아니요(아뇨), 전 안 가겠습니다.

‘요/오’는 문장 끝에 붙는데 ‘요’는 보조사이고 ‘-오’는 어미이다. 이 ‘요/오’를 빼고 문장이 성립하면 ‘요’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오’를 써야 한다. 문장에서 보조사는 생략될 수 있지만 어미는 생략될 수 없기 때문이다.

- (16) ㄱ. 어떻게 살지요?/어떻게 살지?
 당신이 참아요./당신이 참아.
 뭘 봐요?/뭘 봐?
 ㄴ. 이리 오시요.
 그것이 인생이오.

단, ‘안녕하세요/안녕하셔요’의 ‘-(으)세요/-(으)셔요’는 복수 표준어로서 굳어진 어미로 다룬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연결형의 ‘이요’이다. (17ㄱ)처럼 연결형으로 쓰일 때는 ‘이요’를 사용하고 (17ㄴ)처럼 연결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오’를 쓴다.

- (17) ㄱ.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
 ㄴ. 이것은 내 책이오.

5)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형. (예) 빨리 인도로 나오시오./왜 꾸물거리시오?

6)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형. 격식체인 ‘하오체’와 ‘합쇼체’를 쓸 자리에 두루 쓰는 비격식체이다. (예) 다음에 또 들르겠어요.

2) 나는/*날으는

‘알다, 놀다’처럼 ‘ㄹ’ 받침을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 ‘-는’이나 ‘-ㄴ’이 연결되면 ‘ㄹ’이 탈락한다(예. 아는 사람, 노는 시간). ‘날다, 거칠다, 녹슬다’에 어미 ‘-는’이나 ‘-ㄴ’이 결합한 말은 ‘*날으는, *거칠은, *녹슬은’이 아니라 ‘나는, 거친, 녹슨’으로 적어야 한다. ‘*날으는, *거칠은’ 등이 가능하려면 ‘*서로 알으는 사이’, ‘*놀이터에서 놀으는 아이’, ‘*칼을 갈으는 도구’ 등도 가능해야 한다.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 ‘칼을 가는 도구’로 쓰는 것처럼 ‘거친, 나는, 녹슨’으로 쓰는 것이 맞다.

(18) ㄱ. 하늘을 나는 비행기

ㄴ. 이것은 거친 피부에 좋습니다.

ㄷ. 녹슨 철문을 교체했다.

그렇다고 ‘끓은 달걀’을 ‘*곤 달걀’로 줄여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끓은’의 기본형은 ‘끓다’이고 이 말의 ‘ㄹ’ 받침은 관형형 어미 앞에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3) 삶/*살음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형태로 바뀌 주는 어미로, 명사형 어미 ‘-(으)ㄴ’이 있다. 명사형 어미는 ‘먹다’의 ‘먹-’처럼 받침이 있는 어간과 결합할 때는 ‘-음’이, ‘가다’의 ‘가-’처럼 받침 없는 어간과 결합할 때는 ‘-ㄴ’이 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날다’처럼 ‘ㄹ’ 받침을 가진 어간에는 명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ㄹ’ 형태로 쓰인다.

(19) ㄱ. 연은 바람이 불 때 잘 날.

ㄴ. 서울에서 살.

ㄷ.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

ㄹ. 버스에서 잠깐 쉼.

4) 마/*말아

‘알다’의 ‘알-’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하면 ‘알아라/알아’가 된다. 그러나 ‘말다’의 ‘말-’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한 ‘말-아라/말-아’는 ‘마라/마’로 줄어든 형태가 표준어이다.

그러나 ‘말다’의 ‘말-’에 간접 명령형 어미 ‘-(으)라고’가 결합할 경우에는 ‘말라고’가 된다.

(20) ㄱ. 못된 짓은 하지 {마라/마}.

ㄴ. 어머니께서 불량 식품은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해야겠어?

5) 붙은/*부은/*분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거나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는 것은 ‘붙다’이다. ‘듣다, 신다’가 ‘어제 들은 음악’, ‘짐을 실은 마차’로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붙다’의 어간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붙은’으로 모양이 바뀐다. 참고로 몸의 일정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것은 ‘붓다’이다.

(21) ㄱ. 분다: 통통 붙은 라면/국수가 통통 붙었다./

물이 붙어서 건널 수가 없다.

ㄴ. 붓다: 통통 부은 얼굴/울었더니 눈이 통통 부었다.

♣ 실은(신다), 들은(듣다), 물은(묻다), 걸은(걷다)

부은(붓다), 지은(짓다), 이은(잇다), 나은(낫다), 그은(긋다)

6) 잠가/*잠궤

‘잠그다’와 ‘담그다’의 어간에 어미 ‘-아’가 연결되면 ‘잠가(잠그-+-아)’, ‘담가(담그-+-아)’로 모양이 바뀐다. ‘*잠궤다’와 ‘*담궤다’는 ‘잠궤다’와 ‘담궤다’를 잘못 쓴 것이다.

(22) ㄱ. 외출할 때는 문을 꼭 잠가라./문을 잘 잠궤다.

ㄴ. 김치를 담가 먹는다./며칠 전에 김치를 담궤다.

7) 아름다워/*아름다와

‘아름답다, 가깝다, 아니깝다’ 등 ‘ㅂ’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어간 말음의 ‘ㅂ’이 ‘ㅌ’로 바뀐다. ‘아름답다, 가깝다, 아니깝다’ 등은 ‘*아름다와’, ‘*가까와’, ‘*아니꼬와’가 아니라 ‘아름다워’, ‘가까워’, ‘아니꼬워’ 등으로 적는다.

다만 ‘곱-[麗]’, ‘돕-[助]’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연결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그러므로 ‘곱-’과 ‘돕-’은 ‘고와, 고왔다’와 ‘도와, 도왔다’처럼 적는다.

♣ 괴로워(괴롭다), 반가워(반갑다), 슬기로워(슬기롭다)

4.6. 접미사(한글 맞춤법 제4장 제3절)

1) 반드시/반듯이

‘반듯하다’와 관련이 있는 것은 ‘반듯’을 밝혀 ‘반듯이’로 적고, 관련이 없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반드시[必]’로 적는다.

- (23) ㄱ. 모든 일을 내일까지 반드시 끝내라.
 ㄴ. 건강을 위해서는 반듯이 앓는 것이 좋다.

‘더욱이’, ‘일찍이’는 ‘더욱’, ‘일찍’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원형을 밝힐 수 있으므로 ‘*더우기’, ‘*일찌기’로 적지 않는다.

- (24) ㄱ. 일찍이 문명을 꽃 피운 나라/오늘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ㄴ.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더욱이 몸도 너무 약하다.

♣ 지긋이(지긋하게), 곰곰이, 생긋이, 해죽이
 지그시, 갑자기, 슬며시

2) 꿀꿀이/개구리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고 있다. ‘씩씩기/씩씩이’의 경우, ‘씩씩’이라는 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에는 ‘씩씩이(제트기)’로 ‘씩씩’과 관련짓기 힘든 곤충명을 가리킬 때는 ‘씩씩기’로 적는다. 이때의 기준은 ‘씩씩거리다’나 ‘씩씩하다’가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씩씩이’이고 그렇지 않으면 ‘씩씩기’가 된다.

‘꿀꿀이’는 ‘꿀꿀거리다, 꿀꿀하다’가 있으므로 ‘꿀꿀’을 밝혀 ‘꿀꿀이’로 적는 것이고, ‘개구리’는 ‘*개굴거리다, *개굴하다’라는 말이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개구리’로 적는 것이다.

- (25) ㄱ. 꿀꿀이(꿀꿀거리다), 뻘죽이(뻘죽거리다), 푸석이(푸석거리다),
 흘쭉이(흘쭉하다)
 ㄴ. 개구리(*개굴거리다), 뻘꾸기(*뻘쭉거리다), 맴미(*맴거리다),
 부스러기(*부스러거리다)

3) 뻘죽/*뻘쭉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넓적하다’는 ‘넓다’의 어간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넙죽’은 본뜻에서 떨어져 ‘*넓죽’으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넙죽’으로 적는다.

- (26) ㄱ. 하인이 넙죽 절을 한다.
 ㄴ. 무를 넓적하게 썰어서 깍두기를 담갔다.
 ㄷ. 넓적하다, 넓적다리, 넙치[廣魚]

♣ 낚시, 덮개, 굵다랗다, 굵직하다, 깊숙하다, 높다랗다, 늑수그레하다
 울무, 납작하다

4) 덮이다/*덮히다

‘덮다’처럼 어간의 받침이 ‘ㅍ’인 경우 피동이나 사동의 접미사는 ‘-이-’가 결합한다. 따라서 동사 ‘덮다, 짚다’의 피동형은 ‘덮이다, 짚이다’이고, 형용사 ‘높다’의 사동형은 ‘높이다’가 된다.

- (27) ㄱ. 눈으로 덮인 세상
 ㄴ. 짚이는 데가 있다.
 ㄷ. 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이와는 달리 ‘ㄱ’, ‘ㄴ’, ‘ㄷ’, ‘ㄹ’ 받침을 가진 말에는 ‘-히-’가 결합한다.

- (28) ㄱ. 먹히다, 막히다
 ㄴ. 굵히다, 읽히다
 ㄷ. 넓히다, 밟히다
 ㄹ. 굵히다, 입히다, 잡히다

4.7. 합성어 및 접두사(한글 맞춤법 제4장 제4절)

1) 며칠/*몇일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지?”라고 할 때 ‘*몇 일’은 ‘며칠’로 적어야 한다. 이 ‘며칠’은 원형을 밝힐 수 없는 말이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이다. 만일 ‘며칠’의 원형이 ‘몇 + 일(日)’과 같은 구성이라면 [며칠]로 소리 나지 않고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한다. (‘몇 월’, ‘몇 억’이 [며칠]이나 [며척]이 아니라 [며월], [며덕]으로 소리 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단어가 [*며딜]이 아니고 [며칠]로 소리가 난다는 점은 ‘며칠’이 ‘몇 + 일(日)’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즉 ‘며칠’은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며칠]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며칠’은 또다시 ‘날’과 결합하여 ‘며칠날’이라는 합성어를 만들기도 한다(예. 아버님 제사가 5월 며칠날이지?).

(29) ㄱ.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ㄴ. 며칠 동안 여행 다녀올게요.

ㄷ.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2) 사이시옷

가) 시냇가/*시내가, 시냇물/*시내물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그 사이에 ‘시옷(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이시옷’이라고 한다. 두 명사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려면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① 결합하는 두 명사 가운데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한다.

- 결합하는 두 명사가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이어야 한다. 즉 ‘한자어+한자어’ 구성에서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②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

- 앞 단어에 받침이 있으면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 시내’와 ‘가’가 결합할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간 ‘시냇가’로 쓰지만, ‘길’과 ‘가’가 결합할 때는 ‘길’에 받침이 있어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길ㅅ가’, ‘깊가’로 적지 않고 ‘길가’로 적는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는 상황에서 다음의 음운 현상이 나타나면 ‘ㅅ’을 받쳐 적는다.

①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가 [ㄲ, ㄸ, ㅃ, ㅆ, ㅉ]로 변할 때(즉,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할 때)

ㄱ. 콧 + 구멍, 기름, 김, 대, 등, 바람, 방울, 병, 부리, 소리, 속, 수염

ㄴ. 콧병, 기댓값, 대폿값, 등곶길, 고깃국, 만둣국, 맥줏집, 머릿돌, 바닷가, 보랏빛, 빨랫줄, 성곶길, 시냇가, 장밋빛, 전깃불, 조갯살, 찻잔, 고깃집, 횃집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ㄱ. 콧 + 날, 노래, 물, 마루

ㄴ. 겹날, 제삿날, 훗날, 아랫니, 냇물, 빗물, 뱃머리, 수돗물, 뿔마루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즉, 모음 사이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갯잎, 나뭇잎, 베갯잇, 옷잇, 예삿일, 사삿일

나) 머리말/*머릿말

‘머리말’, ‘인사말’은 ‘*머릿말’, ‘*인삿말’로 적지 않는다. 왜냐하면 ‘머리’와 ‘말’, ‘인사’와 ‘말’ 사이에 [ㄴ] 소리가 덧나지 않는 [머리말], [인사말]이 표준 발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단어가 결합했을 때 소리의 변화가 없으면 ‘ㅅ’을 표기하지 않는다.

뒤에 오는 단어가 된소리(ㄱ, ㄷ, ㅁ, ㅂ, ㅅ)나 거센소리(ㅋ, ㅌ, ㅍ, ㅊ)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소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30) ㄱ. 머리말, 인사말, 머리글, 나무다리, 개구멍, 새집, 코감기

ㄴ. 코뼈, 코딱지, 뒤뜰, 위쪽, 아래쪽, 귀뿔

ㄷ. 코피, 위층, 아래층, 낚시터, 뒤풀이

다) 초점/*촛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이시옷은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에는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초점(焦點)’, ‘화병(火病)’, ‘개수(個數)’는 [초점], [화병], [초점]으로 소리 나지만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다만 ‘한자어+한자어’ 구성이더라도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31) ㄱ. 초점(焦點), 대가(代價), 체증(滯症),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 공부방(工夫房)

ㄴ. 예외: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외래어가 포함된 구성일 때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핑긋빔’, ‘*피자집’으로 쓰지 않고 ‘핑크빔, 피자집’으로 쓴다.

[참 고]

예외적으로 길 이름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갈 환경이라도 적지 않는다. ‘고갯길, 등골길’과 같은 일반 명사일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길 이름은 ‘배호길 / *배훗길’처럼 고유 명사적인 성격이 강하고 ‘배호 1길, 배호 2길’처럼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3) 해쑈/*햇쑈

‘그해에 난’을 뜻하는 접두사는 ‘해-’이다. ‘해-’는 뒤에 오는 단어의 첫소리가 된 소리나 거센소리일 때, ‘햇-’은 뒤에 오는 단어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일 때 붙는다. 따라서 ‘쑈’ 앞에는 접두사 ‘해-’가 붙어 ‘해쑈’로 적는다.

다만 ‘싸리(荊), 쌀(米), 씨(種), 때(時)’ 등은 단어 첫머리에 ‘ㅂ’을 가지고 있었던 단어이다. 이 단어들이 다른 단어 또는 접두사와 결합하는 경우, 두 형태소 사이에서 ‘ㅂ’이 발음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해에 난 쌀은 ‘햏쌀’로 적는다.

- (32) ㄱ. 해쑈, 햏쑈, 햏쌀
 ㄴ. 햏감자, 햏과일, 햏병아리
 ㄷ. 햏쌀

4) 새/시/셋/씻-

색채어 앞에 붙는 ‘새-/시-/셋-/씻-’은 색채어 첫소리의 자음이 된소리/거센소리이나 (새/시) 울림소리이나 (셋/씻), 그리고 첫소리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나 (새/셋) 음성 모음이나 (시/씻)에 따라 구분된다.

	양성 모음	음성 모음
된소리나 거센소리	새빨갳다, 새파랳다	시뻘겟다, 시퍼렇다
울림소리(ㄴ, ㄹ)	셋노랳다, 셋말갳다	씻누렇다, 씻멀겟다

4.8. 준말(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1) 안 하다/*않 하다

“다시는 거짓말을 {안/않} 하겠습니까.”에서는 ‘안’이 옳다. ‘안’은 ‘아니’가 줄어든 말이고, ‘않-’은 ‘아니하-’가 줄어든 말이다. ‘않-’은 문장의 서술어로 “내가 하지 않았다.”처럼 ‘-지 않-’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

- (33) ㄱ. 다시는 안 만날 거야/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ㄴ. 안 보이니?/보이지 않니?

2) 어떻게 풀지?/*어떡해 풀지?

‘어떻게’는 ‘어떻-’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것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이다. ‘어떻게’는 “어떻게 풀지?”처럼 다음에 서술어가 와야 하지만, ‘어떡해’는 “나 어떡해.”처럼 서술어가 오지 않는다.

(34) ㄱ.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어떻게 쓰지?/어떻게 말할까요?

ㄴ. 정말 가 버렸으면 어떡해./어떡해, 네가 책임져.

3) 금세/*금새

‘금세’는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로 적어야 한다. ‘어느새, 요새’를 생각하여 ‘*금새’라고 적지만 이는 잘못이다. ‘어느새, 요새, 밤새’의 ‘새’는 ‘사이’가 줄어든 것이다.

(35) ㄱ.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

ㄴ. 그 조그맣던 꼬마가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밤새 비가 내렸나 봐.

4) 웬지/*웬지

“오늘은 웬지 기분이 좋다.”에서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웬지’로 적는다. 하지만 “웬 떡이냐?”라고 할 때는 ‘웬’으로 적는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이다.

(36) ㄱ. 오늘은 웬지 멋있어 보인다.

ㄴ. 이게 웬 날벼락이냐?

봄인데 웬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웬 사람이 널 찾아왔어.

ㄷ. 웬걸 이렇게 많이 가져 오셨어요?

저렇게 부탁하는데 웬만하면 들어 줘라.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1등 할 수 없어요.

웬일이세요?

5) 가저/*갓어

‘가지다’와 그 준말인 ‘갓다’는 복수 표준어이나 준말인 ‘갓다’에 어미가 연결될 때 제약이 있다. ‘갓고, 갓지, 갓게’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될 수 있지만 ‘*갓아/*갓어’, ‘*갓았다/*갓었다’, ‘*갓아서/*갓어서’, ‘*갓으며’, ‘*갓은’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될 수 없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가지다’와만 결합하여 ‘가지어(가저), 가지었다(가졌다), 가지며, 가진’으로 활용한다.

(37) ㄱ. 우산 {가지고/갓고} 가세요.

부담 {가지지/갓지} 마음껏 쓰세요.

ㄴ. 이거 너 {가져/*갖아/*갖어}.

꿈을 {가진/*갖은} 사람

‘디디다/딛다’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미 기본형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가지다	가지고	가지지	가지니?	가지어(가져)	가지니	가지며	가진
갖다	갖고	갖지	갖니?	*갖어/*갖아	*갖으니	*갖으며	*갖은
디디다	디디고	디디지	디디니?	디디어(디더)	디디니	디디며	디딘
딛다	딛고	딛지	딛니?	*딛어	*딛으니	*딛으며	*딛은

‘머무르다/머물다’, ‘서투르다/서툴다’, ‘서두르다/서둘다’ 등도 모두 표준어이다. 다만 준말인 ‘머물다, 서툴다, 서둘다’의 어간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어’가 연결되지 못한다.

어미 기본형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머무르다	머무르고	머무르지	머무르니?	머물러	머무르니	머무르며	머무른
머물다	머물고	머물지	머무니?	*머물어	머무니	머물며	머문
서투르다	서투르고	서투르지	서투르니?	서툴러	서투르니	서투르며	서투른
서툴다	서툴고	서툴지	서투니?	*서툴어	서투니	서툴며	서툰

6) 사귀어/*사겨

‘사귀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한 ‘사귀어’는 ‘*사겨/*사귀’로 줄어들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바뀌어’ 역시 ‘*바껴, *바뀐’ 등으로 줄어들 수 없다. 흔히 ‘언제부터 *사졌니?’, ‘짜이 또 *바졌어?’ 등으로 쓰지만 잘못이다. ‘사귀었니, 바뀌었어’로 써야 한다.

(38) ㄱ. 둘이 사귀어?

ㄴ. 언제 바뀌었어요?

ㄷ. 반이 두 반으로 나뉘었다.

ㄹ. 아프다더니 많이 약위었구나.

7) 왜라/되라

‘되다’의 어간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어 줄어들면 ‘왜’가 된다. ‘되-+-었다’

는 ‘됐다’, ‘되-+-어서’는 ‘돼서’로 줄 수 있다. ‘되다’의 어간에 명령형 어미 ‘-어라’가 결합한 ‘되어라’ 역시 ‘돼라’로 줄 수 있다. 그러나 간접 인용문의 명령형 어미는 ‘-어라고’가 아니라 ‘-(으)라고’이다. ‘되다’의 어간에 ‘-(으)라고’가 결합하면 ‘되라고’가 된다.

(39) ㄱ. 시간이 {되어서/돼서} 모두 떠났다.

이제 삼학년이 {되었다/됐다}.

어떻게 해야 {되어(요)/돼(요)}?

제발 사람 좀 {되어라/돼라}.

ㄴ. 그게 말이 {되느냐/*되어느냐}?

일이 {성사되고/*성사되어고} 나서 연락해라.

ㄷ. 착한 사람이 {되어라/돼라}.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되-+--(으)라고] 말씀하셨다.

♣ 꺾다, 꺾다, 뇌다, 되다, 뵈다, 쇠다, 썬다, 죄다, 쪼다

8) -잖-/ -잖-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러므로 ‘시원하지 않다’는 ‘시원치 않다 → *시원잖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원잖다’와 같이 적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잖’이나 ‘*잖’과 같이 적는 일은 없고 모두 ‘잖’이나 ‘잖’으로 적는다.

-지 않-	-하지 않-
적지 않다 → 적잖다	만만하지 않다 → 만만잖다
그렇지 않다 → 그렇잖다	변변하지 않다 → 변변잖다
두렵지 않다 → 두렵잖다	성실하지 않다 → 성실잖다

9) 생각건대/*생각컨대

생각하건대’가 줄면 ‘생각건대’가 된다. ‘하다’가 결합하는 앞말의 받침이 [ㄱ, ㄷ, ㅂ]으로 소리가 나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것이면 ‘ㅏ’만 줄고 ‘ㅎ’이 남아 뒷말이 거센 소리가 된다.

받침 [ㄱ], [ㄷ], [ㅂ] 뒤	그 외
거북하지→거북지, 넉넉하지→넉넉지 깨끗하지→깨끗지 섬섬하지→섬섬지	청하건대→청컨대 무심하지→무심치 연구하도록→연구토록

(40) ㄱ. 생각전대 누군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살림이 넉넉지 않다.

ㄴ. 이번 달에 제출토록 할 것.

문제가 간단치 않다.

10) 아무튼/*아뭇든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연결된 말 가운데 하나의 형태만이 굳어져서 부사로 쓰이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아무튼’은 ‘아뭇-’에 어미 ‘-든’이 연결된 것인데, ‘아뭇-’ 뒤에는 ‘-든’ 이외에 어떤 어미도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튼’은 부사로만 쓰이므로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하지만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아무렇다, 어떻다’의 어간에 어미 ‘-든’이 연결된 ‘이렇든, 그렇든, 저렇든, 아무렇든, 어떻든’ 등은 이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튼’으로 적지 않는다.

(41) ㄱ. 아무튼 불행 중 다행이다.

ㄴ. 결과야 어떻든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결론이 났다.

한편, ‘아무튼’은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의 뜻으로 ‘어떻든, 어쨌든, 여하튼, 하여튼’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42) ㄱ.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ㄴ. 이렇든, 그렇든, 저렇든, 아무렇든, 어떻든

4.9. 그 밖의 것(한글 맞춤법 제6장)

1) -이/히: 깨끗이/*깨끗히(제51항)

‘-이’나 ‘-히’가 붙어 부사가 만들어질 때, ‘이’나 ‘히’의 표기는 소리에 따라 결정된다. 즉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 나가거나 [이]나 [히]로 소리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그러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사전을 찾아 확인해야 한다.

가. ‘-이’로 적는 경우

① ‘ㅅ’ 받침 뒤: 깎듯이, 깨끗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② ‘ㄷ’ 불규칙 형용사 뒤: 가까이, 가벼이, 고이, 괴로이, 날카로이, 쉬이, 새삼스레

- ③ ‘하다’가 붙지 않은 형용사 뒤: 같이, 굳이, 많이, 적이, 헛되이
 ④ 첩어 명사 뒤: 간간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나 ‘-히’로 적는 경우

- ① ‘히’로만 소리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익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간곡히, 까마득히, 머쓱히, 막막히, 똑똑히
 ② ‘이, 히’로 소리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2) 갈게/*갈께(제53항)

“*내가 갈게.”는 틀린 표기이고 “내가 갈게.”가 옳은 표기이다. “집에 갈까?”, “힘에 굴복할쏘냐?”, “어찌 할꼬?”의 ‘-(으)르까’, ‘-(으)르쏘냐’, ‘-(으)르꼬’ 등의 의문형 어미를 제외하고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이미 도착했을걸.”, “*제주도로 갈꺼나.” 등도 ‘-(으)르걸’, ‘-(으)르거나’로 써야 한다.

(43) ㄱ. 내일 빌게요.

이미 도착했을걸.

제주도에 갈거나.

ㄴ. 집에 갈까?

힘에 굴복할쏘냐?

어찌 할꼬?

♣ -르세, -르수록, -르시, -르지라도, -르지언정, -르진저, -올시다
 -리까?, -르쏘냐?, -르꼬?, -ㄴ니까?

3) -꾼/*-군(제54항)

‘나무꾼’이 옳은 표기다. ‘-꾼’은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므로 ‘*나뭇꾼, *나뭇군’으로 적지 않는다. ‘남시꾼’, ‘사기꾼’ 등도 마찬가지다. ‘때깎’도 ‘*땃깎/*땃갈’로 적지 않는다. 단 ‘젓갈’은 ‘*젓갈’이 아니라 ‘젓갈’이 옳다.

(44) ㄱ.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게꾼

ㄴ. 때깎, 빗깎, 성깎

ㄷ. 귀때기, 볼때기, 판자때기

ㄹ. 뒤꿈치, 팔꿈치

ㅁ. 객쩍다, 겸연쩍다

4) -박이/배기/빼기(제54항)

‘박이’와 ‘배기’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이다. ‘박다’의 의미가 살아 있는 경우 ‘-박이’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기’를 쓴다. ‘-배기’는 ① 그 나이를 먹은 아이를 나타내는 접미사(한 살배기, 다섯 살배기), ② 어떤 것이 들어 있거나 꽉 차 있음을 뜻하는 접미사(알배기), ③ 어떤 명사 뒤에 붙어 그런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공짜배기, 진짜배기) 등으로 쓰인다.

- (45) ㄱ. 점박이, 덧니박이, 외눈박이, 차돌박이, 오이소박이, 불박이, 장승박이
 ㄴ. 한 살배기, 다섯 살배기
 알배기
 공짜배기, 진짜배기

이와 달리 명사 뒤에 붙어 [빼기]로 소리 나는 것은 ‘-빼기’로 적는다.

- (46) 이마빼기, 고들빼기, 곱빼기, 억척빼기, 코빼기

다만 [뚝빼기]로 소리 나는 말은 ‘뚝배기’로 적는데, ‘뚝배기’는 ‘뚝’과 ‘배기’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쭈]로 소리 나는 말을 ‘국수’로, [낙찌]로 소리 나는 말을 ‘낙지’로 적는 것과 같다.

5) -던/-든(제56항)

‘-든’은 선택을, ‘-던’은 과거를 나타낸다.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마.”는 선택의 상황을 나타내고, “사람이 많이 왔던가?”는 과거의 상황을 나타낸다. ‘-더-’가 들어 있는 ‘-던’, ‘-던가’, ‘-던걸’, ‘-던고’, ‘-던데’, ‘-던들’ 등도 모두 과거를 나타낸다.

- (47) ㄱ.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
있든가 가든가 뜻대로 해.
 ㄴ. 어릴 적 살던 곳
 영이가 뵈라던?
 철수가 집에 있던가 없던가?

6) 로서/로써, -므로/-음으로써(제57항)

조사 ‘로서’는 자격, ‘로써’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쓰인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에는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서’가, “술로써 인생을 탕진했다.”에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써’가 쓰인다.

(48) ㄱ.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자.

친구로서 나를 욕하다니!

ㄴ. 눈물로써 호소했다.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으)로(으)로(써)’와 ‘-므로’도 구분해서 써야 한다. ‘-(으)로(으)로(써)’는 ‘-(으)로’에 ‘으(로(써))’가 붙은 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가지고’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므로’는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으)로(으)로’에는 ‘써’가 붙을 수 있지만 ‘-므로’에는 ‘써’가 붙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49) ㄱ. 그는 부지런하므로 잘 산다.(부지런하기 때문에)

ㄴ. 그는 일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일하는 것을 가지고)

7) 맞히다/맞추다/마치다(제57항)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적중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답을 맞히다’와 ‘답을 맞추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이 된다. ‘적중하다’의 의미가 있으면 ‘답을 맞히다’를 쓰고, ‘답을 비교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답을 맞추다’를 쓴다. 따라서 “정답을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가 맞고, “친구와 답을 맞춰 보았는데 많이 틀렸더라.”가 맞다. ‘마치다’는 “일을 마쳤다.”와 같이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다’의 의미로 쓰인다.

(50) ㄱ. 내가 열 문제 모두를 맞혔어.

상자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ㄴ.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안을 맞춰 보았다.

ㄷ. 다행히 일을 제시간에 마쳤다.

8) 벌이다/벌리다(제57항)

‘벌이다’는 ‘싸움을 벌이다’, ‘일을 벌이다’, ‘좌판을 벌이다’처럼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펼쳐 놓을 때에 쓰고 ‘벌리다’는 ‘입을 벌리다’, ‘자루를 벌리다’와 같이 둘 사이를 넓힐 때 쓴다.

(51) ㄱ. 마을 회관에서 잔치를 벌였다.

퇴직하고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ㄴ. 다리를 벌리고 앉지 마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9) 부딪히다/부딪치다(제57항)

‘부딪치다’는 ‘힘차게 부딪다’의 뜻이고 ‘부딪히다’는 ‘부딪음을 당하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와 버스가 상호작용으로 충돌한 경우에는 ‘부딪치다’를 쓰고,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부딪게 되는 경우에는 ‘부딪히다’를 쓴다. ‘부딪치다’는 ‘마주’나 ‘서로’라는 부사가 와도 자연스러우나, ‘부딪히다’는 그렇지 않다.

(52) ㄱ. 자동차와 버스가 마주 부딪쳐 사상자가 많다.

ㄴ. 자동차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그들의 결혼은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다.

졸업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다.

10) 붙이다/부치다(제57항)

‘붙이다’와 ‘부치다’는 구별되는 말이다. 대체로 ‘붙다’의 뜻이 남아 있는 경우는 ‘붙이다’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치다’로 적는다.

(53) ㄱ. 반창고를 붙이다./책상을 벽에 붙이다./불을 붙이다./홍정을 붙이다./감시원을 붙이다./주석을 붙이다./조건을 붙이다./별명을 붙이다./번호를 붙이다.

따귀를 올려붙이다./소매를 걷어붙이다./친구를 범인으로 몰아붙이다.

ㄴ. 편지를 부치다./안건을 회의에 부치다./극비에 부치다./인쇄에 부치다./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다./한글날에 부쳐/식목일에 부치는 글/기운이 부치다./논밭을 부치다./부침개를 부치다./부채를 부치다.

11) 조리다/줄이다(제57항)

‘조리다’와 ‘줄이다’는 모두 ‘줄다’와 어원적으로 관련 있는 말이지만 ‘조리다’는 ‘줄다’와 그 의미가 멀어졌다고 보아 어원을 밝혀 적지 않는다. ‘조리다’는 ‘생선을 조리다’, ‘장조림’과 같이 양념을 하여 국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끓일 때 쓰이고, ‘줄이다’는 ‘마음을 줄이다’와 같이 초조해할 때 쓰인다. 그리고 생선조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물이 줄어들게 만든다는 의미일 때에도 ‘줄이다’(‘줄이다’의 작은말)를 쓴다.

(54) ㄱ. 생선을 간장에 조려 먹었다.

생선조림, 장조림, 깻잎조림

ㄴ. 마음을 줄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깜빡 잊고 찌개를 한 시간이나 줄였다.

[연습 문제]

※ 다음 중에서 바른 것을 고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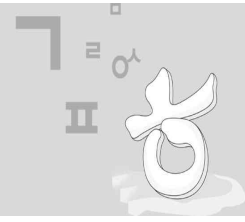
- [01] {깍두기/깍뚜기} 한 접시 더 주세요.
- [02] {덥석/덥씩} 손을 잡았다.
- [03] 다친 사람을 {안스럽게/안쓰럽게} 쳐다본다.
- [04] {곧장/곳장} 집으로 와라.
- [05] 보수가 많긴 하지만 {중노동/중로동}이다.
- [06] {입사년도/입사 연도}가 언제지?
- [07] {신년도/신연도}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 [08] 식품 속에 {나트륨양/나트륨량}이 많습니다.
- [09] 소금 {함유양/함유량}이 얼마나 되나요?
- [10] 채택된 기사는 {어린이난/어린이란}에 실립니다.
- [11] {답란/답난}을 채우세요.
- [12] {출석률/출석율}이 낮으면 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 [13] {흡연률/흡연율}이 해마다 줄고 있다.
- [14] ‘예’, ‘{아니오/아니요}’로 답하세요.
- [15] 어서 {오십시오/오십시요}.
- [16] 하늘을 {나는/날으는} 자동차
- [17] 떡을 쌀로 {만듬/만듭}.
- [18] 바쁘니 오지 {마라고/말라고} 하십니다.
- [19] {부은/불은} 라면을 먹고 잤더니 통통 {부었다/불었다}.
- [20] 명절에 먹으려고 김치를 {담갸다/담궂다}.
- [21] 공원이 {가까와서/가까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다.
- [22] {반드시/반듯이} 내일까지 끝내겠습니다.
- [23] 우리 조상들은 {일찌기/일찍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
- [24] 똥똥이와 {홀쭉기/홀쭉이}
- [25] 주는 대로 {넉죽/넉죽} 받아 먹는다.
- [26] {짚이는/짚히는} 사람이 있다.
- [27] {몇 일/며칠} 동안 고향에 다녀올 생각이다.
- [28] {등교길/등곳길}에 친구를 만났다.
- [29] {수도물/수돗물}의 정수 과정
- [30]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니 {예사일/예삿일}이 아니다.
- [31] {인사말/인삿말}은 간단한 것이 좋다.
- [32] {아래층/아랫층}으로 내려갔다.

- [33] {대가/댓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
- [34] {해콩/햇콩}을 장에 내다 팔았다.
- [35] {새노란/셋노란} 병아리
- [36] 다시는 {안/않} 늦을 거야.
- [37] 만나지 {안을/않을} 거예요.
- [38] {어떻게/어떡해} 하지? 지갑을 잃어버렸어.
- [39] 약을 먹었으니 {금세/금새} 괜찮아질 거예요.
- [40] 이렇게 늦게 {웬일/웬일}이세요?
- [41] 난 있으니 당신 {가져요/갖어요}.
- [42] 괜찮으면 {사귀어/사겨} 봐.
- [43] 아버지는 항상 의사가 {되라고/똌라고} 하셨다.
- [44] {적잖이/적잖이} 놀랐다.
- [45] 준비한 것이 {변변찮지만/변변찮지만} 많이 드세요.
- [46] {섭섭지/섭섭치} 않게 손님을 대접했다.
- [47] {아뭉튼/아무튼} 내일은 꼭 같이 가는 거다.
- [48] 방을 {깨끗이/깨끗히} 치워라.
- [49] {번번이/번번히} 늦어서 죄송합니다.
- [50] {도저이/도저히} 10시까지는 못 가겠어요.
- [51] 내일 {벌게요/벌께요}.
- [52] {때갈/땃갈/땃갈}이 좋은 게 맛있게 생겼다.
- [53] {오이소박이/오이소배기}를 담갔다.
- [54] {한 살박이/한 살배기}가 무엇을 알겠어요.
- [55] 찌개는 {뚝배기/뚝빠기}에 끓여야 맛있다.
- [56] {곱배기/곱빠기}는 혼자 먹기에는 많다.
- [57] 그 사람은 뭐하고 {살든가/살던가}?
- [58] 어디에 {살든/살던} 고향은 잊지 마라.
- [59] 학교 {대표로서/대표로써}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 [60] 사업을 {시행하르로서/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 [61] 문제를 낼 테니 {알아맞혀/알아맞춰} 보세요.
- [62] 내일 학교에서 잔치를 {벌일/벌릴} 예정입니다.
- [63] 자동차와 트럭이 마주 {부딪쳐/부딪혀} 자가용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
- [64] 흥정은 {부치고/붙이고} 싸움을 말리라고 했다.
- [65] 간장을 넣고 한 시간 정도 {조리면/줄이면} 됩니다.

♠ 정 답 ♠

[01] 깎두기	[02] 덩석	[03] 안쓰럽게	[04] 곧장	[05] 중노동
[06] 입사 연도	[07] 신년도	[08] 나트륨양	[09] 함유량	[10] 아닌 아닌
[11] 답란	[12] 출석률	[13] 흡연율	[14] 아니요	[15] 오십시오
[16] 나는	[17] 만듦	[18] 말라고	[19] 불은/부었다	[20] 담갔다
[21] 가까워서	[22] 반드시	[23] 일찍이	[24] 흘쭉이	[25] 넙죽
[26] 짚이는	[27] 며칠	[28] 등곶길	[29] 수돗물	[30] 예삿일
[31] 인사말	[32] 아래층	[33] 대가	[34] 해콩	[35] 셋노란
[36] 안	[37] 앓을	[38] 어떻게	[39] 금세	[40] 웬일
[41] 가져요	[42] 사귀어	[43] 되라고	[44] 적잖이	[45] 변화 차만
[46] 섬섬지	[47] 아무튼	[48] 깨끗이	[49] 번번이	[50] 도저히
[51] 뵈게요	[52] 때깎	[53] 오이소박이	[54] 한 살배기	[55] 뚝배기
[56] 곱빼기	[57] 살던가	[58] 살든	[59] 대표로서	[60] 시합 으로써
[61] 알아맞혀	[62] 벌일	[63] 부딪쳐	[64] 붙이고	[65] 조리면

한글 맞춤법의 실제



1. 두음 법칙

1.1. 난/란, 량/양

① 답난	답란	답 答欄
② 가십난	가십란	잡 gossip欄
③ 어린이난	어린이란	잡 어린이欄
④ 생산량	생산양	잡 生産量
⑤ 알칼리량	알칼리양	잡 alkali量
⑥ 기름량	기름양	잡 기름量

☞ ‘난/란’, ‘량/양’의 표기는 앞에 오는 말이 한자어인지 고유어·외래어인지로 구분된다. 앞에 오는 말이 한자어일 때는 그대로 적고 고유어나 외래어일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한자어	고유어나 외래어
난/란	독자란, 답란, 의견란	어머니난, 어린이난, 가십난
량/양	수입량, 수출량, 생산량	구름양, 벡터양, 스칼라양

1.2. 룰/울

① 합격룰	합격울
② 기준룰	기준울
③ 감소룰	감소울
④ 성장룰	성장울

☞ ‘룰/울’의 표기는 앞에 오는 말의 받침에 따라 구분된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받침이 ‘ㄴ’이면 ‘울’로 적고, ‘ㄴ’ 이외의 받침으로 끝나면 ‘룰’로 적는다.

1.3. 기타

① 반립자	반입자	㉞ 反粒子
② 소립자	소입자	㉞ 素粒子
③ 몰염치	몰염치	㉞ 沒廉恥
④ 파렴치	파염치	㉞ 破廉恥
⑤ 삼십륙	삼십육	㉞ 三十六
⑥ 오뉴월	오유월	㉞ 五六月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예 반입자, 몰염치, 역이용)이나 합성어와 명사구의 뒷말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예 연이월, 열역학, 해외여행 / 회계 연도, 생산 연도 등) 그러나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그대로 표기에 굳어진 것도 있다.

☞ 숫자를 십진법에 따라 적을 때에는 단어의 첫소리가 아니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예 육천육백육십) 그러나 십진법에 따라 적지 않으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예 오륙도) 사람들의 발음 습관에 따라 적는 경우도 있다.

[생각할 문제]

- 성씨나 이름을 쓸 때도 두음 법칙에 따라야 할까?

2. 사이시옷

2.1. ~국

① [김치썩/김찢썩]	김치국	김칫국
② [고기썩/고기찢]	고기국	고깃국
③ [선지썩/선지찢]	선지국	선짓국
④ [부거썩/부견썩]	북어국	북엇국
⑤ [만두썩/만둔썩]	만두국	만둣국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는 사이시옷을 넣는다.

2.2. ~말

① [혼잔말]	혼자말	혼жат말
② [뒤말]	뒤말	뒷말
③ [시첸말]	시체말	시챇말
④ [머리말]	머리말	머릿말
⑤ [인사말]	인사말	인삿말
⑥ [나라말]	나라말	나라랏말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ㄹ’일 때 [ㄴ] 소리가 덧나면 사이시옷을 넣는다. 그러나 [ㄴ] 소리가 덧나지 않으면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예 뒷머리[뒀머리] / 돼지머리[돼지머리]

2.3. ~방

① [빨래방]	빨래방	빨랫방
② [노래방]	노래방	노랫방
③ [가게빵/가겐빵]	가게방	가갇방
④ [구두빵/구둔빵]	구두방	구뒸방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지 않으면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2.4. 한자어

① 代價	대가	댓가
② 焦點	초점	춇점
③ 回數	회수	혇수
④ 貰房	세방	셋방
⑤ 傳貰房	전세방	전셋방

☞ ‘한자어+한자어’ 구성의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

예 백지장(白紙張), 기차간(汽車間)

☞ ‘한자어+한자어’ 구성이지만 사이시옷이 붙는 것이 있다.(6개)

예 곶간, 찻간, 텃간, 셋방, 숫자, 횃수

2.5. 외래어

- | | |
|-------|-----|
| ① 장미빛 | 장밋빛 |
| ② 핑크빛 | 핑크빛 |
| ③ 고기집 | 고깃집 |
| ④ 피자집 | 피갓집 |

☞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

2.6. 수학 용어

- | | | |
|-------|-----|-------|
| ① 꼭지점 | 꼭짓점 | |
| ② 소수점 | 소숫점 | ㉠ 小數點 |
| ③ 대표값 | 대표값 | ㉡ 대표치 |
| ④ 절대값 | 절댓값 | ㉢ 절대치 |
| ⑤ 최소값 | 최솟값 | ㉣ 최소치 |
| ⑥ 최대값 | 최댓값 | ㉤ 최대치 |
| ⑦ 근사값 | 근삿값 | ㉥ 근사치 |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는 사이시옷을 넣는다.

☞ ‘한자어+한자어’ 구성의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

[생각할 문제]

- ‘햇님’과 ‘해님’ 중 어느 것이 맞을까?
- 도로명 ‘개나리길’은 ‘개나릿길’로 써야 하지 않을까?

3. 활용

3.1. ‘날다’와 ‘거칠다’의 활용

- ① 나는 하늘을 {나는/날으는} 슈퍼맨이다.
- ② {거친/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 ③ {낮선/낮설은} 곳에서 길을 잃었다.
- ④ 연은 보통 바람이 불 때 잘 {날/날음}.
- ⑤ 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몹시 {낯설/낮설음}.

☞ ‘ㄷ’ 받침을 가진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ㄴ’이나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예: -는, -느냐, -니, -니까, -네, -시다, -시니, -시고, -십시오, -시구려, -소, -소서, -세 등)가 결합하면 어간의 ‘ㄷ’이 떨어진다.

날- + -는 ⇒ 나는 알- + -는 ⇒ 아는

거칠- + -(으)ㄴ ⇒ 거친 낮설- + -(으)ㄴ ⇒ 낯선

☞ 명사형 어미 ‘-ㅁ/음’은 결합하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받침이 없는 용언의 어간이나 ‘ㄷ’ 받침인 용언의 어간에는 ‘-ㅁ’이 붙고 받침이 있는 어간에는 ‘-음’이 붙는다.

가- + -ㅁ ⇒ 감 예쁘- + -ㅁ ⇒ 예쁨

날- + -ㅁ ⇒ 날 낮설- + -ㅁ ⇒ 낮설

먹- + -음 ⇒ 먹음 좋- + -음 ⇒ 좋음

3.2. ‘맞다’와 ‘알맞다’의 활용

- ① 내 육감은 잘 {맞는/맞은} 편이다.
- ② 그 사람은 나와 잘 맞지 {않는/않은} 것 같다.
- ③ 이 집 요리사가 만든 음식은 내 입맛에 맞지 {않는/않은} 적이 없다.
- ④ 빈칸에 {알맞는/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 ⑤ 학생 신분에 알맞지 {않는/않은} 옷차림
- ⑥ 분위기에 {걸맞는/걸맞은} 옷차림

☞ ‘맞다’와 ‘알맞다, 걸맞다’는 품사가 달라서 활용하는 모습도 다르다. ‘맞다’는 동사이고 ‘알맞다, 걸맞다’는 형용사이다. 그래서 현재 시제 관형형 어미가 결합하면 ‘맞다’는 ‘맞는’이 되고 ‘알맞다, 걸맞다’는 ‘알맞은, 걸맞은’이 된다.

맞- + -는 ⇒ 맞는

㉠ 가는 사람, 먹는 곳

알맞- + -은 ⇒ 알맞은

㉡ 예쁜 사람, 좋은 곳

☞ ‘-지 않다’에서 보조 용언 ‘않다’의 품사는 앞에 오는 말의 품사에 따라 달라진다.

맞지 않는 옷

㉠ 가지 않는 사람

알맞지 않은 옷

㉡ 예쁘지 않은 사람

3.3. ‘되다’의 활용

① {됐으니까/됐으니까} 그만 가자.

㉢ 했으니까

② 어서 의사가 {되라/돼라}.

㉣ 해라

③ 어머니는 아들이 의사가 {되라고/돼라고} 기도했다.

㉤ 하라고

④ 의사가 {되니까/돼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

㉥ 하니까

☞ ‘되다’의 어간에 ‘-어’가 붙으면 ‘되어’가 되고 ‘되어’가 줄면 ‘돼’가 된다.

되- + -어서 ⇒ 되어서/돼서 되- + -었- + -다 ⇒ 되었다/됐다

☞ 간접 인용문의 명령형 어미는 ‘-(으)라고’이므로 ‘되어/돼’가 될 수 없다.

되- + -(으)라고 ⇒ 되라고 ㉦ 되- + -어라 ⇒ 되어라/돼라

☞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청자나 독자에게 책 따위의 매체를 통하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문어체)로 ‘-(으)라’를 쓸 수도 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써라.(쓰- + -어라)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라.(쓰- + -(으)라)

3.4. 명령형 어미

① 어서 집에 {가라/가거라}.

② 여기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가져가거라}.

③ 여기 좀 앉아 {있어라/있거라}.

④ 피곤할 텐데 어서 {자라/자거라}.

⑤ 떠들지 {말아라/마라}.

☞ 해라할 자리에 쓰이는 명령형 어미는 ‘-아라/어라’이다. 다만 어미 ‘-거라’는 ‘가다’나 ‘가다’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 어미 ‘-너라’는 ‘오다’나 ‘오다’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 붙을 수 있다. 따라서 ‘있거라’, ‘자거라’는 잘못이다.

☞ ‘말다’의 어간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하면 ‘말아, 말아라’가 아닌 ‘마, 마라’가 된다.

제발 떠나지 마.(말- + -아)

제발 떠나지 마라.(말- + -아라)

☞ 다만 문어체 명령형 어미 ‘-(으)라’나 간접 인용문의 명령형 어미 ‘-(으)라고’가 결합하면 ‘말라’가 된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말- + -(으)라)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말- + -(으)라고 하는)

3.5. 어미 ‘-아/어’

① 보라색 옷과 함께 빨았더니 흰옷이 {파래졌다/파레졌다}.

②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퍼래졌다/퍼레졌다}.

③ 아이가 친구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진다/빨게진다}.

④ 화가 났는지 얼굴이 {빨개져서/빨게져서} 들어왔다.

⑤ 누가 {그래/그레}?

☞ 어간의 모음이 ‘ㅏ’나 ‘ㅑ’면 ‘-아’ 계열의 어미가 붙고 어간의 모음이 ‘ㅓ’나 ‘ㅕ’가 아니면 ‘-어’ 계열의 어미가 붙는다. ‘파랳다’의 어간에 ‘-아’가 붙으면 ‘파래’가 되고, ‘퍼렁다’의 어간에 ‘-어’가 붙으면 ‘퍼레’가 된다.

파랳- + -아 ⇒ 파래 퍼렁- + -어 ⇒ 퍼레

빨강- + -아 ⇒ 빨개 벌렁- + -어 ⇒ 벌게

☞ 다만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의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이래, 그래, 저래’가 된다.

[잠깐] 색채어에 붙는 접두사 ‘시-/잇-/새-/셋-’도 뒤에 오는 말의 모음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어두음 \ 모음	양성모음	음성 모음
된소리, 거센소리, ‘ㅎ’	새빨강다, 새파랳다, 새하얳다	시빨겉다, 시퍼렇다, 시허엷다
울림소리	셋노랳다, 셋말강다	잇누렇다, 잇멀겉다

4. 된소리 표기

4.1. 단어 내부

① 안스럽다	안쓰럽다
② 살짝	살짝
③ 깎두기	깎뚜기
④ 업신여기다	업씬여기다
⑤ 눈곱	눈뿔
⑥ 눈살	눈썰

☞ 한 단어 내에서 된소리로 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다만 ‘ㄱ’이나 ‘ㄴ’ 받침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항상 된소리로 나므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오빠, 아끼다, 기쁘다, 해쓱하다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훨씬, 움찔, 몽땅, 번쩍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국수, 싹둑, 딱지, 낙지, 납작하다

☞ ‘눈곱’과 ‘눈살’은 [눈뿔, 눈썰]로 소리 나므로 ‘눈뿔, 눈썰’로 적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곱’과 ‘살’이 자립적으로 쓰이므로 ‘눈곱, 눈살’로 적는다.

곱: 여드름에 앓은 딱지가 떨어져 곱이 흐른다.

살: 주름살, 이맛살

4.2. 어미

- ① 나 집에 {갈게/갈께}.
- ② 아까 집에 같이 {갈걸/갈꼐}.
- ③ 시간이 {갈수록/갈쭝} 일이 더 힘들다.
- ④ 우리, 집에 {갈가/갈까}?
- ⑤ 이 일을 {어찌할고/어찌할꼬}?

☞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는 된소리로 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	-ㄱ까?, -ㄱ꼬?, -ㄱ쏘냐?
그렇지 않은 경우	-ㄱ게, -ㄱ걸, -ㄱ시, -ㄱ지, -ㄱ지언정, -ㄱ지라도

4.3. 겹쳐 나는 소리

- ① 꽃꽃하다 꽃꽃하다
- ② 쓱쓱쓱 쓱쓱쓱
- ③ 씹씹하다 씹씹하다
- ④ 유유상종 유류상종

☞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5. 박이/배기/빼기

5.1. 박이/배기

- ① 두 살박이 두 살배기
- ② 차돌박이 차돌배기
- ③ 장승박이 장승배기 ㉠ 장승감으로 박아서 세워 두는 물건. 또는 그것이 세워져 있는 곳.
- ④ 알박이 알배기 ㉡ 알이 들어 배가 부른 생선.

☞ ‘박이’와 ‘배기’의 구분은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박다’의 의미가 남아 있는 것은 ‘-박이’를 쓰고 ‘박다’의 의미에서 멀어진 것은 ‘-배기’를 쓴다.

-박이	점박이, 금니박이, 덧니박이, 불박이, 장승박이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란 뜻.)
-배기	다섯 살배기(‘그 나이를 먹은 아이’란 뜻), 나이배기(‘그것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의 뜻), 공짜배기, 대짜배기, 진짜배기(‘그런 물건’의 뜻)

5.2. 배기/빼기

- ① 진짜배기 진짜빼기
- ② 이마배기 이마빼기
- ③ 육자배기 육자빼기
- ④ 악착배기 악착빼기
- ⑤ 뚝배기 뚝빼기
- ⑥ 곱배기 곱빼기 ㉢ 곱: 네 곱, 다섯 곱의 고통

☞ ‘배기’와 ‘빼기’의 구분은 소리와 관련되어 있다. [배기]로 소리 나는 것은 ‘배기’로 적고 [빼기]로 소리 나는 것은 ‘빼기’로 적는다. 다만 ‘뚝배기’처럼 한 형태소(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내부에서 ‘ㄱ, ㄴ’ 받침 뒤에 쓰인 ‘ㅂ’이 된소리로 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빼기’로 적지 않고 ‘배기’로 적는다.

~배기	[배기]로 소리 나는 경우	주정배기, 혀짤배기
	한 형태소 내부, ‘ㄱ, ㄴ’ 받침 뒤에서 [빼기]로 소리 나는 경우	뚝배기, 학배기(잠자리의 애벌레)
~빼기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소리 나는 경우 (1. ‘그런 특성이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2. 비하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곱빼기, 밥빼기, 억척빼기, 코빼기

[생각할 문제]

- 서울 상도동에 있는 지명 ‘장승배기’는 ‘장승박이’와 다른 것일까?

6. -이/히

① [깨끄시]	깨끗이	깨끗히
② [깊쑤기]	깊숙이	깊숙히
③ [술찌키]	술직이	술직히술직히

☞ ‘-이’와 ‘-히’로 끝나는 부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발음이다. [이]로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적고, [이]나 [히]로 소리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형태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니 사전을 확인해 봐야 한다.

- 1) ‘ㅅ’ 받침 뒤
뜨뜻이, 버젓이, 번듯이, 빠듯이, 지긋이
- 2)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이나 ‘ㅂ’ 불규칙 용언 뒤
같이, 굳이, 깊이, 많이, 실없이, 가벼이, 기꺼이, 너그러이, 즐거이, 새로이
- 3) 첩어 또는 준첩어 명사 뒤
간간이, 나날이, 곰곰이, 번번이, 곳곳이, 찜찜이, 철철이
- 4) 부사 뒤
더욱이, 오히려, 우뚝이, 일찍이, 허죽이, 곰곰이 ㉠ 꼼꼼히, 시시콜콜히

7. 이에요/이어요

① 학생이에요	학생이어요
② 친구예요	친구여요
③ 김진석이에요	김진석이어요
④ 김진수예요	김진수여요
⑤ 영숙이에요	영숙이어요
⑥ 아니에요(아네요)	아니어요(아녀요)

☞ ‘이에요’와 ‘이어요’는 복수 표준어로 ‘이다’에 ‘-예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받침 있는 명사 다음에 붙을 때는 ‘이에요, 이어요’가 되고, 받침 없는 명사 다음에 붙을 때는 ‘예요, 여요’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학생이에요’처럼 쓸 수 없다.

☞ 사람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이어요’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예요, 여요’가 붙는다. ⑤의 ‘영숙이에요, 영숙이어요’는 ‘영숙이’에 ‘예요, 여요’가 붙은 것이다.

☞ ‘아니다’의 어간에 ‘-예요, -어요’가 붙으면 ‘아니예요, 아니어요’가 되며 이들은 ‘아네요, 아녀요’로 줄 수 있다.

8.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예

8.1. -던/든

- ① 예전에 {먹던/먹든} 음식
- ② 내일 {가던지/가든지} 해라.
- ③ 철수가 {뒤편가/뒤편가}?

☞ ‘-던’과 ‘-든’은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나 의미가 다른 말이다. ‘-던’은 과거 회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든’은 선택의 의미를 나타낸다. ‘-던’이 들어 있는 ‘-던가, -던걸, -던고, -던데’ 등도 모두 과거 회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8.2. 그리고 나서

- ①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그리고 나서} 차를 마셨다.
- ② 밥을 먹었다. {그리고는/그리고는} 차를 마셨다.

☞ ‘-고 나서’는 ‘가고 나서, 먹고 나서’처럼 동사의 어간 뒤에 붙는다. 동사 ‘그러다’의 어간에 ‘-고 나서’가 붙은 말이므로 ‘그리고 나서’로 쓰는 것이 맞다.

☞ ‘-고는’도 ‘먹고는, 쉬고는, 말하고는’처럼 ‘-고’ 앞에 동사의 어간이 온다. 그러므로 ‘그리고는’이 맞다.

8.3. 하므로/함으로

- ① 그는 열심히 {공부하므로/공부함으로} 성공할 것이다.
- ② 이 법률을 {시행하므로/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 ‘하므로’는 ‘하다’의 어간에 이유·원인의 연결 어미 ‘-(으)므로’가 붙은 말이고, ‘함으로’는 ‘하다’의 명사형 ‘함’에 수단·방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으로’가 붙은 말이다.

8.4. 떼다/떠다/띄다

- ① 선거가 끝나면 벽보를 {떼기로/띄기로} 했다.
- ② 미소를 {띤/띤} 얼굴
- ③ 멀리서도 눈에 {띤다/띄다}.

☞ ‘떼다, 떠다, 띄다’도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나 뜻이 다르다.

떼다	벽보를 떼다, 한글을 떼다, 젓을 떼다, 눈을 떼다, 입을 떼다
떠다	허리띠를 떠다, 임무를 떠다, 미소를 띄다, 홍조를 띄다
띄다	① 눈에 띄다(뜨이다) ② 두 줄을 띄다(띄우다)

♠ 정 답 ♠

1. 두음 법칙

- 1.1. ①답란 ②가십난 ③어린이난 ④생산량 ⑤알갈리양 ⑥기름양
 1.2. ①합격률 ②기준율 ③감소율 ④성장률
 1.3. ①반입자 ②소립자 ③몰염치 ④파렴치 ⑤삼십육 ⑥오뉴월

2. 사이시옷

- 2.1. ①김칫국 ②고깃국 ③선짓국 ④복엿국 ⑤만듯국
 2.2. ①혼잣말 ②뒷말 ③시쳇말 ④머리말 ⑤인사말 ⑥나라말
 2.3. ①빨래방 ②노래방 ③가갯방 ④구듯방
 2.4. ①대가 ②초점 ③헛수 ④셋방 ⑤전세방
 2.5. ①장밋빛 ②핑크빛 ③고깃집 ④피자집
 2.6. ①꼭짓점 ②소수점 ③대푯값 ④절댓값 ⑤최솟값 ⑥최댓값 ⑦근삿값

3. 활용

- 3.1. ①나는 ②거친 ③낮선 ④낱 ⑤낯췌
 3.2. ①맞는 ②얕는 ③얕은 ④알맞은 ⑤얕은 ⑥걸맞은
 3.3. ①됐으니까 ②돼라 ③되라고 ④되니까
 3.4. ①가라/가거라 ②가져가라/가져가거라 ③있어라 ④자라 ⑤마라
 3.5. ①파래졌다 ②퍼레졌다 ③빨개진다 ④빨게져서 ⑤그래

4. 된소리 표기

- 4.1. ①안쓰럽다 ②살짝 ③깍두기 ④업신여기다 ⑤눈곱 ⑥눈살
 4.2. ①갈게 ②갈걸 ③갈수록 ④갈까 ⑤어찌할꼬
 4.3. ①끗끗하다 ②쓱쓱하다 ③쓱쓸하다 ④유유상종

5. 박이/배기/빼기

- 5.1. ①두 살배기 ②차돌박이 ③장승박이 ④알배기
 5.2. ①진짜배기 ②이마빼기 ③육자배기 ④악착빼기 ⑤뚝배기 ⑥곶빼기

6. -이/히

- ①깨끗이 ②깊숙이 ③솔직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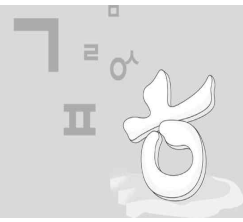
7. 이에요/이어요

- | | |
|----------------|--------------|
| ①학생이에요/학생이어요 | ②친구예요/친구여요 |
| ③김진석이에요/김진석이어요 | ④김진수예요/김진수여요 |
| ⑤영숙이에요/영숙이어요 | ⑥아니예요/아니어요 |

8.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예

- 8.1. ①먹던 ②가든지 ③뭐라던가
 8.2. ①그리고 나서 ②그리고는
 8.3. ①공부하므로 ②시행함으로(써)
 8.4. ①떼기로 ②뎌 ③떨다

띄어쓰기



1. 띄어쓰기의 필요성

‘띄어쓰기’는 왜 하는 것일까?

- (1) ㄱ. 한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ㄴ.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1ㄱ)과 띄어쓰기를 한 (1ㄴ)을 비교해 보자. 띄어쓰기를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에 비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이처럼 띄어쓰기는 의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간혹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띄어쓰기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 (2) ㄱ. 어제 산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ㄴ. 어제 산 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2ㄱ)과 (2ㄴ)은 비슷해 보이지만 띄어쓰기에 따라 시장에 내다 판 토끼의 종류가 달라진다. (2ㄱ)은 산에 사는 토끼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고, (2ㄴ)은 다른 사람에게 구입한 토끼나 살아 있는 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 (3) ㄱ. 큰집으로 이사를 갔다.
 ㄴ.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3)의 예 역시 비슷하다. 띄어쓰기를 안 한 ‘큰집’은 큰아버지 댁을 의미하지만, 띄어쓰기를 한 ‘큰 집’은 크기가 큰 집을 의미한다. 가령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큰어머니께서 우리를 반겨 주셨다.”와 같은 문장을 읽을 때 ‘(크기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큰 어머니가 왜 반겨 주실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오해는 ‘큰집’을 ‘큰 집’으

로 쓴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띄어쓰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띄어쓰기의 원리

2.1. 자립성과 의존성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 있고 항상 다른 말의 앞이나 뒤에 붙어 쓰이는 말이 있다. 아래의 말들을 두 개의 동아리로 나누어 보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4) 하늘, 자동차, 를, -는구나, 바다, 구름, -겠-, -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과 ‘를, -는구나, -겠-, -습니다’로 나누는 데 동의할 것이다.

(5) ㄱ.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
 ㄴ. 를, -는구나, -겠-, -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동아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앞의 것은 명사이고 뒤의 것은 명사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뜻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의 차이가 아니냐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늘’과 ‘를’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6) ㄱ. 무얼 보니?
 - 하늘.
 ㄴ. 어딜 가니?
 - 바다.

(6)에서처럼 ‘하늘, 바다’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를, -는구나, -겠-’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일이 없다. [를], [는구나]라고 일부러 읽지 않는 한 이들을 단독으로 소리 내서 쓰지는 않는다.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말들을 ‘자립적’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말들은 ‘의존적(비자립적)’이라고 한다. 의존적인 말들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언제나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다른 요소에 붙어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 (7) ㄱ. 학교를
 ㄴ. 먹-습니다
 ㄷ. 가-겠-다

(7ㄱ)의 ‘학교를’에서 ‘를’은 ‘학교’에 붙어 쓰이고 (7ㄴ)의 ‘-습니다’는 ‘먹-’에, (7ㄷ)의 ‘-겠-’은 ‘가-’와 ‘-다’에 각각 붙어 쓰인다.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이는 의존적인 말들은 다음과 같다.

- (8) ㄱ. 조사: 이/가(친구가), 을/를(친구를), 에게(친구에게), 도(친구도) 등
 ㄴ. 접사: 덧-(덧버선), 최-(최첨단), -질(도둑질), -님(선생님) 등
 ㄷ. 어간: 먹-(먹다), 하-(하다), 예쁘-(예쁘다), 좋-(좋다) 등
 ㄹ. 어미: -는다(먹는다), -습니다(먹습니다), -겠-(먹겠다),
 -었-(먹었다) 등

2.2. 단어의 판별 기준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에 명시되어 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한글 맞춤법” 제1장 제2항)

이 원칙은 대단히 명료해서 ‘단어’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띄어쓰기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띄어쓰기 문제는 명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단어란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을 가리키지만 ‘밤낮, 국밥, 돌아가다’ 등과 같이 두 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것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새로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의미이다. 즉 새로운 의미가 생겼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루의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노루 귀’는 띄어 쓰지만 ‘미나리아재빗과의 풀’을 의미하는 ‘노루귀’는 붙여 쓴다. ‘노루귀’에는 ‘노루’나 ‘귀’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의미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 (9) ㄱ. 노루√귀 - 노루의 귀
 ㄴ. 노루귀 - 미나리아재빗과의 풀

두 번째 기준은 단어의 긴밀성이다. 즉 두 말 사이의 관계가 긴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인 ‘가져가다’는 ‘가져’와 ‘가다’의 관계가 긴밀하여 다른 요소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지만 한 단어가 아닌 ‘받아 가다’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있다.

(10) ㄱ. 여기 있는 물건을 {가져갔다/*가져서 갔다}.

ㄴ. 모두들 선물을 {받아 갔다/받아서 갔다}.

이러한 사실은 ‘가져가다’와 ‘받아 가다’의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3. 띄어쓰기의 실제

3.1. 조사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립적인 명사와 달리 조사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것이 결합하는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다, 부터, 까지, 는커녕, 조차, 보다’ 등을 앞말과 띄어 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조사이므로 띄어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1) ㄱ. 이곳은 {국립국어원입니다/*국립국어원ㅏ입니다}.

ㄴ. {5시부터/*5시ㅏ부터} {7시까지/*7시ㅏ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ㄷ. {노래는커녕/*노래는 커녕/*노래 는커녕} {말하기조차/*말하기ㅏ조차} 어렵다.

ㄹ. 다른 {회사보다/*회사ㅏ보다} 늦게 끝나는 편입니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는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12) ㄱ. {학교에서처럼만/*학교에서ㅏ처럼만/*학교에서처럼ㅏ만} 행동하면 된다.

ㄴ. {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ㅏ만이라도/*집에서만ㅏ이라도} 편하게 쉬고 싶었다.

ㄷ. {언제인지부터는/*언제인지ㅏ부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화가 되지 않는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는 예들이다. ‘같이, 밖에, 하고’ 등은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와 기능에 따라 조사로 다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1) 같이

‘당신같이’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이때의 ‘같이’는 ‘처럼’으로 바뀌어 쓸 수 있다. 단 ‘친구와 같이’처럼 조사가 앞에 오는 경우 ‘같이’는 ‘함께’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참고로 ‘당신 같은’의 ‘같은’ 또한 조사가 아니다.

- (13) ㄱ.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은 없을 거야.
 ㄴ. 친구와 같이 오세요.
 ㄷ. 당신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2) 밖에

‘밖에’는 ‘밖’이라는 명사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다. 이때의 ‘밖’은 ‘안’에 대응되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 (14) ㄱ. 학교 밖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다.
 ㄴ. 이 밖에 다른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밖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밖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로 다룬다. 따라서 앞말에 붙여 쓴다.

- (15) ㄱ. 가진 것이 천 원밖에 없어.
 ㄴ. 이런 일은 철수밖에 못할걸.
 ㄷ. 아직은 “맘마”라는 말밖에 몰라.

3) 하고

‘하고’는 ‘와/과’로 바꿀 수 있는 ‘하고’와 인용문 뒤에 오는 ‘하고’로 나뉜다. ‘와/과’로 바꿀 수 있는 ‘하고’는 ‘와/과’와 마찬가지로 조사로 다루며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인용문 뒤에 오는 ‘하고’는 조사가 아닌 동사 ‘하다’의 어간에 어미 ‘-고’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인용문 뒤에 오는 ‘라고’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 (16) ㄱ. 친구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ㅓ하고 말씀하셨습니다.
 ㄷ.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 의존 명사

명사 중에는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가 있는데, 이를 의존 명사라고 한다. 의존 명사는 의미적인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단어로 다루어진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 (17) ㄱ. 할ㅓ수ㅓ없이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ㄴ. 일을 제시간에 끝내야 할ㅓ텐데.
 ㄷ. 부재ㅓ신 관리실에 맡겨 주세요.
 ㄹ. 회의ㅓ중이오니 조용히 해 주십시오.
 ㅁ. 기간ㅓ내에 제출할 것

‘수, 터, 시, 중, 내’ 등은 모두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이 외에도 ‘것, 나, 름, 나위, 노릇, 놈, 등, 등등, 따름, 때문, 무렵, 바, 뻔, 뻔, 적, 줄, 즈음, 지, 터, 겸, 김, 대로, 듯이, 만, 만큼, 바람, 채, 체, 통’ 등도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말과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는 예들이 있다. 의존 명사는 앞서 살펴본 조사와 형태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어미의 일부와 동일한 경우도 있고, 접미사와 비슷한 경우도 있다.

1) 대로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며, ‘종으실 대로, 아는 대로’처럼 용언의 관형형¹⁾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대로’는 명사 뒤에 올 때는 붙여 쓰고,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올 때는 띄어 쓴다.

- (18) ㄱ.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마음대로 해라. (조사)
 ㄴ. 당신 종으실ㅓ대로 하세요./아는ㅓ대로 말해라./지칠ㅓ대로 지친 몸
 (의존 명사)

1) 용언의 관형형이란 용언(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어미 ‘-ㄴ, -는, -ㄹ’ 등이 결합한 것으로, 이들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예를 들어 ‘먹은 음식, 먹는 음식, 먹을 음식’의 ‘먹은, 먹는, 먹을’을 용언의 관형형이라고 한다.

2) 뿐

‘뿐’ 역시 ‘당신뿐, 공부뿐’처럼 명사 뒤에 붙을 때는 조사이고 ‘말할 뿐, 먹을 뿐’처럼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올 때는 의존 명사이다. 간혹 ‘너뿐만 아니라’는 ‘너뿐만아니라’로 모두 붙여 쓰거나 ‘너^ㄴ뿐만^ㄴ아니라’로 잘못 띄어 쓰는 일이 있으나, ‘뿐’과 ‘만’이 모두 조사이므로 ‘너뿐만아니라’로 쓰는 것이 옳다.²⁾

- (19) ㄱ.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온 사람은 철수뿐이다. (조사)
 ㄴ. 조용히 들을^ㄴ 뿐 뭐라고 하지 않는다./열심히 노력할^ㄴ 뿐이다.
 (의존 명사)

3) 만

‘만’은 명사 뒤에서 ‘한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가 있다. “혼자만 여행을 떠났다.”에서 ‘혼자만’의 ‘만’은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의 ‘만’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돌아왔다.”에서 쓰인 ‘만’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데, 이때의 ‘만’은 의존 명사이다. ‘만’이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주로 ‘만에’, ‘만의’, ‘만이다’의 꼴로 쓰이며, 앞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 (20) ㄱ. 혼자만 여행을 떠났다./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밥만 먹는다. (조사)
 ㄴ.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십 년 만의 귀향/이게 얼마 만이야.
 (의존 명사)

다만 “정말 오랜만이군.”이라고 할 때는 ‘오랜^ㄴ만’으로 띄어 쓰지 않는데, 이것은 ‘오래간만’의 준말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오는 ‘만’이 있다. 이때의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21) 지낼^ㄴ 만하다./먹을^ㄴ 만은 한데 좀 비싸다. (의존 명사)

참고로 ‘만’과 ‘하다’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구성이 있는데, 이때의 ‘만’도 앞에 오는 말에 따라 띄어쓰기가 다르다.

- (22) ㄱ. 강아지가 좋아지만^ㄴ 하다.
 ㄴ. 음악이 {들을^ㄴ 만하다/들을만하다}.

2) 요즈음 ‘뿐만아니라’를 접속어로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과자를 먹었다. 뿐만 아니라 빵도 먹었다.”에서 ‘뿐만 아니라’는 ‘그뿐만 아니라’를 잘못 쓴 것이다.

(22ㄱ)의 ‘송아지만△하다’의 ‘만’과 ‘하다’는 조사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이다.³⁾ 이때의 ‘만’은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22ㄴ)의 ‘들을△만하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형 다음에 오는 ‘만’은 의존 명사이며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그러므로 ‘만’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일 수도 있다.⁴⁾

4) 데

‘데’는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어미인 ‘-ㄴ데’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다. ‘-ㄴ데’의 띄어쓰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에’를 비롯한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에’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띄어 쓰지 않는다.⁵⁾ (23ㄱ)의 ‘하는 데’ 뒤에는 ‘하는 데에’처럼 조사 ‘에’가 결합할 수 있으나 (23ㄴ)의 ‘가는 데’ 뒤에는 조사가 결합하면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렇지 못한 ‘-는데’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 (23) ㄱ. 이 일을 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ㄴ.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 (24) ㄱ. 이 일을 하는△데에..... (결합 가능)
 ㄴ. *학교에 가는△데에 (결합 불가능)

다음도 조사 ‘에’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데’를 앞말과 띄어 쓴다.

- (25) 얼굴이 예쁜△데(에)다가 마음씨도 곱다.

5) 바

‘바’도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어미인 ‘-ㄴ바’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다. 이 역시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 (26) ㄱ.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
 ㄴ. 그 일은 고려해 본△바(가) 없다.

3) ‘만하다’를 접미사로 보기도 하지만 ‘송아지만 하다’의 ‘만 하다’가 접미사가 아니라는 것은 ‘송아지 만은 하다’처럼 보조사가 끼어들어 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4) 의존 명사 ‘만, 양, 법’ 등 뒤에 ‘하다’나 ‘싶다’가 붙은 보조 용언 구성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다. ‘3.5. 보조 용언’ 참조.

5)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명사류의 특징 중 하나다.

(26ㄱ)의 ‘본바’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26ㄴ)은 ‘그 일은 고려해 본 바가 없다’와 같이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26ㄴ)의 ‘본 바’는 띄어 쓴다.

6) 지

‘지’ 역시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어미 ‘-는지, -는지’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다. ‘지’가 어미의 일부로 쓰였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다른 어미로 바꾸어 보는 것이다. ‘-는지’가 ‘-니까’와 띄어쓰기가 같고 ‘-는지’가 ‘-는가’와 띄어쓰기가 같다.

(27) ㄱ. 제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할까 모르겠다.

‘도착할까’를 ‘도착할 까’로 띄어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착할까’와 ‘도착할지’가 서로 같으므로 ‘도착할지’로 붙여 쓴다고 이해하는 것이 ‘-는지’가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인다는 문법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다음의 ‘도착했는지 모르겠다’의 띄어쓰기 또한 ‘도착했는가 모르겠다’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8) ㄱ. 제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했는가 모르겠다.

이와는 달리 다음의 예들은 다른 어미와 바꾸기 어렵다.

(29) ㄱ. 고향을 떠난지 십 년 만에 돌아왔다.

ㄴ. 친구를 만난지 한참 되었다.

(29ㄱ)의 ‘떠난지’는 ‘떠난가’로 바꿀 수 없으며 (29ㄴ)의 ‘만난지’ 역시 ‘만난가’로 바꿀 수 없다. 이때의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에 오는 용언의 관형형과 띄어 쓴다. ‘지’가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

7) 것(거)

‘르결’의 띄어쓰기는 ‘르 것을’로 풀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30) ㄱ. 나중에 후회할걸.

ㄴ. 후회할지 왜 그랬어?

(30ㄱ)의 ‘후회할걸’은 ‘-ㄹ걸’이 어미로 쓰이는 경우로 ‘할 것을’로 풀 수가 없다. 그렇지만 (30ㄴ)은 의존 명사 ‘것’이 들어 있는 ‘후회할 것을’로 풀 수 있으므로 ‘후회할V걸’로 띄어 쓴다.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는 ‘-ㄹ게’도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그러나 ‘-ㄹV게(것이)’로 바꿀 수 있으면 띄어 쓴다.

- (31) ㄱ. 나 먼저 할게.(←갈 것이야)
 ㄴ. 집에 가서 할V게(할V것이) 아주 많아.

8) 간

‘간’은 앞에 오는 명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간’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오면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 이때의 ‘간’은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거리’나 ‘사이, 관계’를 나타낼 때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32) ㄱ. 삼 분간 기다려 주십시오.
 ㄴ. 서울 부산V간 급행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ㄷ.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가든지V간에 좀 움직여라.

나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한미간, *한일간’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때의 ‘간’ 역시 ‘사이, 관계’를 나타내므로 ‘한미V간, 한일V간’으로 써야 한다. 다만 (33ㄴ)과 같이 한 단어로 굳어진 것은 붙여 쓴다.

- (33) ㄱ. 국가V간, 가족V간, 친구V간, 동료V간
 ㄴ. 부자간, 모자간, 부녀간, 모녀간, 형제간, 자매간.....
 다자간

[기타] 열거하는 말과 이어 주는 말

열거할 때에 쓰이는 ‘등’은 의존 명사이므로 ‘귤, 사과 등’과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그리고 두 말을 이어 줄 때 쓰이는 ‘겸’ 역시 ‘시인 겸 소설가’와 같이 띄어 쓴다.

- (34) ㄱ. 귤, 사과V들이 있다.
 ㄴ. 시인V겸V소설가

열거할 때 쓰이는 말에는 ‘등’ 이외에 ‘등등, 등속, 등지’가 있으며, 두 말을 이어 주는

말에는 ‘점’ 이외에 ‘내지, 대, 밋’ 등이 있다.

- (35) ㄱ. 교실에는 책상, 결상~~ㅅ~~들이 있다.
 ㄴ. 사진, 그림, 영화~~ㅅ~~등등 볼 것이 많다.
 ㄷ. 사과, 배, 복숭아, 감~~ㅅ~~등을 샀다.
 ㄹ. 충주, 청주, 대전~~ㅅ~~등지로 돌아다녔다.
- (36) ㄱ. 국장~~ㅅ~~결~~ㅅ~~과장
 ㄴ. 열~~ㅅ~~내지~~ㅅ~~스물
 ㄷ. 청군~~ㅅ~~대~~ㅅ~~백군, 삼~~ㅅ~~대~~ㅅ~~일
 ㄹ. 기간~~ㅅ~~밋~~ㅅ~~경비

3.3. 수 표현

1) 숫자

‘스물여섯’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스물여섯’으로 붙여 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스물여섯’이 올라 있지 않다. 이는 ‘스물여섯’이 합성어가 아니며 ‘스물~~ㅅ~~여섯’으로 띄어 쓴다는 말이다. 구성 요소인 ‘스물’과 ‘여섯’에서 ‘스물여섯’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물여섯’은 분명히 합성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스물여섯’으로 붙여 쓸까? ‘스물여섯’으로 붙여 쓰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찾을 수 있다.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이 규정은 ‘십이억~~ㅅ~~삼천사백오십육만~~ㅅ~~칠천팔백구십팔’과 같은 띄어쓰기에 적용되지만 ‘스물여섯’에도 적용된다.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것은 ‘만, 억, 조, 경’ 등을 단위로 띄어 쓴다는 뜻이지만, ‘만’보다 작은 수일 경우에는 언제나 붙여 쓴다는 뜻도 포함한다.

- (37) ㄱ. 스물여섯
 ㄴ. 십이억~~ㅅ~~삼천사백오십육만~~ㅅ~~칠천팔백구십팔

2) 숫자와 단위 명사

숫자 뒤에 쓰인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러나 ‘그 수를 조금 넘음’을 나타내는 ‘-여’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38) ㄱ. 금 서^ㅅ돈, 바둑 한^ㅅ판, 버선 한^ㅅ줄, 신 두^ㅅ켤레, 북어 한^ㅅ썰
 ㄴ. 십여만^ㅅ명, 십만여^ㅅ명, 십^ㅅ년여, 십여^ㅅ년, 삼십여^ㅅ년간,
 두^ㅅ시간여, 삼백오십여^ㅅ명

3.4. 관형사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이를 관형사라 한다. 관형사는 뒤에 오는 명사와 띄어 쓴다. 문제는 관형사와 접두사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관형사와 접두사는 뒤에 오는 명사가 한정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나뉜다. 예를 들어 관형사인 ‘전’은 ‘전^ㅅ국민, 전^ㅅ가족, 전^ㅅ식당’ 등과 같이 뒤에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접두사인 ‘범-’은 ‘범국민(적), 범세계(적)’는 가능하나 ‘*범학생(적), *범단체(적)’ 등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관형사는 ‘전’과 같이 뒤에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으나 접두사는 ‘범-’과 같이 뒤에 오는 말이 일부 명사로 한정된다. 관형사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쓰고 접두사는 뒤에 오는 말과 붙여 쓴다.

- (39) ㄱ. 전^ㅅ국민, 전^ㅅ세계, 전^ㅅ학교, 전^ㅅ학년, 전^ㅅ가족, 전^ㅅ식당
 ㄴ. 범국민적, 범세계적

그런데 관형사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말이 한 단어로 굳어지면 붙여 쓴다. (39ㄱ)에서 ‘전’은 관형사이지만 ‘전국, 전군, 전일’ 등은 한 단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붙여 쓴다. 아래의 관형사들은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 |
|--|---------------|
| (40) ㄱ. 각(各) ^ㅅ 가정, 각 ^ㅅ 개인, 각 ^ㅅ 학교, 각 ^ㅅ 부처, 각 ^ㅅ 지방 | [비교] 각처, 각계각층 |
| ㄴ. 고(故) ^ㅅ 홍길동 | [비교] 고인(故人) |
| ㄷ. 귀(貴) ^ㅅ 회사, 귀 ^ㅅ 학교, 귀 ^ㅅ 연구원 | [비교] 귀사(貴社) |
| ㄹ. 동(同) ^ㅅ 회사, 동 ^ㅅ 학급, 동 ^ㅅ 부서 | [비교] 동년 |
| ㅁ. 매(每) ^ㅅ 경기, 매 ^ㅅ 회계 연도 | [비교] 매년, 매회 |
| ㅂ. 별(別) ^ㅅ 사이, 별 ^ㅅ 부담 없이 | [비교] 별일 |

3.5. 보조 용언

다른 용언 뒤에서 앞에 오는 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고 싶다’의 ‘싶다’, ‘-지 않다’의 ‘않다’, ‘-지 말다’의 ‘말다’ 등은 보조 용언이다.

- (41) ㄱ. 하고 ∨ 싶은 얘기가 있다.
 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 않았다.
 ㄷ.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 ∨ 마세요.
 ㄹ. 물건이 좋기는 ∨ 한데 좀 비싸다.

이런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모든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은 아니다. 보조 용언 중에서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만 붙여 쓸 수 있다.

- (42) ㄱ. 말도 없이 {서 ∨ 있었다/서있었다}.
 ㄴ. 하늘을 보니 비가 {올 ∨ 듯싶다/올듯싶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도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일 때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존 명사와 ‘-하다’나 ‘-싶다’ 사이에 조사가 붙을 때도 붙여 쓰지 않는다.

- (43) ㄱ. {올어도 ∨ 보고/*올어도보고} 매달려도 보았으나 모두 헛일이었다.
 ㄴ. 너무 바쁘다 보니 약속을 {잊어먹어 ∨ 버렸다/*잊어먹어버렸다}.
 ㄷ. 비가 {올 ∨ 듯도 하다/*올듯도하다}.

참고로 ‘-어 지다’와 ‘-어 하다’는 보조 용언이기는 하지만, 용언의 종류를 바꾼다는 점에서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한다.

- (44) ㄱ.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만들어 ∨ 졌다}.
 ㄴ. 그는 아이를 {예뻐한다/*예뻐 ∨ 한다}.

간혹 어떤 말은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장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 버렸어.”라고 할 때 ‘찢어 버리다’의 띄어쓰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찢어 버리다’의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이다. ‘밥을 먹어 버렸다’, ‘국이 식어 버렸다’의 ‘버리다’와 같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 (45) 서류를 {찢어 ∨ 버렸다/찢어버렸다}.

그런데 겉모습은 같지만 ‘버리다’가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서류를 찢어 버렸다’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46) 서류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버리다’가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라면 ‘서류를 찢어V버렸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 가능하고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3.6. 전문 용어

전문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여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50항).

(47) ㄱ.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ㄴ. 금동V미륵보살V반가V사유상

(47ㄱ)과 (47ㄴ)을 비교해 보면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뜻을 짐작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영역에서는 붙여 쓰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문어에 속하는 말은 모두 단어별로 띄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8) 염화-나트륨, 강장-동물, 사과-나무, 두시-언해

화합물이나 동식물의 분류상의 명칭, 책명처럼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전문어라 하더라도 띄어 쓸 수 없다.

3.7. 고유 명사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49항).

(50) ㄱ. 서울V대학교V의과V대학V부속V병원(단어별 띄어쓰기)
 ㄴ. 서울대학교V의과대학V부속병원(단위별 띄어쓰기)

(50ㄱ)보다 (50ㄴ)의 띄어쓰기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서울대학교’가 한 단위이고, ‘의과대학’이 한 단위이고, ‘부속병원’이 한 단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관을 보여 주기 위해 ‘단위별로 띄어 쓴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⁶⁾

다만 기관명에 ‘직속, 산하, 부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속, 산하, 부설’은 앞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쓴다. 이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지 한 단위로 묶일 수 있는 말이 아

6) 이때의 ‘단위’는 직관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V현대V미술관’, ‘국립V현대미술관’으로 띄어 쓸 수 있지만 ‘국립현대V미술관’으로 띄어 쓸 가능성은 낮다.

니기 때문이다.

- (49) ㄱ. 대통령 ∨ 직속 ∨ 국가 ∨ 안전 ∨ 보장 ∨ 회의
 ㄴ. 대통령 ∨ 직속 ∨ 국가안전보장회의

3.8. 성과 이름, 호칭어

성과 이름, 성과 호, 성과 자는 붙여 쓴다. 다만 호나 자가 성명 앞에 놓일 때는 띄어 쓴다.

- (51) ㄱ. 김철수, 정송강, 이충무공
 ㄴ. 송강 정철, 충무공 이순신

그리고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은 띄어 쓴다.

- (52) ㄱ. 홍 씨, 홍길동 씨, 길동 씨(군, 웅, 양, 님)
 ㄴ. 홍 과장, 홍길동 과장(차장, 부장, 이사, 회장)

호칭어로 쓰이는 ‘씨’는 앞에 오는 성이나 이름과 띄어 쓴다. 그러나 (53ㄴ)처럼 성씨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

- (53) ㄱ. 그 일은 김 씨가 맡기로 했네.
 ㄴ. 우리나라에서 김씨가 제일 큰 성이다.

3.9. 단음절어의 연속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 이어지는 경우, 일일이 띄어 쓰면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읽기에도 불편하므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된다.

- (54) ㄱ. 한 잎 두 잎/한잎 두잎
 ㄴ. 이 집 저 집/이집 저집

그러므로 한 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 (55) ㄱ. 더 큰 이 새집/*더큰 이새집
 ㄴ. 좀 더 큰 집/*좀더 큰집

3.10. 외래어

외래어의 띄어쓰기는 원어의 띄어쓰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만 국어에서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라면 띄어 쓰지 않는다. 그리고 준말로 굳어져 쓰이는 말은 붙여 쓴다.

- (56) ㄱ. 덩크 슈트, 퍼스널 컴퓨터, 아이스 댄스, 로드 쇼, 백 스텝, 팝 아트, 그래픽 디자이너, 아트 페이퍼
 ㄴ. 앵커맨, 백미러, 백네트, 콜론, 콜머니, 콜택시, 카페리, 슈크림, 커피숍, 콘칩, 코너킥, 쿠데타, 아이스크림, 골인, 골킥, 홀인원, 홈인, 홈런, 핫케이크, 핫도그, 핫라인, 립크림, 팝송, 리어카, 티오프, 워밍업, 와이셔츠, 월드컵
 ㄷ. 에어컨, 리모콘, 오토바이, 아이큐, 오피스텔

외래어 인명 역시 원어의 띄어쓰기를 따른다. 우리나라의 인명과 달리 원어의 띄어쓰기대로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일본인 역시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그러나 중국인의 경우 성과 이름을 붙여 쓴다.

- (57) ㄱ. 헤르만 헤세, 마이클 잭슨
 ㄴ. 도요토미 히데요시
 ㄷ. 마오쩌둥/모택동

그리고 외래어 지명 뒤에 ‘산, 강, 호, 해’ 등이 올 때에는 앞에 오는 말과 띄어 쓰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외국 지명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는 띄어 쓰지 않는다.

- (58) ㄱ. 알프스 산, 양쯔 강, 미시간 호, 오희츠크 해
 ㄴ. 계족산, 양자강, 송화호, 지중해

[연습 문제]

※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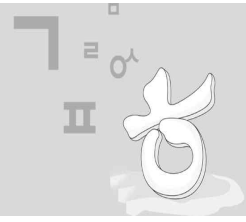
- [01] 이곳은 {국립국어원입니다/국립국어원∨입니다}.
- [02] {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만∨이라도} 좀 쉬세요.
- [03] {친구같이/친구∨같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 [04] 열심히 할 {수밖에/수∨밖에} 없어요.
- [05] {“할게.”하고/“할게.”∨하고} 하지 않는다.
- [06] 비가 더 와야 {할텐데/할∨텐데}.
- [07] 행사 {참여시/참여∨시} 준비할 물건
- [08] {맘대로/맘∨대로} 하세요.
- [09] {지칠대로/지칠∨대로} 지쳐서 말을 할 수가 없다.
- [10] 몸에 {좋을뿐만/좋을∨뿐만} 아니라 값도 싸다.
- [11] {사흘만/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 [12] {사흘만/사흘∨만}에 전화가 왔다.
- [13] 이곳 음식은 {먹을만하다/먹을∨만하다/먹을∨만∨하다}.
- [14] 다음은 {신청하는데/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 [15]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하는∨데} 성적은 별로다.
- [16] {검토한바/검토한∨바} 문제가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 [17] {조사한바/조사한∨바}를 상사에게 알렸다.
- [18] 열심히 {하는지/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 [19] 집을 {떠난지/떠난∨지} 세 시간 만에 회사에 도착했다.
- [20] {버릴걸/버릴∨걸} 왜 샀니?
- [21] 미안한데 먼저 {먹을게/먹을∨게}.
- [22] 공사 때문에 {이틀간/이틀∨간} 휴업합니다.
- [23] {한일간/한일∨간} 축구 경기
- [24] 서울, 부산, {인천등/인천∨등} 대도시
- [25] 행사 {장소및시간/장소및∨시간/장소∨및∨시간}
- [26] 일억삼천사백만원/일억∨삼천사백만∨원/일억∨삼천∨사백만∨원
- [27] {각지방/각∨지방}에서 올라온 지원자
- [28] {각처/각∨처}에서 올라온 지원자
- [29] {하고싶은대로/하고싶은∨대로/하고∨싶은∨대로} 하세요.
- [30] 우리 한번 {해보자/해∨보자}.
- [31] 종이배가 {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
- [32] 일이 많아 요새 좀 {힘들어한다/힘들어∨한다}.

- [33] 원각사지∨십층∨석탑/원각사지십층석탑
- [34] 한국∨대학교∨문과∨대학∨국어∨국문학과
한국대학교∨문과대학∨국어국문학과
한국대학교문과대학국어국문학과
- [35] 보건∨복지부∨산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산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산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산하한국보건산업진흥원
- [36] 최우/최∨우
- [37] 박선생님/박∨선생님
- [38] {김씨/김∨씨}, 이쪽으로 와 보세요.
- [39] {김씨/김∨씨} 성을 가진 사람
- [40] 미시시피강/미시시피∨강

♠ 정 답 ♠

- | | | |
|---|---------------------|-----------------|
| [01] 국립국어원입니다 | [02] 집에서만이라도 | [03] 친구같이 |
| [04] 수밖에 | [05] “할게.” ∨ 하고 | [06] 할 ∨ 텐데 |
| [07] 참여 ∨ 시 | [08] 맘대로 | [09] 지칠 ∨ 대로 |
| [10] 좋을 ∨ 뿐만 | [11] 사흘만 | [12] 사흘 ∨ 만 |
| [13] 먹을만하다/먹을 ∨ 만하다 | [14] 신청하는 ∨ 데 | [15] 하는데 |
| [16] 검토한바 | [17] 조사한 ∨ 바 | [18] 하는지 |
| [19] 떠난 ∨ 지 | [20] 버틸 ∨ 걸 | [21] 먹을게 |
| [22] 이틀간 | [23] 한일 ∨ 간 | [24] 인천 ∨ 등 |
| [25] 장소 ∨ 및 ∨ 시간 | [26] 일억 ∨ 삼천사백만 ∨ 원 | [27] 각 ∨ 지방 |
| [28] 각처 | [29] 하고 ∨ 싶은 ∨ 대로 | [30] 해보자/해 ∨ 보자 |
| [31] 떠나려가 ∨ 버렸다 | [32] 힘들어한다 | |
| [33] 원각사지 ∨ 십층 ∨ 석탑/원각사지십층석탑 | | |
| [34] 한국 ∨ 대학교 ∨ 문과 ∨ 대학 ∨ 국어 ∨ 국문학과
한국대학교 ∨ 문과대학 ∨ 국어국문학과 | | |
| [35] 보건 ∨ 복지부 ∨ 산하 ∨ 한국 ∨ 보건 ∨ 산업 ∨ 진흥원
보건복지부 ∨ 산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 [36] 최우 | [37] 박 ∨ 선생님 | [38] 김 ∨ 씨 |
| [39] 김씨 | [40] 미시시피 ∨ 강 | |

구별해야 할 말



발음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말들, 의미상 연관성이 있는 말들은 언어생활에서 자주 혼동을 일으킨다. 다음은 의미나 용법을 잘 구별해야 할 말들을 묶어서 제시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 제57장에 나오는 예들과 일부 한자어 중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할 말들을 살펴보겠다.

1. **가름** (따로따로 나누는 일. (예) 셋으로 가름.)
갈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예) 이것으로 치사를 갈음합니다.)
2. **목거리** (목이 붓고 아픈 병. (예) 목거리가 잘 낫지 않고 오래 가다.)
목걸이 (귀금속이나 보석 따위로 된, 목에 거는 장신구. (예) 금 목걸이)
3. **떼거리** (1. 떼[무리]의 속어. (예) 야간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다.
 2. 떼[생떼]의 속어. (예) 장난감을 사 달라고 떼거리를 쓰는 아이)
떼거리 (떼를 지어 다니는 거지. 천재지변 따위로 졸지에 험벗게 된 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전쟁으로 그 도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떼거리가 되었다.)
4. **거치다**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 (예) 대전을 거쳐 서울에 왔다./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에 입학하다.)
견히다 (여러 사람에게서 돈이나 물건 따위가 거두어지다. (예) 수재 의연금에 잘 견힌다.)
5. **견잡다**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헤아려 짐작하다. (예) 견잡을 수 없는 상태.)
겉잡다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예) 겉잡아서 닷새 걸릴 공사.)
6. **늘이다** (물체의 길이를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예) 엇가락을 늘이다. 고무줄을 늘이다.)

- 늘리다** (수나 분량을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 힘이나 기운, 세력 따위를 이전보다 큰 상태가 되게 하다./ 살림을 이전보다 더 넉넉하게 하다./ 시간이나 기간을 이전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예) {바짓단/ 수출량/ 학생 수/ 세력/ 실력 / 재산/ 살림/ 시험 시간}을/를 늘리다.)
7. **다리다**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 (예) 양복을 다리다.)
- 달이다**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 약제 따위에 물을 부어 우러나도록 끓이다. (예) 간장을 달이다./ 보약을 달이다.)
8. **닫히다** (‘닫다’의 피동사. (예) 창문이 바람에 저절로 닫히다.)
닫치다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를 꼭꼭 또는 세게 닫다. (예) 문을 쾅하고 힘껏 닫치다.)
 『 ‘닫히다’의 ‘-히-’는 ‘피동 접미사’, ‘닫치다’의 ‘-치-’는 ‘강세 접미사’이다.』
9. **부딪히다** (‘부딪다’의 피동사. (예) 자전거가 승용차에 부딪혔다.)
부딪치다 (‘부딪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예) 승용차와 승합차가 마주 부딪쳤다.)
 『 ‘부딪히다’의 ‘-히-’는 ‘피동 접미사’이고, ‘부딪치다’의 ‘-치-’는 ‘강세 접미사’이다.』
10. **빼치다** (성이 나서 토라지다. (예) 생일 선물을 하지 않았더니 아내가 빼쳤다.)
빼지다 (칼 따위로 물건을 얇고 비스듬하게 자르다. (예) 국밥에 넣을 무를 빼졌다.)
11. **저리다**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 /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쭈시듯이 아프다. / 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 (예) 오래 쪼그리고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몹시 저리다.)
절이다 (‘절다’의 사동사. 푸성귀나 생선 따위에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가 배어들게 하다. (예) 배추를 절이다.)
12. **조리다** (어육이나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간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국물을 바짝 끓이다. (예) 멸치를 간장에 조리다. 소고기 장조림)
졸이다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 (예) 마음을 졸이다.)
13. **반드시** (틀림없이 꼭. (예)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반듯이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 (예) 환자의 몸을 반듯이 뉘어라./ 비녀를 반듯이 찌르고 새 옷으로 몸단장을 하다.)

14. **이따가** (조금 지난 뒤에. (예)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있-+-다가). (예) 대기실에 있다가 친구가 오면 함께 출발하자.)
 ☞ ‘이따가’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고, 위 예의 ‘있다가’는 동사 ‘있-’에 어미 ‘-다가’가 결합된 형태이다.
15. **-노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하노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느라고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친구 부친상에 문상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16. **-(으)러**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일하러 가다.)
-(으)려 (어떤 행동을 할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대학에 진학하러 한다.)
 ☞ ‘-(으)러’는 ‘가다’나 ‘오다’와 같은 말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의 ‘직접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이고, ‘-(으)려’는 ‘하다’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의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다.
17. **-(으)로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그녀는 애인으로서는 매력적이지만, 신붓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으)로써 (재료나 원료, 수단이나 도구가 됨을 나타내는 격 조사./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 (예) 닭으로써 꾀를 대신했다./ 상냥한 말 한 마디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 엄격한 매로써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다./ 집을 떠난 지 올해로써 30년이 된다.)
18. **-데**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예) 김 교수는 말을 좀 어눌하게 하데./ 지리산은 과연 경치가 좋데.)
-대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다고 해’가 줄어든 말. (예) 왜 이렇게 일이 많대?/신랑이 어쩔 이렇게 잘생겼대?/ 숙희가 이번 달에 시집을 간대.)
19. **-던**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예) 이것은 원시인이 사용하던 돌도끼다./ 딸 때는 푸르던 토마토도 하루 이틀 후면 붉게 된다.)
-든 (둘 이상의 사물이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든지’의 준말. (예) 싫든 좋든 이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어디에

살든 고향을 잊지는 마라.)

20. **결재** (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 직원이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예) 사흘 전 기안한 전자 문서의 결재를 오늘에야 받았다.)

결제 (決濟.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음. (예) 병원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21. **관여** (關與.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함. (예) 시민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일이 많아졌다.)

간여 (干與. 관계하여 참견함. (예) 그 집안의 혼사는 내가 간여할 바가 아니다.)

22. **보상** (報償. (1)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2)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3) 『심리』 행위를 촉진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는 물질이나 칭찬. (예) 칠순의 어머니에게는 아들의 성공이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었다.)

보상 (補償. (1)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2) 『법률』 주로 국가나 공공 단체,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에 그 손실을 갚아주기 위해 금전, 물건 등을 제공하는 것. (예)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개인별로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토지 보상금.)

배상 (賠償. 『법률』 주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 물건 등을 지불하는 것. (예)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빌었다.)

23. **임대** (賃貸.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 줌. (예) 이 건물 주인은 상가를 임대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임차 (賃借.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 (예) 아파트 안의 상가를 임차해서 세탁소를 열었다.)

24. **자문** (諮問.¹⁾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 (예) 통일 정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일자문위원회를 둔다.)

1) 자문(諮問): 諮(물을 자), 問(물을 문). ‘자문’은 과거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경우’에 썼지만 현대에는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묻는 경우’에 씀. 비전문가가 일정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 ‘자문한다’고 하고, 이때 그 자문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주는 기관을 ‘자문 기관’, 그런 일을 하는 개인을 ‘자문위원’(대개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이라 함.

고문 (顧問.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 또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 주로 국가, 공공 단체 등에 대하여 정책적 사항, 전문적 사항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조언·권고를 함. (예) 그는 우리 회사의 고문 변호사다./ 통일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일고문회의를 둔다.)

[참고] 한글 맞춤법 제57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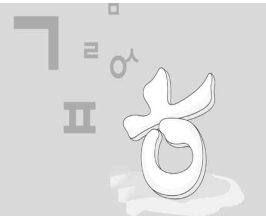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	둘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거름	풀을 썬 거름.
걸음	빠른 걸음.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견히다	외상값이 잘 견히다.
견잡다	견잡을 수 없는 상태.
겉잡다	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
그러므로(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써)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한다.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음(놀이)	즐거운 놀음.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단히다	문이 저절로 단혔다.
단치다	문을 힘껏 단쳤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

목걸이	금 목걸이, 은 목걸이.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책받침을 받친다.
받히다	쇠뿔에 받혔다.
받치다	술을 체에 받친다.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반듯이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부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편지를 부친다. 논발을 부친다. 빈대떡을 부친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붙이다	우표를 붙인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홍정을 붙인다. 불을 붙인다. 감시원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취미를 붙인다. 별명을 붙인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힌다.
아름	세 아름 되는 둘레.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얹	얹이 힘이다.
안치다	밥을 안친다.
앉히다	윗자리에 앉힌다.
어름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음	얼음이 얼었다.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리다./*저린다 (형용사)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동사)
조리다	생선을 조린다. 통조림, 병조림.
줄이다	마음을 줄인다.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 느니보다(어미)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 는 이보다(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 (으)리만큼(어미)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
- (으)ㄴ 이만큼(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 (으)러(목적)	공부하러 간다.
- (으)려(의도)	서울 가려 한다.
- (으)로서(자격)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 (으)로써(수단)답으로써	평을 대신했다.
- (으)므로(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 ㅁ, - 음)으로(써)(조사)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표준어 규정



1.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한 언어 안에서 특정 지역의 말이 다른 지역의 말과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한다. 방언과 방언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언 상호 간에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는 영토는 좁지만 많은 방언들이 발달해 있다.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비교적 널리 알려진 ‘감수가(가고 있습니까?)’도 타지역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고, ‘바룻(해산물), 돛꽁이(회오리바람), 황고지(무지개), 아지방(서방님)’ 등도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표준어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국가가 표준어를 제정하는 까닭은 대립되는 말을 하나로 정하여 국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표준어가 국가 공통어이므로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 시대 한 나라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발음, 어형, 의미 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혼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말을 방언, 위상어, 특수어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말을 내버려 둔다면 한 가지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방언은 방언대로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훌륭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위상어나 특수어도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어떤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동료 간에 우정을 싹트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떠나서 국민의 언어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공통된 언어가 있어야만 한다. 즉 한 나라 한 민족의 말은 일정한 원칙 밑에서 일관성 있게 발음하고 적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준을 ‘표준어 규정’이라 하고,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하고 있다. 이 표준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어이며, 국민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공용어(公用語)이다.

2. 표준어 규정의 제정 과정

현행 표준어 규정은 지난 1988년 1월 19일 정부가 고시한 후,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표준어를 인정한 것은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1912)에서부터이다. 여기에 “경성어(京城語)를 표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처음 나온다. 이어서 일제 강점기 때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제정한 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을 발표한 것이 실질적인 표준어가 되었다. 사정한 표준말 단어는 모두 9,547개(표준어 6,231개, 약어(준말) 134개, 비표준어 3,082개, 한자어 100개)이다.

그런데 이 ‘표준말 모음’에는 사정한 단어만 수록되어 있을 뿐 사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전체적인 표준말 사정의 조건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 제2항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래도 당시 상황이 일제 암흑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 차원에서 ‘표준말 모음’이 마련되었지만, 그 목적과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비록 이 ‘표준말 모음’은 그 자체로도 큰 중요성을 지니지만 조선어학회의 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작업이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조선어학회의 ‘큰 사전’은 광복 뒤에 6권으로 간행되어 오늘날까지 표준어의 준거(準據)가 되어 왔다.

이 ‘표준말 모음’이 광복 이후 50년 동안 국민 언어생활의 표준이 되어 계속 사용되는 동안 당시 문교부는 1970년 2월에 국어심의회의 건의에 따라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 모음’의 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학술원 산하의 어문 연구 위원회, 국어 연구소를 차례로 만들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 모음’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무려 18년 만에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명칭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이 ‘표준어 규정’은 ‘한글 맞춤법’과는 달리 개정이라기보다는 제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새로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크게 나누어 제1부의 ‘표준어 사정 원칙(제3장 제26항)’과 제2부의 ‘표준 발음법(제7장 제30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에는 대표적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였지만, 여기에 나타난 사례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나타나지 않는 말 가운데서 어느 것이 표준어인지 판단할 수 없는 말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1990년 9월 14일 문화부는 ‘표준어 규정’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 약 1,400여 개를 골라 사정한 후, 이를 ‘표준어 모음’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하였다(문화부 공고 제36호).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언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듯이 언제나

새로운 말이 생겨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은 사멸하게 된다. 따라서 표준어는 계속해서 사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중요한 어문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까닭으로 최근(2011. 8. 22.)에도 국립국어원에서는 총 39개 항목의 새 표준어를 추가로 확정 한 바 있다.¹⁾

3. 표준어 사정의 대원칙

표준어 사정의 대원칙은 ‘표준어 규정’의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중 ‘제1장 총칙’의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1항은 아래와 같다.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시 조선어학회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론 제2항에서 정한 “표준말은 대대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것은 비표준어와 대비하여 ‘표준말-비표준말’이 말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중류 사회’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다. ‘현재’를 ‘현대’로 한 것은 ‘현재’가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현재, 즉 영원한 현재로서 역사 속에서 한 시대의 표준말을 규정짓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서울말’에 대해서는 어떤 이는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말은 넓은 의미의 ‘서울말’을 가리키므로 그대로 인정 한 것이다.

1) 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 표준어를 새로 인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어서 어문 규정에서 정한 원칙, 다른 사례와의 관계, 실제 사용 양상 등을 시간을 두고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새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2010년 2월 국어심의회(위원장 남기십)에 상정하였고,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어문규범분과 전문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각의 항목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 표준어로 선정된 39항목이 2011년 8월 22일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4. 표준어 익히기

4.1. 발음 변화에 따라 선정된 표준어

4.1.1. 자음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표준어 표시)

나팔꽃/*나발꽃, 칸/*간, 털어먹다/*떨어먹다

발음의 변화가 워낙 커서 도저히 옛 형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나발꽃’에서 바뀐 형태인 ‘나팔꽃’이 널리 쓰이므로 ‘나발꽃’을 버리고 ‘나팔꽃’을 표준어로 정하였다.²⁾ ‘칸’은 한자어 ‘間’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칸’이라고 발음하므로 ‘간’을 버리고 ‘칸’을 표준어로 정하였다.³⁾ ‘재물을 다 없애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털어먹다’는 ‘떨어먹다’에서 바뀐 형태이지만, 이것이 일반화되어 쓰이므로, ‘떨어먹다’를 버리고 ‘털어먹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⁴⁾ ♣ 꼬나풀, 녁(동~, 들~, 새벽~, 동틀 ~), 부엌, 살쾅이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을갈이/*가을카리, 분침/*푼침

제3항과 같은 취지로 개정된 것들이나 발음 변화의 방향이 반대인 것들이다. 옛 형태인 ‘가을카리’보다 새로운 형태인 ‘가을갈이’가 널리 쓰이므로, ‘가을카리’를 버리고 ‘가을갈이’를 표준어로 정하였다. 또한 ‘分針’에서 비롯된 형태인 ‘푼침’이 ‘분침’의 의미로 쓰이고는 있으나, ‘분침’이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어원도 분명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푼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침’만을 표준어로 정하였다.

제5항 어원에서 떨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강남콩/*강남콩, 사글세/*삭월세

어원(語源)이 뚜렷한데도 언중(言衆)들의 어원 의식이 약해져서 어원으로부터 떨어진 형태가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러한 형태를 가진 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강남콩’

2) 다만, 고유의 악기인 ‘나발’과 ‘나팔’은 각각 독립적으로 쓰인다.

3) 그러나 ‘초가삼간, 뒷간’의 경우에는 ‘간’을 인정한다.

4) 그러나 ‘먼지떨이, 재떨이’에는 ‘떨다’의 의미가 남아 있으므로 바꾸지 않았다.

은 ‘江南’에서 온 것이나 이미 어원을 인식하지 않고 쓰이고 있는 언어 현실을 인정하여 현실음대로 ‘강낭콩’을 표준어로 정하였고, ‘삭월세’는 ‘朔月貰’의 단순한 한자 취음(漢字取音)으로 현실음인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았다.⁵⁾ 그렇지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를 표준어로 삼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갈비(갈비구이, 갈비찜)’와 ‘가리(가리구이, 가리찜)’, ‘적이’와 ‘저으기’의 경우, ‘갈비’와 ‘적이’가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깝고 여전히 쓰이고 있으므로 ‘가리’, ‘저으기’를 버리고 이들만을 표준어로 삼은 경우이다. ♣ 굴젓, 밀뜨리다, 휴지

제6항 다음 단어는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돌/*뒹, 둘째/*두째, 셋째/*세째, 빌리다/*빌다

의미를 구별하여 쓸 경우에 오히려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과거에는 ‘돌’은 생일, ‘뒹’은 주기의 의미로 구분해 썼던 것을 ‘돌’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두째, 세째’는 ‘첫째’와 함께 차례를 가리킬 때, ‘둘째, 셋째’는 ‘하나째’와 함께 ‘몇 개째’의 뜻으로 수량을 나타낼 때 쓰이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빌다’는 ‘빌어 오다(借)’로, ‘빌리다’는 ‘빌려 주다(貸)’로 구분하여 쓰이던 것을 ‘빌리다’로 통합한 것이다.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두째’(열두째, 스물두째 등)으로 한다(단, 열두 개째의 뜻은 ‘열둘째’, 스물두 개째의 뜻은 ‘스물둘째’임.). 그리고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다, 잘못을 용서하여 달라고 호소하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다’의 경우나 ‘구걸하다’의 뜻으로는 그대로 ‘빌다’를 인정한다.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수평/*숫평, 수놈/*숫놈, 수소/*숫소

다만 1. 다음 단어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수강아지/*숫강아지, 수평아리/*숫병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숫양/*수양, 숫염소/*수염소, 숫쥐/*수쥐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였다. 역사적으로 ‘암수’의 ‘수’는 명사 ‘수컷’이었다. 오늘날 ‘수캐, 수탉’ 등에 ‘숫’의 자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수컷’의 명사로 쓰이는 일은 ‘암수’라는 복합어 정도 이외에는 거의 없어지고 접두사로만 쓰이게 되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에서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 것이다. 따라서 ‘수평, 수놈, 수소’가 표준어로 된 것이다. 그렇지만 ‘수강아지, 수평아리’ 등은 접두사 ‘수-’ 다

5) 다만, ‘월세’는 여전히 표준어이다.

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였다. 이는 다음 음절 첫소리와 ‘ㅎ’이 결합하여 거센소리를 이룬 형태가 이미 굳어진 채 널리 쓰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숫양, 숫염소, 숫쥐’ 등의 단어에 한해서는 접두사를 ‘숫-’으로 하였다. 그 까닭은 발음상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수-: 수나사, 수은행나무, 수고양이, 수기린, 수다람쥐, 수벌, 수범, 수여우

♣ 거센소리 인정: 수캐, 수컷, 수탉, 수탕나귀, 수틀찌귀, 수태지

4.1.2. 모음

제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깡충깡충/*깡충깡충, -둥이/*-둥이, 오뚝이/*오뚜기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부조(扶助)/*부주, 사돈(查頓)/*사둔, 삼촌(三寸)/*삼춘

국어는 모음조화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이다. 그러나 모음조화 규칙은 후세에 오면서 많이 무너졌고, 현재에도 더 약해지고 있는 편이다. 종래의 ‘깡충깡충’이 언어 현실에 따라 ‘깡충깡충’으로 바뀌었고, 큰말은 ‘깡충깡충’이다.⁶⁾ ‘-둥이’도 음성 모음화를 인정하여 ‘-둥이’로 하였다. ‘오뚝이’도 명사나 부사에서나 모두 ‘오뚝이’를 표준어로 정하였는데, 이는 ‘오뚝하다’라는 현실 발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의 경우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다만, ‘부조, 사돈, 삼촌’ 등은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어여서, 음성 모음 형태인 ‘부주, 사둔, 삼춘’을 버리고 양성 모음 형태인 이들을 그대로 표준어로 삼았다.

♣ 막둥이, 쌍둥이, 검둥이, 바람둥이, 흰둥이

♣ 발가숭이, 보통이, 뺨정다리, 주추

제9항 ‘ㄹ’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는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내기/*-나기, 냄비/*남비

[붙임 1] 다음 단어는 ‘ㄹ’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6) 그렇지만 형용사 ‘깡충하다’는 비표준어이고, ‘깡충하다’(1. 키가 작은 데 비하여 다리가 좀 길다. 2. 치마나 바지 따위의 옷이 좀 짧다.)가 표준어이다(표준어 모음).

아지랑이/*아지랭이

[붙임 2] 기술자에게는 ‘- 장이’, 기타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장이/*미쟁이, 멧쟁이/*멧장이

‘ㅣ’ 역행 동화는 전국적으로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동화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손잡이, 먹이다’까지 ‘손잡이, 맥이다’로 바꾼다면 매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ㅣ’ 역행 동화 현상을 인정하는 표준어의 개정은 극소화하였다. ‘-나기’는 서울에서 났다는 뜻의 ‘서울나기’를 그대로 쓰임직하지만, ‘시골나기, 신출나기, 꽃나기’는 어색하므로 일률적으로 ‘-내기’로 통일하였다. ‘남비’는 일본어의 ‘나베(鍋, なべ)’에서 온 말이라 하여 원형을 의식하여 처리했던 것이나, 제5항에서 ‘강남콩’을 ‘강낭콩’으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냄비’로 한 것이다. [붙임 1]의 ‘아지랑이’는 그동안 ‘아지랭이’가 표준어로 행세해 왔으나, 현실 언어가 ‘아지랑이’이므로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붙임 2]의 ‘-장이’는 논란이 많았던 항목으로서 각각 상황에 따라 가려 쓰게 되었는데, 곧 기술자에게는 ‘ㅣ’ 역행 동화가 적용되지 않은 형태인 ‘-장이’가 붙은 것을, 그 외에는 ‘ㅣ’ 역행 동화가 적용된 형태인 ‘-쟁이’가 붙은 것을 표준어로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건축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 회, 시멘트 따위를 바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는 ‘미장이’가 표준어이다.

♣ 동댕이치다, 아기, 아비, 지팡이

♣ 유기장이

♣ 무식쟁이, 개구쟁이, 욕심쟁이, 소금쟁이, 담쟁이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루나무/*미류나무, 으레/*으레, 괴팍하다/*괴팍하다

현실적으로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로 굳어져서 쓰이는 것은,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루나무’는 어원적으로 ‘미류-(美柳-)’인데, 이제는 ‘미류-’라는 발음은 듣지 못하게 되었다. ‘으레’ 역시 원래 ‘의례(依例)’에서 ‘으레’가 되었던 것인데, ‘례’의 발음이 ‘레’로 바뀌었다. ‘괴팍하다’도 그 발음이 분명히 ‘괴팍하다’로 바뀌었다. 따라서 ‘미루나무, 으레, 괴팍하다’를 버리고 ‘미루나무, 으레, 괴팍하다’를 표준어로 정하였다.

♣ -구먼, 미륵, 여느, 허우적허우적, 허우대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구려/*- 구료, 각쟁이/*각정어, 나무라다/*나무래다
바라다/*바래다, 상추/*상치, 튀기/*트기, 주책/*주착

표준어 규정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한다. 그래서 모음의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구려’와 ‘- 구료’는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는 듯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므로 ‘- 구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각정어’는 ‘ㅣ’ 역행 동화의 일종이나 ‘각쟁이’가 아니라 ‘각쟁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나무래다, 바래다’는 방언으로 해석하여 ‘나무라다, 바라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근래에 ‘바라다’에서 파생된 명사 ‘바람’을 ‘바람’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동사가 ‘바라다’이므로 파생된 명사가 ‘바람’이 될 수 없다. ‘상치’는 치찰음 다음에서의 ‘ㅣ’ 모음화로 보고 ‘상추’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며, ‘튀기→트기’는 모음의 단순화 현상인데 아직 원형이 쓰이고 있다고 보아 ‘튀기’를 표준어로 삼았다. ‘주착(主着)’은 현실음을 인정하여 한자어 어원을 버리고 변한 형태인 ‘주책’을 표준어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들은 모두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 미수(미숫가루), 시러베아들, 지루하다, 허드레, 호루라기

제12항 ‘웃 -’ 및 ‘윗 -’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 -’으로 통일한다.

윗눈썹/*웃눈썹, 윗니/*웃니, 윗도리/*웃도리, 윗목/*웃목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위작/*윗작, 위쪽/*윗쪽, 위층/*윗층, 위턱/*윗턱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 -’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웃돈/*윗돈, 웃어른/*윗어른

표준어 규정에서는 극심하게 혼란을 일으켜 온 ‘웃’과 ‘윗’을 한쪽으로 통일하여,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하였다. ‘다만1’의 경우,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않기로 한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다만 2’에서처럼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 ♣ 윗배, 윗입술, 윗자리/위체, 위치마, 위팔

제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구절/*귀절, 대구/*대귀, 시구/*시귀

다만, 다음의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글/*구글, 글귀/*글구

그동안 ‘句’는 사람에 따라 ‘구’로도 읽히고 ‘귀’로도 읽혀 혼동이 심하였다. 그래서 한자 ‘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구절, 대구, 시구’ 등이 표준어이다. 다만 ‘句’의 훈과 음은 ‘글귀 구’이므로, ‘귀글, 글귀’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가 표준어이다. ♣ 구점(句點), 결구(結句), 경구(警句), 문구(文句), 성구(成句), 어구(語句), 인용구(引用句), 절구(絶句)

4.1.3. 준말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면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파리/*또아리, 무/*무우, 생쥐/*새앙쥐

제15항 본말이 널리 쓰이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이개/*귀개, 부스럼/*부럼, 낚새/*깎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머무르다/머물다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고(제14항),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만을 표준어로 삼으며(제15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제16항). ‘파리, 무, 생쥐’의 본말은 ‘또아리, 무우, 새앙쥐’인데 본말이 잘 쓰이지 않고 준말이 널리 쓰여서 준말인 ‘파리, 무, 생쥐’가 표준어가 된 것이다. ‘귀이개, 부스럼, 낚새’의 준말은 ‘귀개, 부럼, 깎’인데 준말이 쓰이고 있기는 하나 본말이 더 널리 쓰여서 본말인 ‘귀이개, 부스럼, 낚새’가 표준어가 된 것이다. 준말들이 얼마간이라도 쓰인다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쓰임이 위낙 적을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형태도 아니어서 본말을 표준어로 한 것이다. ‘거짓부리, 노을, 머무르다’의 준말은 ‘거짓불, 놀, 머물다’이다. 이들은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어 준말과 본말 다 표준어가 된 것이다. ♣ 막대기/막대, 망태기/망태, 서두르다/서둘다, 서투르다/서툴다, 시누이/시뉘/시누, 오누이/오뉘/오누, 외우다/외다, 이기죽거리다/이죽거리다, 찌꺼기/찌끼

4.1.4. 단수 표준어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너[四]/*네, -(으)려고/*(으)르려고, 천장/*천정, -습니다/*-읍니다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너/넉(四)’은 예로부터 많이 쓰던 말이어서 표준어로 인정하였고, ‘-으려고’는 요즘 ‘먹으려고’처럼 ‘-으려고’를 많이 쓰지만 옳지 않다. ‘천정’과 ‘천장(天障)’ 중 더 널리 쓰이는 ‘천장’을 표준어로 하였다. ‘-습니다’는 종래 ‘-습니다, -읍니다’ 두 가지로 적고 ‘-습니다’가 더 각듯한 표현이라고 해 왔으나, 이 조항에서는 그러한 의미 차이가 확인하지 않고, 일반 구어(口語)에서 ‘-습니다’가 훨씬 널리 쓰인다고 판단하여 ‘-습니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귀고리(*귀엣고리)⁷⁾, 귀뿔(*귀툼), 꼭두각시(*꼭둑각시), 다다르다(*다닫다), 땀싸리(*대싸리), 멸치(*머루지/*메리치), 봉숭아(*봉숭화), 아궁이(*아궁지), 어중간(*어지중간), 잠투정(*잠투세/*잠주정)

4.1.5. 복수 표준어

제18항 다음 단어는 앞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뒷부분도 허용한다.

쇠-/소-, 꺾다/고이다, 네/예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꺼림하다/깨름하다, 나부랭이/너부랭이

의미의 차이가 없이 두 형태가 모두 널리 쓰이는 경우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이처럼 복수 표준어를 허용한 것은 국어의 폭을 넓히려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소+ㅣ(의)’인 ‘쇠-’만을 표준어로 인정하였으나 ‘소’도 허용하여 둘 다 표준어이다. ‘꺾다’와 ‘고이다’는 축약된 형태와 그 이전의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예이다. ‘네’와 ‘예’는 두 형태가 널리 쓰여 둘 다 표준어가 된 것이다. 또한, 표준어 규정에서는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어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별개의 단어라고 할 수 있으나, 워낙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이면서 그 어감의 차이가 미미한 것이어서 복수 표준

7) ‘귀엣고리’는 비표준어이지만, ‘귀걸이’는 표준어이다. 따라서 ‘귀고리’와 ‘귀걸이’는 사실상 복수 표준어라고 할 수 있다.

어로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꺼림하다’와 ‘깨름하다’, ‘나부랭이’와 ‘너부렁이’ 모두 표준어이다. ‘나부랭이/너부렁이’에서 ‘너부렁이’를 ‘나부랭이’에 견주어 ‘너부렁이’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언어 현실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피다/꼬이다, 쪼다/쏘이다, 죄다/조이다, 쪼다/쪼이다, 거슴츠레하다/게슴츠레하다, 고까/꼬까, 고린내/코린내, 구린내/쿠린내

4.2.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라 선정된 표준어

4.2.1. 고어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설거지하다/*설것다, 애달프다/*애답다, 오동나무/*머귀나무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설거지하다, 애달프다, 오동나무’가 표준어이다. ‘설것다’를 버린 것은 이미 고어가 되어 쓰이지 않아 ‘설것어라, 설것으니, 설것더니’와 같은 활용형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애답다’는 노래 등에서 일부 ‘애답다 어이하리’ 식으로 쓰이고 있으나 고어의 잔재일 뿐 이 용어 역시 ‘애답으니, 애답아서, 애답은’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고어로 처리하고 ‘애달파서, 애달픈’ 등의 활용형을 가진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머귀나무’는 ‘오동나무’의 뜻으로는 쓸 수 없고, ‘운향과에 딸린 갈잎 큰키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 낭떠러지(*낭), 자두(*오얏)

4.2.2. 한자어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까막눈/*맹눈, 박달나무/*배달나무

제22항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개다리소반/*개다리밥상, 총각무/*알타리무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고(제21항), 반대로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제22항). ‘까막눈/*맹눈, 박달나무/*배달나무’의 경우, 한자어 계열의 단어인 ‘맹눈, 박달나무’는 용도를 잃게 된 반면,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 계열의 단어인 ‘까

막눈, 박달나무’는 널리 쓰이고 있어, ‘까막눈, 박달나무’를 표준어가 되었다. ‘개다리소반 / *개다리밥상, 총각무 / *알타리무’의 경우, 고유어 계열의 단어인 ‘개다리밥상, 알타리무’가 생명력을 잃고 이에 대응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인 ‘개다리소반, 총각무’가 널리 쓰여, ‘개다리소반, 총각무’가 표준어가 되었다. ♣ 밥소라(*식소라), 외지다(*벽지다), 잔돈(*잔전), 흰말(*백말/*부루말)/검상(*맞상), 방고래(*구들고래), 양파(*동근파), 칫솔(*잇솔)

4.2.3. 방언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멍게/우렁챙이, 물방개/선두리, 애순/어린순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더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빈대떡/*빈자떡, 코주부/*코보

표준어 규정에서는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3항) 반면,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제24항) ‘멍게/우렁챙이’의 경우, 원래 ‘우렁챙이’가 표준어였으나, 지금은 방언인 ‘멍게’가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이를 표준어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때 애초의 표준어인 ‘우렁챙이’도 학술 용어 등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어로 남겨 두었다. ‘물방개/선두리, 애순/어린순’도 이러한 까닭으로 복수 표준어가 된 것이다. 표준어였던 ‘빈자떡’은 방언인 ‘빈대떡’에 완전히 밀려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방언이던 ‘빈대떡’만 표준어로 남긴 것이다. ‘코주부’는 만화 주인공의 이름에서 세력을 얻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코보’를 밀어내고 표준어가 되었다. ♣ 귀밑머리(*귓머리), 까뭇개다(*까무느다), 막상(*마기), 생인손(*생안손), 역겹다(*역스럽다)

4.2.4. 단수 표준어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고치다/*낫우다, 붉으락푸르락/*푸르락붉으락, 안전부절못하다/*안전부절하다, 주책없다/*주책이다

‘낮우다’는 일부 방언에서만 쓰이고 서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아 ‘고치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푸르락붉으락’은 두 개가 다 인정될 법도 하나 ‘오락가락’이나 ‘들낙날락’이 ‘가락오락’이나 ‘날락들락’이 되지 못하듯이, 이 종류의 합성어에는 일정한 어순이 있는 까닭에 널리 쓰이는 ‘붉으락푸르락’만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안절부절하다, 주책이다’는 부정사를 빼고 써도 부정사가 있는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특이한 말이다. 그렇지만 부정사를 붙인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광주리(*광우리), 까다롭다(*까탈스럽다), 담배꽁초(*담배꽁치, *담배꽁추) 등때기(*등때리), 반나절(*나절가웃), 부끄러워하다(*부끄리다), 부스러기(*부스러지), 셋별(*새벽별), 손목시계(*팔목시계, *팔뚝시계), 쌍동밤(*쪽밤), 쓴살같이(*쓴살로), 아주(*영판), 안절부절못하다(*안절부절하다), 주책없다(*주책이다)

4.2.5. 복수 표준어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뭇/가물, 가없다/가엎다, -이예요/-이어요, 우레/천둥

‘가뭇/가물’ 중에서는 ‘가뭇’이 더 큰 세력을 얻고 있으나, ‘가물’도 아직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가없다/가엎다’는 활용형에서 ‘가없어라’와 ‘가여워’가 다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가 인정된 것이다. ‘-이예요/-이어요’의 경우도 ‘책이예요/책이어요’처럼 보편화된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ㅣ’ 모음 동화를 반영한 표기 ‘책이예요, 책이어요’는 옳지 않고, 명사가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이에’와 ‘이어’가 축약된 ‘저예요, 저여요’가 맞다. ‘우레/천둥’의 ‘우레’는 본래가 ‘울다’의 어간 ‘울-’에 접미사 ‘-에’가 붙어서 된 말이었는데, 한자의 영향으로 ‘우뢰(雨雷)’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어에도 ‘우레’가 나타나므로 다시 ‘우레/천둥’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 감감무소식/감감소식, -거리다/-대다, 게을러빠지다/게을러터지다, 고깃간/푸줏간, 곰곰/곰곰이, 관계없다/상관없다, 깃저고리/배내옷/배넛저고리, 꼬까/때때/고까, 나귀/당나귀, 녁쿨/덩굴, 녁/쪽, 눈대중/눈어림/눈짐작, 느리광이/느림보/늘보, 다달이/매달, 닭의장/닭장, 돼지감자/똥딴지, 땃말/땃소리, 들락거리다/들랑거리다, 들락날락/들랑날랑, 판전/판청, -뜨리다/-트리다, 만큼/만치,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 모쪼록/아무쪼록, 물봉숭아/물봉선화, 발모가지/발목쟁이, 버들강아지/버들개지, 벌레/버러지, 보통내기/여간내기/예사내기, 부침개질/부침질/지짐질, 뽕두라지/뽕루지, 살쾅이/샬, 샅샅개/샅사리, 서럽다/췌다, 수수깡/수숫대, 시늉말/흉내말, 심술꾸러기/심술쟁이,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앓음새/앓음앓음, 알은척/알은체, 어이없다/어처구니없다, 어저께/어제, 언덕바지/언덕배기, 여쭙다/여쭙다, 여태/입때/여태껏/이제껏/입때껏, 옥수수/강냉이, 욕심꾸러기/욕심쟁이, 의심스럽다/의심쩍다, 자물쇠/자물통, 중신/중매, 척/체, 철따구니/철따서니/철따지, 혼자되다/홀로되다

<부록>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 인정되지 않았던 '짜장면, 먹거리' 등 39개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범과 실제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해 생겼던 언어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부류이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 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서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간지럽히다'도 '간질이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간지럽히다', '토란대', '복숭아뼈' 등 모두 11개 항목이다.⁸⁾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11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
등물	목물
맨날	만날
못자리	뫓자리
복숭아뼈	복사뼈
세간살이	세간
쌈싸름하다	쌈싸래하다
토란대	고운대
허접쓰레기	허접스레기
흙담	토담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여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지만 '눈꼬리'와 '눈초리'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눈꼬리'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눈꼬리', '나래', '내음' 등 모두 25항목이다.

8)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1988년에 제정된 『표준어 규정』에서 이미 허용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간질이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간지럽히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는 불편을 겪을 필요 없이 이전에 쓰던 것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25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길래	-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래: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기에'를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 -기에: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개발새발	괴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새발: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데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 • 괴발개발: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데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
나래	날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래: 흔히 문학 작품 따위에서, '날개'를 이르는 말. '날개'보다 부드러운 어감을 준다. • 날개: 「1」 새나 곤충의 몸 양쪽에 붙어서 날아다니는 데 쓰는 기관. 「2」 공중에 잘 뜨게 하기 위하여 비행기의 양쪽 옆에 단 부분. 「3」 선풍기 따위와 같이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의 몸통에 달려 바람을 일으키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
내음	냄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음: ((흔히 다른 명사 뒤에 쓰여)) 코로 맡을 수 있는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기운.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내음'은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냄새로 제한됨. • 냄새: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낱새.
눈꼬리	눈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꼬리: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 • 눈초리: 「1」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2」=눈꼬리.
떨구다	떨어뜨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떨구다: 「1」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 「2」 고개를 아래로 숙이다. • 떨어뜨리다: 「1」 위에 있던 것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다. 「2」 가지고 있던 물건을 빠뜨려 흘리다. 「3」 뒤에 처지게 하거나 남게 하다.
뜨락	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뜨락: 「1」=뜰 「2」((주로 '-의 뜨락'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가리키는 것이 존재하거나 깃들여 있는 추상적 공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뜰: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 화초나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푸성귀 따위를 심기도 한다.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먹거리	먹을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온갖 것. • 먹을거리: 먹을 수 있거나 먹을 만한 음식 또는 식품.
메꾸다	메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꾸다: 「1」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보내다. 「2」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을 채우다. ※ ‘메꾸다’에 ‘무료한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흘러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음. • 메우다: ‘메다’의 사동사
손주	손자(孫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 손주: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리숙하다: 「1」 걸모습이나 언행이 치밀하지 못하여 순진하고 어리석은 데가 있다. 「2」 제도나 규율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느슨하다. • 어수룩하다: 「1」 걸모습이나 언행이 치밀하지 못하여 순진하고 어설픈 데가 있다. 「2」 제도나 규율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느슨하다. ※ ‘어수룩하다’는 ‘순박함/순진함’의 뜻이 강한 반면에, ‘어리숙하다’는 ‘어리석음’의 뜻이 강함.
연신	연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신: 잇따라 자꾸 • 연방: 연속해서 자꾸 ※ ‘연신’이 반복성을 강조한다면, ‘연방’은 연속성을 강조.
횡하니	횡허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하니: 중도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빠르게 가는 모양. • 횡허케: ‘횡하니’의 예스러운 표현.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자음 또는 모음의 차이로 인한 어감 및 뜻 차이 존재
끄적거리다	끼적거리다	〃
두리뭇실하다	두루뭇술하다	〃
맨송맨송/맹송맹송	맨송맨송	〃
바둥바둥	바동바동	〃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	〃
아웅다웅	아웅다웅	〃
야멸차다	야멸치다	〃
오손도손	오순도순	〃
찌뿌둥하다	찌뿌듯하다	〃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	〃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자장면', '태권', '품세'만을 표준어로 인정해 왔으나 이와 달리 널리 쓰이고 있던 '짜장면', '택견', '품새'도 이번에 인정하였다. 이들도 두 표기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으로 그 정신은 첫째의 경우와 같다.

○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3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택견	태권
품새	품세
짜장면	자장면

[연습 문제]

※ 다음에서 표준어를 고르시오.

- [01] 나팔꽃/나발꽃, 털어먹다/떨어먹다
- [02] 가을갈이/가을카리, 분침/푼침
- [03] 강낭콩/강남콩, 사글세/삭월세
- [04] 돌/뚝, 들째/두째
- [05] 수평/숫평, 수놈/숫놈, 수소/숫소
- [06] 수강아지/숫강아지, 수평아리/수병아리
- [07] 숫양/수양, 숫염소/수염소, 숫쥐/수쥐
- [08] 짱충짱충/깡충깡충, -둥이/-동이, 오뚝이/오뚜기
- [09] 부조/부주, 사돈/사둔, 삼촌/삼춘
- [10] -내기/-나기, 냄비/남비, 아지랑이/아지랭이
- [11] 미장이/미쟁이, 멧쟁이/멧장이
- [12] 미루나무/미류나무, 으레/으레, 괴팍하다/괴팍하다
- [13] 나무라다/나무래다
- [14] 상추/상치, 튀기/트기, 주책/주착
- [15] 윗눈썹/웃눈썹, 윗니/웃니, 윗도리/웃도리, 윗목/웃목
- [16] 위작/웃작, 위쪽/웃쪽, 위층/웃층, 위턱/웃턱
- [17] 웃돈/윗돈, 웃어른/윗어른, 웃웃/윗웃
- [18] 구절/귀절, 대구/대귀, 시구/시귀
- [19] 귀글/구글, 글귀/글구
- [20] 무/무우, 생쥐/새양쥐
- [21] 귀이개/귀개, 부스럼/부럼, 김새/깁
- [22]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머무르다/머물다
- [23] -(으)러고/(으)르려고, 천장/천정
- [24] 설거지하다/설겅다, 애달프다/애닦다, 오동나무/머귀나무
- [25] 까막눈/맹눈, 박달나무/배달나무
- [26] 개다리소반/개다리밥상, 총각무/알타리무
- [27] 빈대떡/빈자떡, 코주부/코보
- [28] 고치다/낫우다, 안절부절못하다/안절부절하다, 주책없다/주책이다
- [29] 가뭇/가물, 가엾다/가엹다, -이에요/-이어요, 우레/천둥
- [30] 녁쿨/덩굴, 벌레/머러지, 옥수수/강냉이, 자물쇠/자물통

♠ 정 답 ♠

- [01] 나팔꽃, 털어먹다
- [02] 가을갈이, 분침
- [03] 강낭콩, 사글세
- [04] 돌, 둘째
- [05] 수평, 수놈, 수소
- [06] 수강아지, 수평아리
- [07] 솥양, 솥염소, 솥쥐
- [08] 짱충짱충, -둥이, 오뚝이
- [09] 부조, 사돈, 삼촌
- [10] -내기, 냄비, 아지랑이
- [11] 미장이, 멧쟁이
- [12] 미루나무, 으레, 괴팍하다
- [13] 나무라다
- [14] 상추, 튀기, 주책
- [15] 윗눈썹, 윗니, 윗도리, 윗목
- [16] 위작, 위쪽, 위층, 위턱
- [17] 웃돈, 웃어른, 웃웃
- [18] 구절, 대구, 시구
- [19] 귀글, 글귀
- [20] 무, 생쥐
- [21] 귀이개, 부스럼, 낄새
- [22]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머무르다/머물다
- [23] -(으)러고, 천장
- [24] 설거지하다, 애달프다, 오동나무
- [25] 까막눈, 박달나무
- [26] 개다리소반, 총각무
- [27] 빈대떡, 코주부
- [28] 고치다,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
- [29] 가뭇/가물, 가엾다/가엹다, -이에요/-이어요, 우레/천둥
- [30] 넝쿨/덩굴, 벌레/버러지, 옥수수/강냉이, 자물쇠/자물통

표준 발음법



1. 표준 발음법의 필요성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표준어를 써야 하며 그것도 ‘한글 맞춤법’에 맞아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에는 표준어를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표준 발음법’이 무엇이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발음은 동일 언어 공동체 내에서도 개인의 발음 습관에 따라 달라지고, 지역적, 계층적, 집단적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일이 흔하다. 예컨대 '밟고'를 어떤 사람들은 [밟:꼬]로 발음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발:꼬]로 발음하기도 한다. 이런 임의적 발음은 ‘踏([밟:꼬])/明([발:꼬])’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표준 발음법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동일하게 발음함으로써 통일된 언어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은정, ‘표준어 해설’, 1988: 239, 대제각)

2. 표준 발음법의 제정 과정

‘표준 발음법’은 ‘한글 맞춤법’이 공포된(1933년) 뒤 55년이 지나서야 고시되었다. 그 동안 일반인이 참고할 만한 소리 표준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 발음의 부재 속에서, 사람들은 맞춤법에 어긋난 글을 쓰면 부끄럽게 생각하였지만 발음의 표준에는 무신경하거나 소홀히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표준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인데도 이러한 경향은 만연하여 우리나라 표준 발음의 정립에 큰 저해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1988년 1월 19일 고시한 후,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고 있는 ‘표준어 규정’의 ‘제2부’에 표준 발음법을 담아 둔 것이다.

3. 표준 발음법의 대원칙

표준 발음법의 대원칙은 ‘표준 발음법’의 ‘제1장 총칙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서 보듯이, 표준 발음법에서는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라는 근본 원칙에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표준어의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 발음법을 정한다는 것은 표준어의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제1항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기고서 일단 이를 따르도록 원칙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값[價]’에 대하여 ‘값, 값만, 값이, 값을, 값에’ 등은 [갑, 갑만, 갑씨, 갑쓸, 갑쎄] 등으로 서울말에서 발음되는데, 바로 이러한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서울말에서조차 실제의 발음에서는 여러 형태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조건을 이어서 제시하였다. 예컨대 서울의 어떤 젊은이나 어린이는 소리의 길이를 구별하지 않고서 ‘밤[夜]과 ‘밤[票]’을 모두 짧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장년층 이상에서는 소리의 길이를 인식하면서 구별하여 발음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리의 높이나 길이를 구별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표준 발음법에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게 하였다.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건 이외에 다시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것은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서 어법에 맞춘다는 것과 맞먹는 조건이다. 말하자면, 국어의 규칙 내지는 법칙에 따라서 표준 발음을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單音節) 용언 어간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 짧게 발음한다. 이는 지극히 규칙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짧게 발음하는 어법을 규정화하여 표준 발음법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알고[알:고], 알아[아라]’와 같이 ‘굽다[굽:따], 고와[고와]’가 표준 발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다만’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발음을 따르면서 어법상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법을 정함에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도 있다. 예컨대 ‘맛있다’는 실제 발음에서는 [마싣따]가 자주 쓰이나 두 단어 사이에서 받침 ‘ㅅ’을 [ㄷ]으로 발음하는 [마딛따]가 오히려 합리성을 지닌 발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마딛따]를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정하되, [마싣따]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4. 표준 발음 익히기

4.1. 자음과 모음

4.1.1.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


- ㄱ. 가져[가저], 찌[찌], 다쳐[다쳐]
- ㄴ. 계집[계:집/계:집], 시계[시계/시계], 지혜[지혜/지혜]
- ㄷ. 널리리[널리리], 닝큼[닝큼], 무너[무니], 희망[히망]
- ㄹ. 주의[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애], 협의[혀비/혀비]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한다(ㄱ). 그리고 ‘예, 레’ 이외의 ‘ㄷ’는 [ㄷ]로도 발음하며(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ㅡ’는 [ㅏ]로 발음한다(ㄷ). 다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ㄷ]로 발음함도 허용한다(ㄹ).  **표준 발음법 제5항**

4.2. 소리의 장단

4.2.1. 긴소리로 발음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ㄱ. 눈보라[눈:보라], 말씨[말:씨], 밤나무[밤:나무]
 많다[만:타], 멀리[말:리], 벌리다[벌:리다]
- ㄴ. 첫눈[첫:눈], 참말[참:말], 쌍동밤[쌍:동밤], 수많이[수:마니]
 눈멀다[눈:멀다], 떠벌리다[떠:벌리다]
- ㄷ. 반신반의[반:신바:늑/반:신바:니], 재삼재사[재:삼재:사]
- ㄹ. 봐[봐:], 겨[겨:], 돼[돼:], 뒤[뒤:], 해[해:]
- ㅁ. 와[와:], 저[저:], 찌[찌:], 처[처:]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ㄱ~ㄴ).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ㄷ). 그리고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ㄹ). 그렇지만 ‘오아→와, 지어→저, 찌어→찌, 치어→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ㅁ).  **표준 발음법 제6항**

4.2.2. 긴소리를 가진 음절을 짧게 발음하는 경우

- ㄱ. 감다[감:따]-감으니[가므니], 뵈다[뵈:따]-뵈으면[발브면]
신다[신:따]-신어[시너], 알다[알:다]-알아[아라]
- ㄴ. 끝다[끝:다]-끝어[끄:러], 뿔다[뿔:따]-뿔은[뿔:븐]
벌다[벌:다]-벌어[버:러], 썰다[썰:다]-썰어[썰:러]
- ㄷ. 감기다[감기다], 꼬이다[꼬이다], 뵈히다[발피다]
- ㄹ. 끌리다[끌:리다], 벌리다[벌:리다], 없애다[엷:썰다]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단음절인 용언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ㄱ),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ㄷ) 등은 짧게 발음한다. 그렇지만, 단음절인 용언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라고 해도 짧게 발음하지 않거나(ㄴ),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어도 짧게 발음하지 않는 경우(ㄷ) 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표준 발음법 제7항

4.3. 받침의 발음

4.3.1. 받침 ‘ㄱ, ㅋ, ㆁ, ㅅ, ㅆ, ㅈ, ㅊ, ㅌ’, ‘ㅍ’의 발음

- ㄱ. 닦다[닥따], 키웁[키웁], 키웁과[키웁파]
- ㄴ. 옷[온], 옷다[온:따], 있다[인따], 젓[전], 밋다[빔따]
꽃[꼇], 쫓다[쫓따], 술[숯], 뵈다[뵈:따]
- ㄷ. 앞[압], 댕다[뎡따]


국어에서 받침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뿐이다. 이 7개 이외의 자음이 받침으로 쓰이게 되면 그것들은 이 7개 자음 중의 하나로 변화되어 발음된다. 받침 ‘ㄱ, ㅋ, ㆁ,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9항

4.3.2. 받침 ‘ㄴ’, ‘ㄹ’, ‘ㅁ, ㄹ, ㅆ’, ‘ㅁ’의 발음

- ㄱ. 녀[닉], 녀과[닉파]
- ㄴ. 앓다[안따]
- ㄷ. 여덟[여덜], 뵈다[닐따], 외곶[외곶], 훑다[할따]
- ㄹ. 값[갑], 없다[엷:따]
- ㅁ. 뵈다[뵈:따], 뵈게[뵈:께]


ㄷ.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똥글다]

국어에는 ㄱ, ㄴ, ㄴᄂ, ㄴᄃ, ㄴᄄ, ㄴᄅ, ㄴᄆ, ㄴᄇ, ㄴᄈ 등과 같이 11개의 겹받침이 있다. 이와 같은 겹받침은 두 자음을 다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자음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발음한다. 국어에는 어두나 어말에서는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으며, 두 모음 사이에서는 두 개까지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 때문에 겹받침을 갖는 어간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게 되면 겹받침 중의 하나는 반드시 탈락하고 하나의 자음만 발음된다. 겹받침 중 어떤 것이 탈락하고 어떤 것이 남느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받침이 탈락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받침이 탈락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겹받침 ‘ㄴ’은 [ㄱ]으로 발음하고(ㄱ), ‘ㄴ’은 [ㄴ]으로 발음하며(ㄴ), ‘ㄴᄃ, ㄴᄄ, ㄴᄅ’은 [ㄴᄃ]로 발음하고(ㄴᄃ), ‘ㄴᄆ’은 [ㄴᄆ]으로 발음한다(ㄴᄆ). 다만, ‘넙-’은 자음 앞에서는 [넙]으로 발음하고(넙), ‘넓-’은 ‘넓죽하다, 넓둥글다’의 경우에 한해 [넙]으로 발음한다(넙).  **표준 발음법 제10항**


4.3.3. 받침 ‘ㄴᄃ, ㄴᄄ, ㄴᄅ’의 발음

- ㄱ. 답[닥], 흙과[흑파], 맑다[막따], 늙지[늑찌]
- ㄴ. 삶[삼], 젊다[점:따]
- ㄴᄃ. 읊고[읍꼬], 읊다[읍따]
- ㄴᄄ. 맑게[말께], 물고[물꼬], 엮거나[얼꺼나]

겹받침 ‘ㄴᄃ, ㄴᄄ, ㄴᄅ’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ᄃ], [ㄴᄆ]으로 발음한다(ㄱ~ㄴᄆ). 그렇지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ㄷ’은 ‘ㄱ’ 앞에서 [ㄴᄃ]로 발음한다(ㄴᄃ).  **표준 발음법 제11항.**


4.3.4. 받침 ‘ㅎ(ᄃᄂ, ㄴᄂ)’의 발음

- ㄱ. 농고[노코], 종던[조:턴], 쌓지[싸치], 많고[만:코], 앓던[안턴], 닳지[달치]
- ㄴ. 각하[가카], 먹히다[머키다], 밝히다[발키다], 만형[마형], 좁히다[조피다]
넓히다[넙피다], 꽃히다[꼬치다], 앓히다[안치다]
- ㄴᄃ. 옷 한 벌[오탄벌], 낮 한 때[나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술하다[수타다]
- ㄴᄄ. 당소[다쏘], 많소[만:쏘], 실소[실쏘]
- ㄴᄅ. 농는[논는], 쌓네[싼네]
- ㄴᄆ. 앓네[안네], 앓는[안는], 똥네[똥네→똥레], 똥는[똥는→똥른]
- ㄴᄇ. 농아[노아], 쌓이다[싸이다], 많아[마:나], 앓은[아는], 닳아[다라]

‘ㅎ(ㄴㅎ, ㄹ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로 발음한다(ㄱ). 받침 ‘ㄱ(ㄱ), ㄷ, ㄴ(ㄴ), ㅈ(ㅈ)’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소리를 합쳐서 [ㅋ, ㅌ, ㅊ, ㅊ]로 발음한다(ㄴ). 그리고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ㅆ, ㅈ, ㅉ’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ㄷ). ‘ㅎ(ㄴㅎ, ㄹㅎ)’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하고(ㄷ), ‘ㅎ(ㄴㅎ, ㄹ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ㄴ]으로 발음한다(ㄷ). 그렇지만, ‘ㄴㅎ, ㄹ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ㄴ). ‘ㅎ(ㄴㅎ, ㄹ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ㄴ).  **표준 발음법 제12항.**

4.3.5. 받침 뒤에 ‘ㄱ, ㄴ, ㄷ, ㅌ, ㄱ’의 실질 형태소가 올 때의 발음


- ㄱ. 발 아래[바다래], 늪 앞[느뱌], 젓어미[저더미], 맛없다[마덱따]
겉옷[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 ㄴ. 맛있다[마싣따]/[마딛따], 멋있다[머싣따]/[머딛따]
- ㄷ. 녀 없다[너덱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받침 뒤에 모음 ‘ㄱ, ㄴ, ㄷ, ㅌ, ㄱ’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ㄱ).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딛따], [머딛따]를 표준 발음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마싣따], [머싣따]도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ㄷ).  **표준 발음법 제15항.**

4.4. 소리의 동화


4.4.1.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ㅣ’와 결합될 때의 발음

- ㄱ. 굳이듣다[고지듣따], 굳이[구지], 미닫이[미다지]
땀받이[땀바지], 밭이[바치], 벼훅이[벼훅치]
- ㄴ. 굳히다[구치다], 닫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 ㄷ. 돌을[도들], 굳어[구더], 닫아[다다], 밭을[바틀]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ㄱ). ‘ㄷ’ 뒤에 접미사 ‘ㅎ’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ㄴ). 그러나 ‘ㅣ’ 이외의 모음과 연결될 때는 ‘ㄷ, ㅌ’ 소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난다(ㄷ).  **표준 발음법 제17항.**


4.4.2. ‘ㄴ, ㄹ’ 앞의 받침 ‘ㄱ(ㄲ, ㅋ, ㆁ, ㄷ, ㄸ), ㄴ(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ㅈ, ㅊ, ㅌ, ㅎ), ㄷ(ㄷ, ㄹ, ㅁ, ㅂ, ㅅ, ㅆ)’의 발음

- ㄱ. 밤물[밤물], 잡는[잡는], 앞마당[암마당], 읊는[음는]
- ㄴ. 옷맵시[온맵씨], 짓멍울[전멍울], 꽃망울[꼇망울], 있는[인는]
- ㄷ. 부엌만[부엌만], 국물[궁물], 깎는[깡는], 흙만[흥만]
- ㄷ. 책 넣는다[챙넌는다], 흙 말리다[흥말리다], 옷 맞추다[온마추다]
밥 먹는다[밤멍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장애음 ‘ㄷ, ㄸ, ㅌ’은 비음 앞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비음 앞에서 ‘ㄹ, ㄴ, ㅇ’으로 바뀐다. 따라서 받침 ‘ㄱ(ㄲ, ㅋ, ㆁ, ㄷ, ㄸ), ㄴ(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ㅈ, ㅊ, ㅌ, ㅎ), ㄷ(ㄷ, ㄹ, ㅁ, ㅂ, ㅅ, ㅆ)’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ㄱ~ㄷ). 두 단어가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ㄷ).  **표준 발음법 제18항.**

4.4.3.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ㄷ’의 발음


- ㄱ. 담력[담녁], 침략[침낙], 강릉[강능], 항로[항노], 대통령[대:통녕]
- ㄴ. 막론[막논→망논], 백리[백나→뱅니], 협력[협낙→협녁], 십리[십나→십니]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ㄷ’은 [ㄴ]으로 발음한다(ㄱ). 그리고 받침 ‘ㄱ, ㄷ’ 뒤에 연결되는 ‘ㄷ’도 [ㄴ]으로 발음한다(ㄴ).  **표준 발음법 제19항.**

4.4.4. ‘ㄷ’의 앞이나 뒤에 있는 ‘ㄴ’의 발음

- ㄱ. 난로[날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괘령]
- ㄴ.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림끼], 할는지[할른지]
- ㄷ. 닳는[달른], 뚫는[뚫른], 핏네[할레]
- ㄷ.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탄녁]
공권력[공편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원노], 구근류[구근뉴]


국어에서 ‘ㄴ’과 ‘ㄷ’은 발음이 연이어 나올 수 없어서, ‘ㄴ’은 ‘ㄷ’의 앞이나 뒤에서 [ㄷ]로 발음된다(ㄱ~ㄴ). 이는 비음 ‘ㄴ’이 유음 ‘ㄷ’에 동화되어 소리가 [ㄷ]로 바뀌기 때문이다. 첫소리 ‘ㄴ’이 ‘ㄷ, ㅌ’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ㄷ). 다만, ‘의견란, 임진란, 생산량, 결단력, 공권력, 동원령, 상견례, 횡단로, 이원론, 입원료, 구근류’ 등

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ㄹ).  표준 발음법 제20항.

4.5. 된소리되기


4.5.1.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ㄱ, ㅌ, ㅊ, ㅌ, ㅌ), ㅌ(ㅌ, ㅌ, ㅌ, ㅌ)’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ㅌ, ㅌ’의 발음

- ㄱ. 국밥[국뽕], 깎다[깍따], 낚받이[낙빠지], 샷돈[삭뽕], 닭장[닥짱], 침범[침뽕]
- ㄴ. 뽕대다[뽕때다], 웃고름[온꼬름], 있던[인뽕], 꽃고[꼇꼬], 꽃다발[꼇따발],
낫설다[낙썰다], 밭갈이[밭까리], 솔전[솔뽕],
- ㄷ. 곱돌[곱뽕] 텃개[뽕개], 옆집[엇뽕], 넓죽하다[넙쭈카다],
웁조리다[웁쭈리다], 값지다[갑찌다]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ㄱ, ㅌ, ㅊ, ㅌ, ㅌ), ㅌ(ㅌ, ㅌ, ㅌ, ㅌ)’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ㄱ~ㄷ).  표준 발음법 제23항.

4.5.2. 어간 받침 ‘ㄴ(ㄴ), ㄹ(ㄹ), ㅌ,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ㅌ’의 발음


- ㄱ. 신고[산:꼬], 꺾안다[껴안따], 앓고[안꼬], 었다[언따], 삼고[삼:꼬]
더듬지[더듬찌], 담고[담:꼬], 젊지[젊:찌]
- ㄴ. 안기다[안기다], 감기다[감기다], 굶기다[굶기다], 옮기다[옮기다]
- ㄷ. 넓게[넙게], 할다[할따], 홀소[홀쏘], 뽕지[뽕:찌]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ㅌ’도 된소리로 발음한다(ㄱ).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ㄴ). 그리고 어간 받침 ‘ㅌ,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ㅌ’도 된소리로 발음한다(ㄷ).  표준 발음법 제23항, 제25항.

4.5.3.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ㅌ’의 발음


- ㄱ. 갈등[갈뽕], 발동[발뽕], 절도[절뽕], 말살[말쌀], 불소[불쏘], 일시[일씨],
갈증[갈쭙], 물질[물쭙], 발전[발뽕], 물상식[물쌍식], 불세출[불췌췌]
- ㄴ. 허허실실[허허실실], 절절하다[절절하다]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ㄱ).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ㄴ).  **표준 발음법 제26항.**


4.5.4.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의 발음

- ㄱ. 할 것을[할꺼슬], 갈 때가[갈때가], 할 바를[할빠를], 할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갈 곳[갈꼐], 할 도리[할또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ㄴ. 할걸[할겔],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쎄라], 할수록[할쑤록]
 할진대[할쑤대], 할지라도[할쩌라도], 할지언정[할쩌언정]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ㄱ). ‘-(으)ㄴ’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ㄴ).  **표준 발음법 제27항.**

4.5.5.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에서,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의 발음

-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쎄], 손재주[손쎄주],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발바닥 [발빠닥], 굴속[굴쑤], 바람결[바람겔], 그
 뭍달[그뭍딸],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딸], 강줄기[강쑤기]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28항.**

4.6. 소리의 첨가

4.6.1. ‘ㄴ’소리 첨가


- ㄱ. 숨이불[숨:니불], 맨입[맨닙], 내복약[내:봉낙], 한여름[한녀름]
 담요[담:뇨], 식용유[시공뉴]
 ㄴ.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마금]
 검열[검:녘/가:멸], 금융[금녕/그똥]
 ㄷ. 한 일[한닐], 옷 입다[온닙따], 서른여섯[서른녀섯]
 ㄷ. 6·25[유기오], 3·1절[사밀쩔], 송별연[송:벼련], 등용문[등용문]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ㄱ). 다만, ‘이죽이죽, 야금야금, 올랑올랑, 검열, 금융’과 같은 말들은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ㄴ).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ㄴ). 그렇지만, ‘6·25, 3·1절, 송별연, 등용문’ 등은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ㄷ).  **표준 발음법 제29항.**


4.6.2. ‘ㄷ’소리 첨가

- ㄱ. 들일[들:릴], 술있[술립], 설익다[설릭따], 물약[물략],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력], 물엿[물련], 휘발유[휘발류]
ㄴ. 할 일[할릴], 잘 입다[잘립따], 스물여섯[스물려션]

‘ㄷ’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소리는 [ㄷ]로 발음한다(ㄱ).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ㄴ).  **표준 발음법 제29항의 [붙임].**

4.6.3. 사이시옷의 발음

- ㄱ. 냇가[내:까/낸:까], 셋길[새:길/센:길], 빨랫돌[빨래뜰/빨랜뜰]
כות[코똥/콘똥], 깃발[기빨/긴빨], 대팻밥[대:패뺨/대:편뺨]
햇살[해쌀/헨쌀], 뱃속[배쑥/뺨쑥], 고갯짓[고개찜/고갯찜]
ㄴ. 콧날[콘날→콘날], 아랫니[아래니→아랜니], 뱃머리[뺨머리→뺨머리]
뒗마루[뒗:마루→뒗:마루],
ㄷ. 깻잎[깻닙], 나뭇잎[나문닙], 베갯잇[베갠닙], 뒗웃[뒗:눈],
도리깻잎[도리깻닙]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ㄱ). 그리고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ㄴ).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ㄷ).  **표준 발음법 제30항.**

[연습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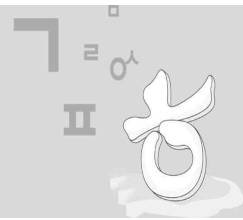
※ 다음 단어의 표준 발음을 쓰시오.

- [01] 널리리, 닝큼, 무늬, 희망
- [02] 주의, 우리의, 허의
- [03] 봐, 겨, 돼, 뒤, 해
- [04] 와, 저, 쩌, 처
- [05] 감기다, 꼬이다, 밟히다
- [06] 여덟, 넓다, 외곬, 활다
- [07] 밟다, 밟게
- [08] 넓죽하다, 넓둥글다
- [09] 닭, 흙과, 맑다, 늑지
- [10] 읊고, 읊다
- [11] 맑게, 묶고, 엇거나
- [12] 옷 한 벌, 낮 한 때, 꽃 한 송이, 술하다
- [13] 발 아래, 늪 앞, 젖어미, 맛없다
- [14] 겉옷, 헛웃음, 꽃 위
- [15] 맛있다, 멋있다
- [16] 녀 없다, 닭 앞에, 값어치, 값있는
- [17] 옷맵시, 젖명울, 꽃망울, 있는
- [18] 담력, 침략, 강릉, 향로, 대통령
- [19] 광한루, 대관령
- [20] 의견란, 임진란, 생산량, 결단력
- [21] 공권력, 동원령, 상견례, 횡단로
- [22] 이원론, 입원료, 구근류
- [23] 넓게, 활다, 홀소, 땀지
- [24] 허허실실, 절절하다
- [25] 이죽이죽, 야금야금
- [26] 검열, 금융
- [27] 냇가, 샛길, 빨랫돌
- [28] 콧등, 깃발, 대팻밥
- [29] 콧날, 아랫니, 뺨머리
- [30] 깻잎, 나문잎, 베갯잇, 뒷웃

♠ 정 답 ♠

- [01] [닐리리], [닝큼], [무니], [히망]
- [02] [주의/주이], [우리의/우리애], [혀빅/혀비]
- [03] [봐:], [겨:], [돼:], [뒤:], [해:]
- [04] [와], [저], [찌], [처]
- [05] [감기다], [꼬이다], [발피다]
- [06] [여덜], [널따], [외골], [할따]
- [07] [밥:따], [밥:께]
- [08] [넙쭈카다], [넙똥글다]
- [09] [닥], [흑파], [막따], [늑지]
- [10] [읍꼬], [읍따]
- [11] [말께], [물꼬], [얼꺼나]
- [12] [오탄별], [나탄때], [꼬탄송이], [수타다]
- [13] [바다래], [느밥], [저더미], [마답따]
- [14] [거둔], [허두슴], [꼬뒤]
- [15] [마신평/마덜따], [머신평/머덜따]
- [16] [너겍따], [다가페], [가버치], [가빈는]
- [17] [온맴씨], [전명울], [꼰망울], [인는]
- [18] [담:녁], [침냐], [강능], [항:노], [대:통녕]
- [19] [광:할루], [대:괘령]
- [20] [의:견난], [임:진난], [생산냥], [결판녁]
- [21] [공편녁], [동:원녕], [상견네], [횡단노]
- [22] [이:원논], [이뵤노], [구근뉴]
- [23] [널께], [할따], [홀쏘], [떨:찌]
- [24] [허허실실], [절절하다]
- [25] [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냐금/야그마금]
- [26] [검:넬/자:멸], [금눔/그똥]
- [27] [내:까/낸:까], [새:깁/싼:깁], [빨래똥/빨랜똥]
- [28] [코똥/콘똥], [기빨/긴빨], [대:괘뻘/대:괘뻘]
- [29] [콘날→콘날], [아랫니→아랫니], [뺨머리→뺨머리]
- [30] [깡닙], [나문닙], [베깡넌], [뵤:늘]

외래어 표기법



1.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

외래어는 다른 나라 말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말소리가 우리말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런 말들을 일정한 규칙 없이 제각각 적도록 놓아둔다면 언어생활이 혼란해질 것이다. internet이란 낱말을 예로 들어 보자. 사람에 따라 ‘인터넷, 인터네트, 인터넬’ 등으로 달리 표기하게 될 것이고, 같은 개념을 지시하는 말이 표기가 이렇게 각각이라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외래어 표기법’은 이렇게 다양한 어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외래어에 대해 표준어를 정해 주기 위한 규칙이다.

그런데 간혹 외래어 표기법을 외국어 교육과 연관 지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어 발음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p]와 [f] 소리를 똑같이 ‘ㅍ’으로 적거나, [l]과 [r] 소리를 똑같이 ‘ㄹ’로 적도록 하는 외래어 표기법 탓에 한국 사람들이 이 소리들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대개 한글 자모를 변형시켜 사용자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f] 소리는 ‘표ㅎ’이나 ‘퐁’, [l] 소리는 ‘ㄹㄹ’ 같이 표기하자는 것이다.

외래어를 원음에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운 부호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외래어 표기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다. 외래어 표기의 목적은 국어 생활 속에 사용되는 외래어들을 통일된 방식으로 적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영어에서 [kɔ:fi]로 발음되는 단어를 ‘커피’, ‘코피’, ‘코오회’ 등 제각각으로 적지 말고 ‘커피’라는 한 가지 형태로 고정시켜 적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표준 표기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를 말할 때에도 그대로 발음하라는 것은 아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방식을 정해 놓은 규칙이다. 우리말을 적을 때에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듯이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항상 일정하게 적어야 한다.

2.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 과정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1월 7일 문교부 고시 제85-11호로 고시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후, 외래어 표기법은 문화부 고시 제1992-31호, 문화 체육부 고시 제1995-8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로 다시 고시되었으며, 2005년 12월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32호 고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래어에 대한 표기 규정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이다. 이는 조선어학회에서 1930년 12월 30일 조선어학회 총회 결의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한편으로 ‘들온말 적기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외래어 표기에 대해 조선어학회에서는 1931년부터 9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치며 계속 연구와 심의를 병행하였으며, 다시 2년의 시험 적용 기간을 거쳐 1940년 6월 총회에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문교부 학술용어제정위원회 제20분과 언어과학위원회에서 1948년에 ‘들온말 적기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문교부에서는 1956년 국어심위원회의 외래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로마자 한글화 방안을 연구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958년 10월 20일에 문교부에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공포하였다. 그 뒤 문교부는 외래어 표기의 세칙을 마련하고 1959년부터 1972년까지 편수 자료를 발간하였다.

그동안 외래어 표기법의 표준이 된 것은 1958년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이었다. 이리고 이를 보완하여 1986년 1월 7일 문교부가 고시한 것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근간이 된 것이다.

3.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제시되어 있는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제1장 제1항)
-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제1장 제1항)
-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제1장 제1항)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장 제1항)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제1장 제1항)

제1항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원음에 충실하게 적기 위하여 국어의 현용 24자모 외의

글자나 기호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장모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자모 아닌 기호를 도입하거나, 국어에 없는 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퐁, 뵙’을 사용하거나 ‘ㅼ, ㅽ’과 같은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제2항은 외래어의 음운과 국어의 자모를 일대일 대응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힌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대이 대응, 이대일 대응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p]는 ‘퍼센트, 수프, 슥’과 같이 ‘ㅍ, 프, ㅍ’로 다양하게 적고, [r], [l]은 ‘리본, 레이스’와 같이 모두 ‘ㄹ’로 똑같이 적는다.

제3항은 국어의 표기 방법과 달리 7개의 받침으로만 표기한다는 뜻으로, 이 규정에 따라서 ‘coffee shop’은 ‘커피숍’으로, ‘internet’은 ‘인터넷’으로, ‘stick’은 ‘스틱’으로 적는다.

제4항은 외래어 표기에서 파열음 된소리인 ‘ㅃ, ㄸ, ㅆ’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영어의 무성 파열음은 된소리보다 거센소리에 가깝고 프랑스어나 일본어의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보다 된소리에 가깝지만, 외국어의 정확한 발음 전사는 불가능하므로 일관성과 간결성을 살려서 거센소리로 통일하여 적음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서 영어의 ‘game, dam, bus’는 ‘게임, 댐, 버스’가 아니라 ‘게임, 댐, 버스’로, 프랑스 어의 ‘café, latte, Paris’는 ‘까페, 라떼, 파리’가 아니라 ‘카페, 라테, 파리’로 적는다.

제5항은 이미 언중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여 굳어진 외래어는 표기법에 맞지 않아도 관용을 존중하여 사용한다는 뜻이다. ‘camera[kæməɾəl]’를 ‘캐머러’가 아니라 ‘카메라’로, ‘radio[reidioul]’를 ‘레이디오’가 아니라 ‘라디오’로, ‘system[sistəm]’을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적는 것이 그 예이다.

4. 외래어 익히기

4.1. 자음의 표기

- (1) ㄱ. 카페/*까페, 파리/*파리, 버스/*베스
 - ㄴ. 시스템/*씨스템, 센터/*센터, 취리히/*쨌리히
 - ㄷ. 마오쩌둥, 쑨원
 - ㄹ. 빵, 껌, 히로뽕, 뽀라
 - ㅇ. 뽀따니(타이 지명), 푸켓(타이 지명), 호찌민(베트남 인명, 지명)

우리말의 파열음은 소리 특징에 따라 예사소리(ㄱ, ㄷ, ㅌ), 거센소리(ㅋ, ㅌ, ㅍ), 된소리(ㅃ, ㄸ, ㅆ)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영어나 일본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어에는 유성음(b, d, g)과 무성음(p, t, k) 두 가지 구분만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유성 파열음은 예사소리에,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에 각각 대응시키고, 된소리는 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어의 [k, t, p] 소리는 ‘ㅋ, ㅌ, ㅍ’으로, [g, d, b] 소리는

‘ㄱ, ㄷ, ㅂ’으로 적는다. 따라서 (ㄱ)에서 ‘*까페, *빠리, *빠스’와 같은 표기는 잘못된 것이고, ‘카페, 파리, 버스’ 등이 바른 표기이다.

파열음뿐만 아니라 마찰음(ㅅ, ㅆ)과 파찰음(ㅈ, ㅉ, ㅊ) 표기를 할 때에도 된소리 글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ㄴ)에서 ‘*씨스템, *센터, *쥘리히’ 같은 표기는 잘못된 것이고, ‘시스템, 센터, 쥘리히’ 등이 바른 표기이다.

그렇지만, (ㄷ)에서 보듯이, 중국어 표기에는 ‘ㅆ’과 ‘ㅉ’을 사용한다. 또 된소리로 굳어진 몇몇 낱말들에는, (ㄷ)에서처럼, 된소리 표기를 허용한다. 그리고 자음에 3분 대립이 존재하는 타이 어와 베트남 어에는, (ㄷ)에서처럼, 파열음과 파찰음에 된소리 표기를 도입한다.

(2) 커피숍/*커피쑈, 디스켓/*디스켈, 코너킥/*코너킵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받침 글자로 ‘ㄱ, ㄴ, ㄷ, ㄹ, ㅂ, ㅅ, ㅇ’의 일곱 가지만 쓸 수 있다. 외래어와 달리 고유어 표기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잎, 꽃, 밭, 값’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어에 대해서는 겹자음을 포함한 모든 자음들이 받침으로 사용된다. 고유어를 표기할 때 ‘ㄷ, ㅈ, ㅊ, ㅋ, ㅌ, ㅍ, ㅎ’ 등을 받침으로 쓰는 이유는, 그것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대표음으로 소리 나더라도 모음 앞에 올 때에는 그 음가(音價)대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즉 ‘잎’을 ‘입’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잎이[이피]’, ‘잎을[이플]’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ㅍ’ 소리가 발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도 [커피쇼피], [디스케티], [코너키키]와 같이 발음하지 않고 항상 [커피쇼비], [디스케시], [코너키기]로 발음하므로 ‘커피쑈, 디스켈, 코너킥’으로 표기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커피숍, 디스켓, 코너킥’이 바른 표기이다.

(3) ㄱ. 로봇/*로보트, 카펫/*카페트, 인터넷/*인터넷

ㄴ. 테이프/*테입/*테잎, 케이크/*케익/*케익, 플루트/*플룻/*플룻

ㄷ. 매트리스/*맷리스, 투르크메니스탄/*투룩메니스탄

ㄹ. 넷/*넛, 셋/*셋/*셀, 매트/*맷

ㄷ. 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톡, 티베트/*티벳, 아베크/*아벵

무성 파열음 [p, t, k]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ㄱ)에서처럼, 어말이나 자음 앞 무성 파열음 바로 앞의 모음이 짧은 모음일 때에는 받침으로 적고, (ㄴ)에서처럼, 긴 모음이나 이중 모음일 경우에는 ‘ㅡ’를 받쳐 적는다. 그리고 (ㄷ)에서처럼, 바로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라도, 무성 파열음 뒤에 비음(m, n)이나 유음(r, l)이 있는 경우에는 ‘ㅡ’를 받쳐 적는다. 그러나 (ㄷ)에서처럼, 1음절어이면서 어말 무성 파열음 [t]로 끝나는 말

은 그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라도 ‘ㅡ’를 받쳐 한 음절을 늘려 적는 경우가 많다. 한편, (ㄱ)에서처럼, 영어 이외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의 경우는 어말 파열음을 무조건 파열시켜 ‘ㅡ’를 받쳐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로봇, 카펫, 인터넷, 테이프, 케이크, 플루트, 매트리스, 투르크메니스탄, 네트, 세트, 매트, 블라디보스토크, 티베트, 아베크’가 맞는 표기이다.

- (4) ㄱ. 허브/*헝, 개그/*객
 ㄴ. 핸드백/*핸드배그, 웹/*웨브

유성 파열음 [b, d, g]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지 않고 항상 ‘으’를 붙여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ㄱ)에서는 ‘허브, 개그’가 바른 표기이다. 그러나 ‘백’, ‘웹’ 등 이미 굳어진 말들은 예외를 인정하여 유성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는다. 따라서 (ㄴ)에서 맞는 표기는 ‘핸드백, 웹’이다.

- (5) 파이팅/*화이팅, 패밀리/*헤미리, 프라이/*후라이

[f] 소리는 항상 ‘표’으로 적는다. 일본식 표기의 영향을 받아 [f]를 ‘후’나 ‘호’로 적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f]와 [p] 소리는 우리말에서 모두 ‘표’으로 적으므로 ‘파이팅, 패밀리, 프라이’가 맞는 표기이다.

- (6) ㄱ. 슈미트/*시미트/*쉬미트
 ㄴ. 대시/*대쉬, 플래시(flash)/*플래쉬/*후래쉬, 잉글리시/*잉글리쉬, 리더십/*리더쉽
 ㄷ. 패션/패손, 쇼핑/샤핑, 셰익스피어/섹스피어
 ㄹ. 아인슈타인/*아인시타인/*아인쉬타인, 타슈켄트/*타시켄트

[ʃ]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로,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 따라서 (ㄱ)에서는 ‘슈미트’가 맞는 표기이고, (ㄴ)에서는 ‘대시, 잉글리시, 플래시, 리더십’이 맞는 표기이다.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세, 쇼, 슈, 시’로 적는다. 따라서 (ㄷ)의 ‘fashion[fæʃən]’, ‘shopping[ʃɒpɪŋ]’, ‘Shakespeare[ʃeɪkspiər]’ 등의 [ʃ]는 뒤의 모음과 합쳐져 ‘패션’, ‘쇼핑’, ‘셰익스피어’로 적어야 한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은 [ʃ]를 언제나 ‘슈’로 적는다. 따라서 (ㄹ)에서 독일 사람인 ‘Einstein’은 ‘아인슈타인’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Tashkent’는 ‘타슈켄트’로 적는 것이 맞다.

- (7) 브리지/*브릿지, 스위치/*스윗치, 스케치/*스켓치, 케첩/*켓첩/*케첩

[dʒ, ʃ]는 모음 앞에서는 ‘ㅈ, ㅊ’으로 적고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지, 치’로 적는다. 앞의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고 이 소리들이 올 때에 흔히 앞에 ‘ㅅ’ 받침을 넣어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따라서 ‘브리지, 스위치, 스케치, 캐첩’이 바른 표기이다.

(8) 플라자/*프라자, 클리닉/*크리닉, 클럽/*크럽, 살롱/*싸롱

[r]과 [l] 소리는 구분 없이 ‘ㄹ’로 적는다. 다만 낱말中间的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뒤따르지 않는 비음(m, n, ŋ) 앞에 올 때에는 ‘ㄹ’을 겹쳐 ‘ㄹㄹ’로 적는다. 예컨대, cream은 ‘크림’으로 적지만 clean은 ‘*크린’이 아니라 ‘클린’으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플라자, 클리닉, 클럽, 살롱’이 맞는 표기이다.

4.2. 모음의 표기

(1) 센터/*센타/*쎄타, 디지털/*디지탈/*디지틀, 터미널/*터미날

[ə]는 우리말의 ‘어’와 ‘으’의 중간 소리처럼 들리는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를 ‘어’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center[séntə]는 ‘센터’로, digital[díʤítəl], terminal[tə:mi:nl]은 각각 ‘디지털’과 ‘터미널’로 적어야 한다. 특히 digital, terminal 표기에서 철자 a에 이끌려 ‘*디지털, *터미날’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이다.

(2) ㄱ. 콘서트/*컨서트, 콘택트/*컨택트, 콘텐츠/*컨텐츠/*칸텐츠

ㄴ. 컨디션/*콘디션, 에어컨/*에어콘, 컨트롤/*콘트롤

ㄷ. 톱/*탑, 솥/*샵, 보디/*바디

[ɔ]는 [o]와 구분하지 않고 ‘오’로 적는다. [ɔ] 소리는 우리말의 ‘오’보다는 입을 더 크게 벌려 ‘어’에 가깝게 소리 내는 것이어서 사람에 따라 ‘오’로 적기도 하고 ‘어’로 적기도 하나 ‘오’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ㄱ)의 예들은 [kɔn]으로 소리 나니까 ‘콘서트, 콘택트, 콘텐츠’로 적어야 한다.

(ㄴ)에 있는 예들은 발음이 [kən]으로 나는 것이다. 따라서 ‘컨디션, 에어컨, 컨트롤’로 적어야 한다. 흔히 concert, contact, contents의 con을 ‘콘’으로 적으니까, condition, control 따위의 con도 역시 ‘콘’으로 적으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발음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ㄷ)은 [ɔ]로 소리가 나는 것들이므로 ‘아’로 적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탑, *샵, *바디’가 아닌, ‘톱, 솥, 보디’로 적어야 한다.

(3) 컬러/*칼라, 커버/*카바, 허니/*하니

위의 예들은 [ʌ] 소리를 가지는 단어들이다. [ʌ]는 듣기에 따라 ‘아’로 들리기도 하고 ‘어’로 들리기도 하는데, 표기 원칙에 따르면 ‘어’로 적어야 한다. 일본식 표기의 영향을 받아 ‘*칼라, *카바, *하니’ 등의 표기가 더러 눈에 띄는데, ‘컬러, 커버, 허니’로 적어야 맞다.

- (4) ㄱ. 보트/*보우트, 코트/*코우드, 보너스/*보우너스, 옐로/*옐로우
 윈도/*윈도우
 ㄴ. 타워/*타우어, 파워/*파우어, 아이젠하워/*아이젠하우어

음가가 다른 모음이 둘 이상 결합한 중모음은 각각의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는다. 따라서 [ai], [ei], [au] 등은 각각 ‘아이, 에이, 아우’ 따위로 적는다. 다만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이들은 ‘오우’나 ‘아우어’로 적을 경우에 원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오’, ‘아워’로 적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boat[bout], coat[cout], bonus[bóunəs]는 ‘*보우트, *코우트, *보우너스’로 적지 않고, ‘보트, 코트, 보너스’로 적어야 하며, yellow[jélou]나 window[windou] 같은 경우도 ‘옐로, 윈도’로 적어야 한다. (ㄴ)은 [auə]로 소리 나는 것들이므로 ‘타워, 파워, 아이젠하워’로 적어야 맞다.

- (5) ㄱ. 오사카/*오오사카/*오오사까, 뉴욕/*뉴우요르크
 ㄴ. 알코올/*알콜, 아밀라아제/*아밀라제, 알마아타/*알마타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장모음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오사카’, ‘*뉴우욕’ 등 모음을 겹쳐 쓴 표기는 틀린 형태이며 각각 ‘오사카’, ‘뉴욕’으로 적어야 옳다. 고유어나 한자어 중에도 ‘밤[栗] 對 밤:[夜]’, ‘눈[眼] 對 눈:[雪]’ 등 모음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구분되는 단어 쌍들이 있으나 이들을 ‘*바암, *누운’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래어에서도 장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ㄴ)에 있는 예들은 예외적으로 모음을 겹쳐 적는 것을 허용하는 예들이다. ‘알코올’은 ‘메탄올, 에탄올’ 따위 용어들과 관련성을 밝혀 주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의 명칭도 ‘락타아제, 말타아제’ 등 다른 효소들과의 관련성을 보이기 위해 모음의 겹침을 허용한 것이다. ‘알마아타’의 경우는 원어가 Alma Ata이므로 ‘*알마타’가 아니라, ‘알마아타’로 적게 된다.

(6) 주니어/*쥬니어, 레저/*레저, 찬스/*찬스, 벤처/*벤처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 등 ‘ㅈ’이나 ‘ㅊ’ 뒤에 이중 모음

이 결합한 형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로 적어야 한다. 우리말에서 ‘ㅈ, ㅊ’ 같은 경구개음은 그 뒤에서 이중 모음과 단모음이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잠자다’를 [잠자다]로 발음하거나 ‘전화’를 [전화]로 말해도 뜻을 혼동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주니어, 레저, 찬스, 벤처’로 쓰는 것이 맞다.

4.3. 그 밖의 표기 세칙

(1) 로그인/*로긴, 아웃렛/*아울렛/*아우틀렛, 메이크업/*메이컵

원어가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복합어를 한 단어로 보아 표기하면 이들이 각각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와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를 살려서 적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log in’이란 말은 ‘로그’와 ‘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이므로 ‘로그인’으로 적는다. 원어의 발음이 ‘*로긴’, ‘*로가웃’에 가깝게 들리더라도 그렇게 적지 않는다. ‘아웃렛,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이다.

(2) ㄱ. Charles: 찰스(영), 샤를(불)

ㄴ. San Jose: 산호세(코스타리카), 새너제이(미국)

외래어 표기는 현지 발음에 가깝게 적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원어 철자가 같은 말들이라도 한글로는 달리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Charles는 그것이 영어 이름인지, 프랑스 어 이름인지에 따라 한글 표기가 달라진다. 영어권 사람의 이름이라면 ‘찰스’라고 해야 하지만 프랑스 어 사용 지역의 사람 이름이라면 ‘샤를’이라고 적는다. 지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지도에 보면 San Jose라고 적혀 있는 도시가 두 곳 있다. 하나는 코스타리카의 수도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시이다. 이들은 비록 같은 철자를 쓰지만 두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한글로는 전혀 다르게 적힌다. 코스타리카는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므로 그 수도는 에스파냐어 표기법에 따라 ‘산호세’라고 적어야 하며, 미국 도시는 영어 발음 [sænəjei]에 따라 ‘새너제이’로 적는다.

(3) ㄱ. 라디오/*레이디오, 시보레/*세브렐레이

ㄴ. 컷/커트, 타입/타이프

우리말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 표기와 발음이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대로 적도록 한다. radio는 발음이 [rédiðu]이므로,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르면 ‘레이디오’가 되어야 하지

만 이미 ‘라디오’로 굳어진 말이므로 ‘라디오’를 옳은 표기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이름인 Chevrolet는 프랑스 어에서 온 말로 [ʃèvrəlɛi]라는 발음에 따르면 ‘*세브릴레이’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일본어를 통해서 ‘시보레’로 들여와 오랫동안 쓰여 왔던 관용을 인정해 ‘시보레’로 적도록 한다. (ㄴ)의 예들은 관용을 고려해서 두 가지 표기형을 다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표기형에 다른 뜻을 부여한 것들이다. 같은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표기와 쓰임이 우리말에 달리 정착한 상황을 반영한 예들이다. ‘컷트’는 머리를 자르거나 탁구 등의 운동에서 공을 깎아 치는 것을 가리킬 때 쓴다. ‘컷’은 영화 따위의 장면이나 작은 삽화를 뜻할 때 쓴다. ‘타입’은 어떤 형태나 유형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타이프’는 ‘타이프라이터’의 줄임말로 타자기를 가리킨다.

- (4) ㄱ. 鹿兒島: 가고시마/*녹아도,
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ㄴ. 杭州: 항저우/*항주
孔子: 공자/*콩쯔, 孟子: 맹자/*멍쯔
張國榮: 장귀룽/*장국영, 張藝謀: 장이머우/*장예모
ㄷ. 北京: 북경/베이징, 東京: 동경/도쿄

한자로 적힌 중국이나 일본의 인명,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으나, 현행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라 원어의 발음을 따라 적는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명 ‘鹿兒島(かごしま)’의 우리 한자음은 ‘녹아도’이지만 일본어의 발음을 따라 ‘가고시마’로 적는다. 일본 인명도 마찬가지로 ‘이등박문’ 대신에 ‘이토 히로부미’로 적는다.

중국 인명 중에서 고대인의 경우는 현대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지 않고 ‘공자, 맹자’ 등 우리 한자음대로 표기한다. 현대인의 경우는 중국어 발음에 맞추어 ‘주음부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서 표기한다. 따라서 ‘張國榮(Zhāng Guó róng)’은 ‘장국영’이 아니라 ‘장귀룽’으로, ‘張藝謀(Zhāng Yì móu)’는 ‘장예모’가 아니라 ‘장이머우’로 표기해야 한다. 중국 인명을 표기할 때 고대인과 현대인의 구분은 신해혁명(1911년)을 기준으로 한다. 중국의 지명은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長安: 장안/*창안),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일본 지명 중에서 우리 한자음대로 읽는 것이 친숙한 몇몇 예들에 대해서는 현지 발음에 따른 표기와 우리 한자음 표기를 둘 다 인정한다. (ㄷ)의 ‘북경’과 ‘베이징’, ‘동경’과 ‘도쿄’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부록>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

자 음			반모음		모 음	
국제 음성기호	한 글		국제 음성기호	한 글	국제 음성기호	한 글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p	ㅍ	ㅍ, 프				
b	ㅂ	브				
t	ㅌ	ㅌ, 트				
d	ㄷ	드				
k	ㅋ	ㄱ, 크			i	이
g	ㄱ	그			y	이 위
f	ㅍ	프			e	에
v	ㅂ	브			ɸ	외
θ	ㅌ	스			ɛ	에
ð	ㄷ	드			ɞ	앵
s	ㅌ	스			æ	외
z	ㅌ	즈			œ	윙
ʃ	시	슈, 시	j	이*	æ	애
ʒ	ㅌ	지	ɥ	위	a	아
ts	ㅌ	츠	w	오, 우*	ɑ	아
dz	ㅌ	즈			ã	앙
tʃ	ㅌ	치			ʌ	어
dʒ	ㅌ	지			ɔ	오
m	ㅁ	ㅁ			õ	옹
n	ㄴ	ㄴ			o	오
ɲ	니*	뉴			u	우
ŋ	ㅇ	ㅇ			ə**	어
l	ㄹ, ㄹㄹ	ㄹ			ə	어
r	ㄹ	르				
h	ㅎ	ㅎ				
ç	ㅎ	히				
x	ㅎ	흐				

<참고> 틀리기 쉬운 외래어 표기

원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accessory	액세서리	악세사리
ad lib	애드리브	애드립
barbecue	바비큐	바베큐
battery	배터리	빠떼리, 뺏데리, 밧데리
biscuit	비스킷	비스켓
blind	블라인드	브라인드
body	보디	바디
buffet(프)	뷔페	부페
business	비즈니스	비지니스
cake	케이크	케익, 케이
cardigan	카디건	가디건
catalog	카탈로그	카다로그, 가다록
centimeter	센티미터	센치미터
chocolate	초콜릿	초코렛, 초콜렛, 초컬릿, 초코렛
collection	컬렉션	콜렉션
color	컬러	칼라
cover	커버	카바
cunning	커닝	컨닝
contents	콘텐츠	컨텐츠
curtain	커튼	커텐
data	데이터	데이타
digital	디지털	디지털, 디지틀
encore(프)	앙코르	앵콜
enquête(프)	앙케트	앙케이트
fighting	파이팅	화이팅
flash	플래시	후레시, 후레쉬
flute	플루트	플룻, 플룻
fresh	프레시	프레쉬, 후레쉬, 후레시
frypan	프라이팬	후라이판, 후라이팬
gas range	가스레인지	가스렌지
giant	자이언트	자이안트, 자이언트
Hollywood	할리우드	할리웃, 헐리우트, 헐리웃
juice	주스	쥬스

원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Las Vegas	라스베이거스	라스베가스
makeup	메이크업	메이컵
mania	마니아	매니아
massage	마사지	맛사지
motor	모터	모타
network	네트워크	네트웍, 네트웜
nonsense	난센스	넌센스
nylon	나일론	나이론
pamphlet	팸플릿	팜플렛
panda	판다	팬더
panel	패널	판넬
placard	플래카드	프래카드, 플랭카드
plaza	플라자	프라자
radar	레이더	레이다
royal	로열	로얄
sash	새시	샤시, 샷슈, 샷시
sausage	소시지	소세지
set	세트	셋, 셋트, 셀
shutter	셔터	샷다, 샷따, 샷타
sofa	소파	쇼파
soup	수프	스프, 슌
special	스페셜	스페샬
staff	스태프	스텝, 스탠
sunglass	선글라스	썬그라스
supermarket	슈퍼마켓	수퍼마켓, 수퍼마켈, 슈퍼마켈
symbol	심볼	심볼
talent	탈런트	탈렌트
tape	테이프	테프, 테입, 테잎
total	토틀	토탈
workshop	워크숍	워크샵

[연습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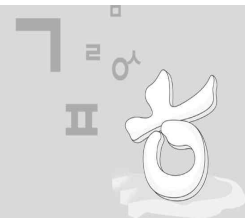
※ 다음에서 외래어 표기에 맞는 단어를 고르시오.

- [01] 카페/까페, 파리/빠리, 버스/빠스
- [02] 시스템/씨스템, 센터/쎄터, 취리히/쥼리히
- [03] 커피숍/커피쑈, 디스켓/디스켈, 코너킥/코너킵
- [04] 로봇/로보트, 카펫/카페트, 인터넷/인터네트
- [05] 테이프/테입/테잎, 케이크/케익/케익, 플루트/플룻/플룻
- [06] 매트리스/맷리스, 투르크메니스탄/투룩메니스탄
- [07] 넷/넛, 세트/셋/셀, 매트/맷
- [08] 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톡, 티베트/티벳, 아베크/아벡
- [09] 허브/헵, 개그/객
- [10] 파이팅/화이팅, 패밀리/훼미리, 프라이/후라이
- [11] 슈미트/시미트/쉬미트
- [12] 대시/대쉬, 플래시/플래쉬/후래쉬, 잉글리시/잉글리쉬, 리더십/리더쉽
- [13] 패션/패손, 쇼핑/샤핑, 셰익스피어/섹스피어
- [14] 브리지/브릿지, 스위치/스윗치, 스케치/스켓치, 케첩/켓첩/케참
- [15] 플라자/프라자, 클리닉/크리닉, 클럽/크럽, 살롱/싸롱
- [16] 센터/센타/쎄타, 디지털/디지탈/디지틀, 터미널/터미날
- [17] 콘서트/컨서트, 콘택트/컨택트, 콘텐츠/컨텐츠/칸텐츠
- [18] 컨디션/콘디션, 에어컨/에어콘, 컨트롤/콘트롤
- [19] 톱/탑, 솥/샵, 보디/바디
- [20] 컬러/칼라, 커버/카바, 허니/하니
- [21] 보트/보우트, 코트/코우드, 보너스/보우너스, 옐로/옐로우
- [22] 타워/타우어, 파워/파우어, 아이젠하워/아이젠하우어
- [23] 오사카/오오사카/오오사까, 뉴욕/뉴우요오크
- [24] 알코올/알콜, 아밀라아제/아밀라제, 알마아타/알마타
- [25] 주니어/쥬니어, 레저/레저, 찬스/찬스, 벤치/벤처
- [26] 로그인/로긴, 아울렛/아울렛/아우틀렛, 메이크업/메이컵
- [27] 가고시마/녹아도
- [28]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 [29] 향저우/향주
- [30] 공자/콩쯔, 맹자/멍쯔

♠ 정 답 ♠

- [01] 카페, 파리, 버스
- [02] 시스템, 센터, 취리히
- [03] 커피숍, 디스켓, 코너킥
- [04] 로봇, 카펫, 인터넷
- [05] 테이프, 케이크, 플루트
- [06] 매트리스, 투르크메니스탄
- [07] 네트, 세트, 매트
- [08] 블라디보스토크, 티베트, 아베크
- [09] 허브, 개그
- [10] 파이팅, 패밀리, 프라이
- [11] 슈미트
- [12] 대시, 플래시, 잉글리시, 리더십
- [13] 패션, 쇼핑, 셰익스피어
- [14] 브리지, 스위치, 스케치, 케첩
- [15] 플라자, 클리닉, 클럽, 살롱
- [16] 센터, 디지털, 터미널
- [17] 콘서트, 콘택트, 콘텐츠
- [18] 컨디션, 에어컨, 컨트롤
- [19] 톱, 솥, 보디
- [20] 컬러, 커버, 허니
- [21] 보트, 코트, 보너스, 옐로
- [22] 타워, 파워, 아이젠하워
- [23] 오사카, 뉴욕
- [24] 알코올, 아밀라아제, 알마아타
- [25] 주니어, 레저, 찬스, 벤처
- [26] 로그인, 아웃렛, 메이크업
- [27] 가고시마
- [28] 이토 히로부미
- [29] 항저우
- [30] 공자, 맹자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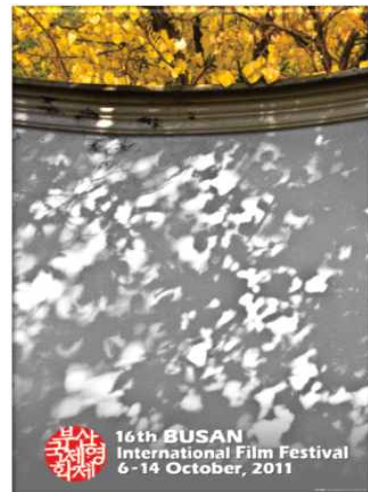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필요성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란 한글로 표기된 단어를 로마자로 적는 방법을 말한다.¹⁾ 그런데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보면 로마자 표기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외국인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러 한국에 왔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한다고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에는 ‘PUSAN’으로 쓰여 있었는데 터미널 사이트에는 아무리 찾아도 ‘PUSAN’이라는 행선지가 없는 것이었다. 친구에게 물어 보니 ‘Busan’으로 가라고 한다. 예매한 표에는 ‘Busan’이라고 찍혀 있다.



1) 흔히 a, b, c, d,를 ‘영문자’라고 부르고 ‘영문 표기’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로마자’로 하는 것이 옳다. a, b, c, d,는 영어의 표기 문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폴란드어, 체코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알바니아어, 터키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여러 언어가 a, b, c, d,와 같은 문자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a, b, c, d,라는 문자의 이름인 ‘로마자’로 쓴 것이다.

이 외국인은 부산에 가는 내내 자신이 정말 부산국제영화제를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부산’과 ‘부산시’를 다른 곳이라고 오해하는 외국인도 있다.²⁾ 이와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어를 적는 통일된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하다.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제정 경위

현행 표기법 이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1939년에 만들어진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을 기본으로 하였다.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해 1939년에 미국인 매쿰과 라이샤워가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방식이다. 그런데 이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의 발음을 영어 사용자의 귀에 들리는 대로 적은 표기법으로서 영어 사용자에게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따르기에는 매우 불편한 표기법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의 음운 대립을 로마자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어의 파열음은 ‘예사소리(평음)/거센소리(격음)/된소리(경음)’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즉 한국어에서 ‘달/탈/딸’은 다른 단어인데, ‘ㄷ/ㅌ/ㄸ’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은 이 세 가지 대립을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다달’은 ‘tadal’로 표기하면서 ‘달’은 ‘tal’, ‘탈’은 ‘t'al’로 표기해야 한다. 즉, ‘ㄷ’은 어두에서는 ‘t’로, 어중에서 유성음으로 소리 날 때는 ‘d’로 구분하면서 ‘ㄷ’과 ‘ㅌ’은 똑같은 ‘t’로 하되 ‘ㅌ’에 어갯점을 넣었을 뿐이었다. 이처럼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반드시 구별해야 할 ‘ㄷ’과 ‘ㅌ’의 구별은 확실히 하지 않으면서 구별할 필요가 없는 ‘다달’의 두 ‘ㄷ’(무성음과 유성음)에는 완전히 다른 기호를 부여하였다.

로마자 표기법은 1984년에 한차례 개정되었으나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을 근간으로 한 것이어서 비슷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1984년에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은 특히 다음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첫째는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특수 부호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반달표(˘: ö, ü)와 어갯점(: t', p', k', ch') 같은 특수 부호는 컴퓨터에서 입력하거나 검색하기가 불편하여 사람들이 사용을 꺼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특수 부호를 생략하고 나면 우리말의 중요한 대립을 구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로마자 표기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말에서 구분되지 않는 자음의 유무성을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도동’을 ‘Todong’으로 적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무성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므로 같은 ‘ㄷ’을 t와 d로 달리 적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2) 이와 같은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로마자 표기를 2011년 2월 24일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다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지금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자음을 국어의 언어 체계를 반영하여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로 구분하여 적으며, 표기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반달표나 어갯점과 같은 특수 부호를 쓰지 않는다.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원칙

3.1. 기본 원칙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소리와 원래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라’는 [신라]로 소리 나지 않고 [실라]로 소리가 난다. 그러므로 ‘Silla’로 적는다. ‘왕십리’ 역시 [왕십니]로 소리 나므로 발음대로 ‘Wangsimni’로 적어야 한다.

로마자 표기를 할 때 발음대로 적는 것은, 외국인이 가능하면 국어 발음과 가깝게 발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도로 표지판에 ‘왕십리’를 ‘Wangsipri’로 표기한다면, 외국인들은 이를 그대로 발음할 것이고, 그 발음은 우리가 알아듣기에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기본 원칙 2: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2000년 7월 개정되기 전 사용되던 ‘맥쿼리이사위 표기법’에는 반달표(^)와 어갯점(') 등의 특수 부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선 반달표(^)는 ‘ㄹ(δ)’와 ‘ㅡ(ũ)’ 등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부호가 포함된 표기는 전산으로 처리하기가 불편하여 오히려 잘못된 표기를 양산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예를 들어 ‘영’은 맥쿼리이사위 표기법에 따르면 ‘yöng’으로 적어야 한다. 그런데 반달표를 입력하기 어려워 반달표를 입력하지 않고 ‘yong’으로 적기도 하였다. ‘yong’이란 표기는 ‘용’으로 읽혀 ‘영’과 ‘용’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을왕’도 마찬가지이다. 맥쿼리이사위 표기법에 따르면 ‘을왕’은 ‘ŭlwang’으로 적어야 하는데 반달점을 표기하지 않은 ‘Ulwang’이 쓰이게 되면서 ‘을왕’과 ‘울왕’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그래서 2000년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맥쿼리이사위 표기법에서는 어갯점(')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표’은 ‘p’으로, ‘ㅌ’은 ‘t’으로, ‘ㅋ’은 ‘k’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ㅂ, ㄷ, ㄱ’은 음절의 첫소리로 올 때는 ‘p, t, k’로 모음 사이에서는 ‘b, d, g’로 적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 방식은 한국인의 언어

의식과 잘 맞지 않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가구’라는 단어는 개정되기 전의 로마자 표기에 따르면 ‘kagu’로 써야 했다. 같은 자음인 ‘ㄱ’을 환경에 따라(무성음인지 유성음인지에 따라) ‘k’와 ‘g’로 구별해서 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ㄱ’과 다른 음소인 ‘ㅋ’은 ‘k’에 어갯점(˙)만 더하여 ‘k’과 같이 표기하였다. 이에 표기법을 개정하면서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ㅍ, ㅌ, ㅋ’에 사용되던 어갯점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ㅍ, ㅌ, ㅋ’는 ‘p, t, k’로, ‘ㅂ, ㄷ, ㄱ’는 ‘b, d, g’로 표기한다.

그런데 위의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에서 ‘되도록’이라고 표현한 것은 붙임표(-)는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부호는 행정 구역 단위를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그 외에는 이름의 표기, 기타 필요한 곳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표기 일람: 모음과 자음의 표기

4.1. 모음

국어 모음은 다음과 같이 로마자로 표기한다.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ae	e	oe	wi

이중모음	ㅟ	ㅠ	ㅡ	ㅢ	ㅤ	ㅥ	ㅦ	ㅧ	ㅨ	ㅩ	ㅪ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이중모음은 단모음 표기에 ‘y’나 ‘w’를 결합하여 만든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ㅜ’를 ‘weo’가 아닌 ‘wo’로 적는다는 것이다. 다른 표기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표기의 간결성을 위해 ‘wo’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의 단위인 ‘원’은 ‘weon’으로 적지 않고 ‘won’으로 적는다.

로마자 표기법은 표준 발음법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ㅟ’는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희망’의 표준 발음은 [히망]이지만, ‘himang’으로 적지 않고 ‘huimang’으로 적는다. 모음 ‘ㅟ’는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데, 그것을 모두 표기에 반영하면 오히려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ui’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1) ㄱ. 강원 Gangwon, 원주 Wonju, 춘권 chungwon

ㅌ. 의성 Uiseong, 신의주 Sinuiju, 구의 Guui, 동의보감 Donguibogam

4.2. 자음

국어 자음의 로마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ㅂ	ㅍ
	g, k	kk	k	d, t	tt	t	b,p	pp	p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비음	ㄴ	ㅁ	ㅇ
	n	m	ng

유음	ㄹ
	r, l

‘ㄱ, ㄷ, ㅍ’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모음 앞’과 ‘자음 앞이나 어말’에 관한 규정이 ‘ㄱ, ㄷ, ㅍ’에만 있는 것은 우리말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소리가 될 수 있는 자음은 일곱 가지, 즉 ‘ㄱ, ㄴ, ㄷ, ㄹ, ㅁ, ㅂ, ㅇ’뿐이며, 이외의 다른 자음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위의 7자음 가운데 하나인 대표음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보복’은 ‘bobok’으로, ‘도덕’은 ‘dodeok’으로 적는다. 그리고 ‘부엌’의 어말 표기는 ‘ㄱ’이지만 발음이 [부억]이므로 ‘bueok’으로 적는다.

- (2) ㄱ. 보복 bobok, 도덕 dodeok
 부엌 bueok, 동녘 dongnyeok
 밖 bak
 ㄴ. 밥 bap, 법 beop
 잎 ip

‘낱, 낫, 낮, 낯’은 모두 [낱]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이들을 로마자로 표기하면 ‘nat’이 된다. ‘벚꽃’은 [번꼇]으로 소리 나므로 ‘boejkkoch’이 아니라 ‘beotkkot’으로 적는다. ‘있다’도 표기대로 적으면 ‘issda’로 적겠지만, ‘있’이 [읷]으로 소리 나므로 ‘itda’로 적는다.

- (3) ㄱ. 낫 nat, 걸기 geotgi
 ㄴ. 낫 nat, 못 mot, 송곳산 Songgotsan
 ㄷ. 낫 nat, 벚꽃 beotkkot
 ㄹ. 낫 nat, 좇다 jotda
 ㅁ. 낫 nat, 있다 itda

유음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이 겹쳐서 소리 나는 경우, 즉 앞 음절의 끝소리와 뒤 음절의 첫소리가 모두 ‘ㄹ’이면 ‘ll’로 적는다. 따라서 ‘나라’는 ‘nara’로 적으나, ‘달라’는 ‘dalla’로 적는다. ‘달나라’는 [달라라]로 소리 나므로 ‘dallara’로 적는다.

- (4) ㄱ. 나라 nara
 ㄴ. 달라 dalla
 ㄷ. 달나라 dallara

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실제

5.1. 음운 변화

5.1.1. 자음 동화

자음 두 개가 서로 연이어 발음될 때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한 음운이 또는 두 음운 모두가 바뀌는 현상을 ‘자음 동화’라고 한다. 자음 동화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우리말을 발음할 때 반드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화 현상이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이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우리말의 자음 동화는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ㄱ, ㄷ, ㅂ’은 ‘ㅇ,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바뀐다.

국민[궁민] gungmin/*gukmin
 백마[뱅마] Baengma/*Baekma
 단는다[단는다] danneunda/*datneunda
 갑문[감문] Gammun/*Gapmun

- ② ‘ㄹ’은 ‘ㅁ, ㅇ’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종로[종노] Jongno/*Jongro
삼례[삼네] Samnye/*Samrye

- ③ ‘ㄱ, ㅂ’ 뒤에 ‘ㄹ’이 오면 ‘ㄱ, ㅂ’은 ‘ㅇ, ㅁ’으로, ‘ㄹ’은 ‘ㄴ’으로 둘 다 바뀐다.

속리산[송니산] Songnisan/*Sokrisan
곡릉[공능] Gongneung/*Gokreung
왕십리[왕십니] Wangsimni/*Wangsipri

- ④ ‘ㄴ’ 다음에 ‘ㄹ’이 오면 ‘ㄴ’이 ‘ㄹ’로 바뀔 수도 있고, ‘ㄹ’이 ‘ㄴ’으로 바뀔 수도 있다.³⁾

신라[실라] Silla/*Sinra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Daegwanryeong
이원론[이원논] iwonnon/*iwollon

- ⑤ ‘ㄹ’ 다음에 ‘ㄴ’이 오면 ‘ㄴ’이 ‘ㄹ’로 바뀐다.

선릉[설릉] Seolleung/*Seonneung
별내[별래] Byeollae/*Byeolnae

5.1.2. 음의 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이때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 자음이 ‘ㄹ’이면 첨가된 ‘ㄴ’ 소리는 위의 자음 동화 ④에 의하여 ‘ㄹ’로 발음된다. 이렇게 첨가되는 ‘ㄴ’이나 ‘ㄹ’ 음은 표기에 반영한다.

(5) ㄱ. 학여울[향녀울] Hangnyeoul/*Hagyeoul, *Hakyeoul
 색연필[생년필] saengnyeopil/*saegyeonpil, *saekyeonpil
 ㄴ. 알약[알략] allyak/*aryak, *alyak
 술잎[술립] sollip/*sorip, *solip

3) 이원론, 임진란, 동원령, 생산량 등과 같이 한자어 뒤에 일음절의 한자어가 결합할 때 ‘ㄹ’이 ‘ㄴ’으로 소리가 바뀐다.

5.1.3. 구개음화

‘ㄷ’이나 ‘ㅌ’은 뒤에 ‘ㅣ’ 모음이 오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구개음 ‘ㄸ’이나 ‘ㅊ’으로 바뀐다. 이 구개음화 현상도 우리말의 표준 발음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 (6) ㄱ. 같이[가치] gachi/*gati
 ㄴ. 해돋이[해도지] haedoji/*haedodi

5.1.4. 거센소리화

‘ㄱ, ㄷ, ㅌ, ㅈ’가 ‘ㅎ’과 만나면 거센소리 ‘ㅋ, ㅌ, ㅊ, ㅌ’로 소리 나는데, 이 역시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표기에 반영한다. 따라서 ‘좋다’는 ‘jota’로 표기한다. 다만 명사에서 ‘ㄱ, ㄷ, ㅌ’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목호’는 ‘Muko’가 아닌 ‘Mukho’로 표기한다.

- (7) ㄱ. 좋다 jota/*johda
 ㄴ. 목호 Mukho/*Muko
 집현전 Jiphyeonjeon/*Jipyeonjeon

5.1.5. 된소리화

예외적으로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가령, ‘애국가’는 [애국까]로 소리 나는데, ‘가’가 [까]로 소리 나는 것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이러한 ‘된소리되기’는 불규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즉, ‘애국가’는 ‘Aegukkka’라고 적지 않고 ‘Aegukga’라고 적어야 한다.

- (7) ㄱ. 울산 Ulsan/*Ulssan
 ㄴ. 압구정 Apgujeong/*Apkkujeong

5.2. 불임표

‘세운’을 로마자로 ‘Seun’으로 적으면 ‘세운’뿐만 아니라 ‘슨’으로 읽을 수도 있어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Se-un’처럼 음절 사이에 불임표(-)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불임표(-)는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써야 한다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8) ㄱ. 세운 Seun/Se-un
 ㄴ. 중앙 Jungang/Jung-ang

5.3. 소문자와 대문자

고유 명사는 첫 글자만을 대문자로 적는 것(부산 Busan)이 원칙이다. 고유 명사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쓰거나(BUSAN) 음절의 첫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쓰거나(BuSan) 혹은 모두 소문자로 쓰는 것(busan)은 잘못이다. 고유 명사 이외의 경우에는 소문자로 적는다.

- (9) ㄱ. 부산 Busan/*BUSAN, *BuSan
 ㄴ. 전주 Jeonju/*JEONJU, *JeonJu

5.4. 인명

인명을 쓸 때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며,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한국 사람은 일본, 중국과 더불어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쓴다는 것을 아는 외국인들이 많으므로 굳이 서양의 방식을 따라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쓸 필요가 없다. 또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로마자로 성명을 적을 때는 반드시 성과 이름을 띄어 써야 한다. 그리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나리 Nari)이 원칙이지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나리 Na-ri)도 허용하고 있다.

- (10) ㄱ. 송나리 Song Nari(Song Na-ri)/*Nari Song, *SongNari
 ㄴ. 홍길동 Hong Gildong(Hong Gil-dong)/*Hong Gil Dong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사람의 이름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복남’은 [한봉남]으로 소리 나지만 ‘Han Boknam’으로 적는다. 이름은 음절 각각을 따로 읽었을 때의 소리대로 적는다.

- (11) ㄱ. 한복남 Han Boknam(Han Bok-nam)/*Han Bongnam
 ㄴ. 유빛나 Yu Bitna(Yu Bit-na)/*Yu Binna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사람들은 ‘성’의 표기를 혼란스러워한다. ‘이’에 해당하는 로마자 표기가 ‘i’인데도, 성씨 ‘이’를 ‘I’로 표기하지 않고 ‘Lee’로 표기하거나 ‘Yi’로 적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많은 책에서 ‘이순신’ 장군을 ‘Yi Sunsin’으로 쓰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5.5. 행정 구역명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행

정 구역 단위(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와 ‘가’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Chungcheongbuk-do’로 적는다. 이를 ‘Chungcheongbukdo’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Chungcheong-bukdo’, ‘Chungcheongbuk Province’라고 표기하는 것도 잘못이다.

- (12) ㄱ.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Chungcheongbukdo
 ㄴ. 의정부시 Uijeongbu-si/*Uijeongbusi
 ㄷ. 도봉구 Dobong-gu/*Dobonggu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왕리’는 [인왕니]로 발음되지만 ‘Inwangni’ 혹은 ‘Inwang-ni’라고 적지 않고 ‘Inwang-ri’라고 표기한다.

- (13) ㄱ. 인왕리 Inwang-ri/*Inwangni, *Inwang-ni
 ㄴ. 삼죽면 Samjuk-myeon/*Samjukmyeon, *Samjungmyeon

참고로 행정 구역 단위인 ‘도’와 섬을 의미하는 ‘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울릉도’의 ‘도’는 행정 구역 단위가 아닌 ‘섬’을 뜻하므로, ‘울릉도’를 표기할 때에는 붙임표를 쓰지 않아야 한다. 즉, ‘Ulleung-do’로 표기하지 않고 ‘Ulleungdo’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도’는 행정 구역 단위이므로 ‘Jeju-do’로 적는다.

- (14) ㄱ. 울릉도 Ulleungdo/*Ulleung-do
 ㄴ. 제주도 Jeju-do/*Jejudo

그리고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청주시’는 ‘Cheongju-si’로 표기하지만 ‘Cheongju’라고 써도 된다. ‘함평군’은 ‘Hampyeong’으로, 순창읍 ‘Sunchang’으로 쓸 수 있다.

5.6.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자연 지물명인 ‘남산’, ‘금강’ 등을 ‘Mt. Nam’, ‘Geum River’로 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Namsan’, ‘Geumgang’이라고 쓰면 ‘산’과 ‘강’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Mt.’와 ‘River’ 등을 통해 의미를 밝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 명사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표기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산’은 ‘남’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남산’ 전체가 고유 명사이고, ‘금강’은 ‘금’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금강’ 전체가 고유 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산’과 ‘금강’은 각각 ‘Namsan’, ‘Geumgang’으

로 표기해야 하며, 붙임표를 넣어 ‘Nam-san’, ‘Geum-gang’으로 표기해서도 안 된다.

- (15) ㄱ. 남산 Namsan/*Mt. Nam, *Nam-san
 ㄴ. 금강 Geumgang/*Geum River, *Geum-gang

이것은 문화재인 ‘경복궁, 안압지, 불국사, 독립문, 다보탑’ 등에도 적용된다. 이들은 ‘경복, 안압, 불국, 독립, 다보’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름 전체가 고유 명사이므로, ‘Gyeongbokgung, Anapji, Bulguksa, Dongnimmun, Dabotap’으로 표기해야 하며, 붙임표를 넣어 ‘Gyeongbok-gung, Anap-ji, Bulguk-sa, Dongnim-mun, Dabo-tap’ 등으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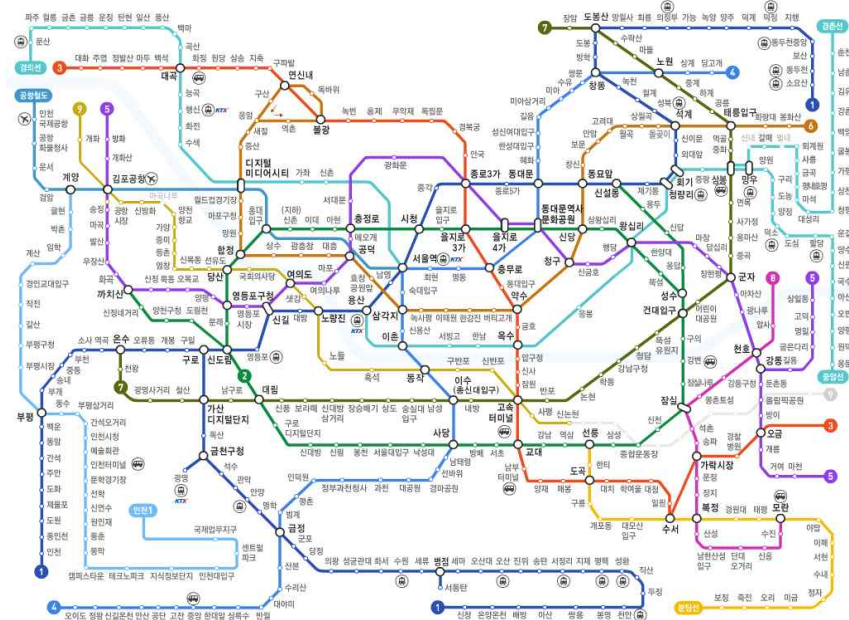
- (16) ㄱ. 경복궁 Gyeongbokgung/*Gyeongbok-gung
 ㄴ. 안압지 Anapji/*Anap-ji
 ㄷ. 불국사 Bulguksa/*Bulguk-sa
 ㄹ. 독립문 Dongnimmun/*Dongnim-mun
 ㅁ. 다보탑 Dabotap/*Dabo-tap

5.7. 인명, 회사명, 단체명

현실적으로 여권에 올린 인명이나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회사명이나 단체명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회사명과 단체명은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맞춰 표기를 수정할 경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삼성, 현대’ 등의 기업은 회사명을 각각 ‘Samsung, Hyundai’로 표기한다. 이를 규정에 맞게 표기하면 ‘Samseong, Hyeondae’가 될 것이다. 하지만 회사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바꾸면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노력, 경제적 비용이 든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그동안 써 온 로마자 표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을 로마자로 표기한다면 당연히 ‘로마자 표기법’을 잘 익혀 올바른 표기로 써야 할 것이다.

[연습 문제]

1. 다음은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다음 역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해 보세요.



- | | | |
|------------|----------|-----------|
| [01] 의정부 | [02] 여의도 | [03] 백석 |
| [04] 뚝섬 | [05] 답십리 | [06] 신림 |
| [07] 학여울 | [08] 선릉 | [09] 태릉 |
| [10] 일원 | [11] 둔촌동 | [12] 목동 |
| [13] 종로 3가 | [14] 을지로 | [15] 몽촌토성 |
| [16] 광흥창 | | |

2. 다음은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로마자로 표기해 보세요.

- | | | |
|----------|----------|-----------|
| [01] 한글 | [02] 한복 | [03] 태권도 |
| [04] 아리랑 | [05] 제주도 | [06] 독도 |
| [07] 한라산 | [08] 속리산 | [09] 무량수전 |
| [10] 석굴암 | [11] 동대문 | [12] 광화문 |
| [13] 경복궁 | [14] 창덕궁 | [15] 불국사 |
| [16] 화엄사 | [17] 김치 | [18] 비빔밥 |
| [19] 불고기 | [20] 떡볶이 | |

♠ 정 답 ♠

1.

- | | |
|---------------------------|--------------------------|
| [01] 의정부 Uijeongbu | [02] 여의도 Yeouido |
| [03] 백석 Baekseok | [04] 뚝섬 Ttukseom |
| [05] 답십리 Dapsimni | [06] 신림 Sillim |
| [07] 학여울 Hangnyeoul | [08] 선릉 Seolleung |
| [09] 태릉 Taereung | [10] 일원 Irwon |
| [11] 둔촌동 Dunchon-dong | [12] 목동 Mok-dong |
| [13] 종로 3가 Jongno 3-ga | [14] 을지로 Euljiro |
| [15] 몽촌토성 Mongchontoseong | [16] 광흥창 Gwangheungcha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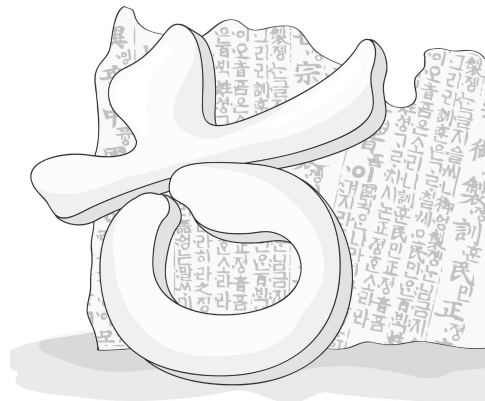
2.

- | | |
|------------------------------|------------------------|
| [01] 한글 Hangeul | [02] 한복 hanbok |
| [03] 태권도 taegwondo/taekwondo | [04] 아리랑 arirang |
| [05] 제주도 Jeju-do | [06] 독도 Dokdo |
| [07] 한라산 Hallasan | [08] 속리산 Songnisan |
| [09] 무량수전 Muryangsujeon | [10] 석굴암 Seokguram |
| [11] 동대문 Dongdaemun | [12] 광화문 Gwanghwamun |
| [13] 경복궁 Gyeongbokgung | [14] 창덕궁 Changdeokgung |
| [15] 불국사 Bulguksa | [16] 화엄사 Hwaeomsa |
| [17] 김치 gimchi/kimchi | [18] 비빔밥 bibimbap |
| [19] 불고기 bulgogi | [20] 떡볶이 tteokbokki |

※ ‘태권도’와 ‘김치’는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taegwondo’와 ‘gimchi’로 적는 것이 맞으나, ‘taekwondo’, ‘kimchi’로 많이 쓰이므로 이를 인정한다.

제2부 윤택한 국어 생활

1. 문장 바로 쓰기 | 135
2. 학교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 153
3. 학교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 161
4. 훈민정음의 이해 | 175
5. 협력적 의사소통 | 201



문장 바로 쓰기



좋은 문장의 지향점

좋은 문장이라면 모름지기 ‘반듯함’, ‘명료함’, ‘간결함’, ‘편안함’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첫째 마당: 반듯함

1. 목적과 대상에 맞게
2. 알차고 합리적으로: 충실하고 정확하게 하기, 합리적으로 하기, 균형 맞추기.
3. 통일성 있게: 내용에 맞는 제목 달기, 문장 간·문단 간의 긴밀도 높이기, 접속 부사 잘쓰기.
4. 일관되게
5. 문법 지키며: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이루기, 접속에서 부당한 공유 피하기, 조사·어미 잘 고르기, 사동·피동 표현 가려 하기.
6. 어문 규정 지키고: 어문 규정 따르기, 수 표현법 지키기, 표준 화법 지키기, ‘국어 기본법’ 지키기.
7. 마무리 잘 짓고

◆ 둘째 마당: 명료함

8. 명료하게: 의미 뚜렷이 하기, 지시어 명확히 하기, 어순 적절히 하기, 접속 부사 오·남용하지 않기, 지나친 생략 하지 않기.
9. 단어 선택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 찾기, 동음어·다의어 피하기, 같은 말뜻 겹친 말 피하기, 쉬운 말과 순화어 쓰기, 차별어 피하기.

◆ 셋째 마당: 간결함

10. 간결하게: 조사 활용하기, 어미 활용하기, 해당 단어 찾아 쓰기, 불필요한 성분 생략하기, 되풀이되는 말 줄여 쓰기, 문장 길이 알맞게 하기.

◆ 넷째 마당: 편안함

11. **편안하게:** 편하게 하기, 자연스럽게 하기, 상투적으로 하지 않기

◆ 첫째 마당: 반듯함

1. 목적과 대상에 맞게

글을 쓸 때 그 글을 읽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일은 글쓰기의 목적을 정하는 일과 함께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목적과 대상에 맞는 어휘와 문체를 구사하고, 대상에 맞는 자료를 제시할 때 그 글은 ‘대상 부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 | |
|-------------------------------|---------------------|
| (1) <u>열 받은</u> 직원들 | (2) <u>‘왕따’</u> 당하는 |
| (3) <u>일개</u> 학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 |

2. 알차고 합리적으로

글은 내용이 충실하고 정확하며 분명하여야 한다.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의견, 정보, 지식, 느낌, 관념 등 독자가 ‘얻을 것’이 충분히 들어 있고, 그 내용이 ‘활용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장이 정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표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하기

<운전자 여러분!>

-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합시다.

착용시 사망률 22. 8%, 부상률 16-18% 감소

-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맙시다.

착용시 사망률 22. 8%, 부상률 16-18% 감소

나. 합리적으로 하기

- | | |
|--|--------------------------|
| (1) 하산할 때에는 쓰레기를 <u>되가져</u> 갑니다. | (2) 즐거운 하루 <u>되</u> 십시오. |
|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u>재산목록</u> 을 작성하여야 한다. | |

다. 균형 맞추기

- (1) 기념관, 조형물, 거리 명칭, 역사 교육 등을 통해
- (2) 출제자는 출제 문제와 정답표를 봉합 봉인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 (3)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는 농민은 10%, 한라봉 등 품종 갱신 14%, 점차적으로 비가림 재배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0%이다.
- (4) 대학생, 중년층, 건강한 전문 직업인의 각 그룹 간에 경험하는 일상 문제 중 공통적인 것은 물건의 정리 정돈이 안 되어 있을 때, 외모, 과도한 업무량 등이었다.

3. 통일성 있게

‘통일성’ 있는 글이란 한 가지의 중심 내용을 논리적으로 나타낸 글이다. 통일성이 없이 짜임새가 엉성한 글은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한다. 특히 본문과 제목 간의 유관성, 문장 간 통일성을 이루려면 문장 간·문단 간의 긴밀성, 접속 부사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 내용에 맞는 제목 달기

<여성 복지 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전화 번호	소재지
미혼모 시설	○○○	○○○	○○○
가정폭력 상담소	○○○	○○○	○○○
성폭력 상담소	○○○	○○○	○○○

나. 문장 간·문단 간의 긴밀도 높이기

참가비를 내신 분은 명찰을 준비하여 드리고 심포지엄, 강좌 및 자유 연제에 참석하실 수 있으며 점심, 만찬이 제공됩니다. 명찰 케이스 속에 식권이 삽입되어 있고 식사 시 이 식권을 호텔 직원에게 제시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접속 부사 잘 쓰기

- (1) ...소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2) 노인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만성 질환에 걸리게 되므로, 신체적·심리적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무력감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절망케 하여

4. 일관되게

‘일관성’이란 글의 태도나 필자의 관점이 전체를 꿰뚫는 흐름을 유지하는 특성을 말한다. 대부분의 글은 문단 내부의 관점이나 태도 면에서 일관성 유지를 잘하고 있다. 다만, 문장 표현에서 사소하나마 일관성을 깨는 예가 보인다.

- (1) 응시자는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함.
- (2)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5. 문법 지키며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을 이루게 하고, 부당한 공유를 피하며, 조사와 어미를 제대로 고르며 사동·피동 표현을 바로 하는 것 등은 문법을 잘 지키는 구체적인 예다. 내용을 담아 단어나 문장을 다듬는 과정에서 우리말 문법의 규칙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가.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이루기

- (1) 본 연구의 목적은 비만 여고생의 섭식 행동을 알아보고 그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비만 여고생을 위한 건강 교육과 상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일부 시민들은 복조리를 나눠 주는 것은 우리 고유 풍습이 아닌데도 행정 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 (3) Herman은 음악의 치료 효과는 ㉠ 음악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준다. ㉡ 내적 갈등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 (4) ...과 거래한 사실이 입증하는 판매장
- (5) 최근 소송대리인이 관련 대여금 사건을 진행 중
- (6) 이미 배당금을 찾아갔다는 말을 하여 사건을 추적하여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 (7) 뇌졸중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첫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며
- (8) 얼어 있는 육류는 조리하기 전에 완전히 해동한 후 조리한다.

나. 접속에서 부당한 공유 피하기

- (1) 애국심 고취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2) 짧은 시간과 경비 때문에
- (3)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 (4) 탈의실 신발장 정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사용 중인 신발은 개인 보관이나 헬스장으로 연락 바랍니다.
- (5) 경찰은 ... 개방해 학교 폭력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 (6) 학생을 보호 또는 교육하기 위하여 (7) 감면율 및 감면 기간을 축소함.

다. 조사어미 잘 고르기

- | | |
|---|------------------------------|
| (1) 전항의 규정 <u>에</u> 위반한 행위 | (2) 배우자 <u>에</u>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
| (3) 유구한 역사와 전통 <u>에</u> 빛나는 | (4) 누구든지 ...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
| (5) ... <u>에</u>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
| (6) 그는 매우 천천히 <u>작업을</u> 했고 <u>그의</u>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 |
| (7) 그는 늘 왼손을 주로 쓰려고 <u>했으나</u> 이는 그에게 익숙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

라. 사동·피동 표현 가려 하기

<1> 사동법 바로 쓰기

- | | |
|--|-------------------------------|
| (1)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 (2)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 |
| (3) 불공정성을 <u>시정시키기</u> 위한 법률 | (4) 어린이들이 <u>연결시켜도</u> 안전합니다. |
| (5) 환경과 디자인을 <u>접목시켜</u> | |
| (6) 첫째 ... 둘째, IT강국의 이미지를 <u>부각시켜</u> 국가 이미지를 한껏 <u>제고시키고</u> , 셋째, ... 스포츠 산업을 <u>육성시키고</u> , 넷째, <u>10개의 개최 도시를 세계화시키는</u> 기회로 활용하며, | |

<2> 피동법 바로 쓰기

- | | |
|---|---|
| (1) 현실 타개를 위한 적극적 <u>실천 방안</u> 이 강구되어야 한다. | |
| (2) 어린이의 <u>사고에 제약이 주어질수록</u> 합리적 탐색과 부적당한 탐색 영역의 구별이 어렵게 된다. | |
| (3) <u>건강은</u> 인간의 기본권 이상으로 <u>고려되어지고</u> 있어 | |
| (4) 둘로 <u>나뉘어지는</u> 물건 | (5) 문이 <u>꼭 닫혀져서</u> 잘 <u>열려지지</u> 않는다. |
| (6) 글씨가 잘 <u>쓰여지지</u> 않고 | (7) 잘 <u>짜여진</u> 글을 읽고 |
| (8) 이러한 일은 <u>학습되어지는</u> 것이다. | |

6. 어문 규정 지키고

글을 쓸 때에는, 국민의 어문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여 정부 이름으로 고시한 어문 규정을 충실히 잘 따라야 한다. 글 중에는 표기,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 등이 보편적인 어문 규정에서 벗어나는 예가 보인다.

가. 어문 규정 따르기

<1>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 지키기

- | | |
|---------------------------------|-----------------------------|
| (1) 첫걸음을 <u>내딛었다</u> . | (2) 탈곡하는 <u>싯집</u> |
| (3) 이 자리를 <u>빌어</u> 감사의 말씀을.... | (4) <u>세째</u> 아이부터 지원된다. |
| (5) 창립 <u>첫돌</u> 기념 행사 | (6) 정답을 정확히 <u>맞추었다</u> . |
| (7) 투표에 <u>붙이는</u> 안건 | (8) 그가 <u>생각했는</u> 내용을 확인하여 |

<2> 띄어쓰기 지키기

- | | | | | |
|---------------|-----------|-----------|-----------|----------|
| (1) 갯스물에 | (2) 대한 민국 | (3) 덧 씌우는 | (4) 돌연 변이 | (5) 이 때 |
| (6) 이틀 간 | (7) 전세계 | (8) 제 자리 | (9) 틀 니 | (10) 한 입 |
| (11) 표현과 이해요소 | (12) 헨리4세 | | | |

<3> 문장 부호 사용법 지키기

(가) 따옴표와 반점(쉼표)

- | | |
|--|-------------------------|
| (1)... <u>숲</u> 을 온대림이라고 한다. | (2)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제목을 달자. |
| (3) 춘원이 무정을 발표했다.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5) ①우리의 창의를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②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③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④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 |

(나) 쌍점과 온점(마침표)

- | | |
|--------------------------|--------------------|
| (1) 때 : 2010. 5. 5 오후 2시 | (2) 곳 : 국립국어원 세미나실 |
|--------------------------|--------------------|

<4> 외래어 표기법 지키기

- | | | | |
|-------------|---------------|-----------|-------------|
| (1-1) 레저용품 | (1-2) 비전 | (2-1) 리더쉽 | (2-2) 파트너쉽 |
| (3-1) 써비스센터 | (3-2) 2,000씨씨 | (4-1) 케일 | (4-2) 녹음 테입 |

나. 수 표현법 지키기

- | | |
|----------------------|-----------------------|
| (1)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행위 | (2) 2 사람, 5살 때, 종이 3장 |
|----------------------|-----------------------|

다. 표준 화법 지키기

(1-1)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을 축하드리며

라. ‘국어 기본법’ 지키기

TV를 보면서 CD를 들었다.

7. 마무리 잘 짓고

‘완결성’은 의문의 여지가 남지 않는 상태의 성질을 가리킨다.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의문의 여지를 남기는 글은 완결성이 부족한 글이다.

- (1) 지급각서는 ... 제출한 입찰서로 같음 (2) 누구나 부르기 쉽고 ... 짧은 문구
 (3) 작성 요령... 참고하여 작성 (4) 신고 관련 서식은 ...에서 무료로 제공

◆ 둘째 마당: 명료함

8. 명료하게

한 문장이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명료함’이다. 한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되는 중의적 표현, 뚜렷한 뜻을 알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이나 지시어, 부적절한 어순, 지나친 생략은 피하여야 한다.

가. 의미 뚜렷이 하기

- (1)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느낌을 살려 인물이 한 말을 읽어 봅시다.

나. 지시어 명확히 하기

- (1) 이사한 집으로 찾아가는데 그것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2) 나는... 교실을 뛰어나왔다. 그렇지 않은 날은 골목에서 기다렸다.
 (3) 자식은 부모가 피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환자이며 고통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안락함을 증진하고 도움과 이해로써 감싸야 한다.

다. 어순 적절히 하기

- (1)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 (2) 불필요한 정보의 유출이 많았으며
-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품위 손상 행위를 한 자
- (4) ‘토지’는 박경리의 장편 대하소설로서, 1969년부터 집필하여 10년 넘게 총 15권으로 완성되었다.

라. 접속 부사 오남용하지 않기

- (1) 주제 및 발표자
- (2) ...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에 따라

마. 지나친 생략 하지 않기

- (1) 극의 완성도에 노력했다.
- (2) 위험 요인을 가능한 줄이도록 하자.
- (3) 심전도 검사에 이상이 있는 분
- (4) 날씨가 추워질 전망입니다.
- (5) 골프장 코스 안에서는 금연하고 어길 경우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 (6) 인간의 기본 욕구에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영적 욕구가 있다.
- (7) 서로 다른 컵
- (8) 소년은 송아지를 뜯기며
- (9) 우리가 발명한 금속 활자 인쇄
- (10) 나름대로 모색한 결과
- (11) 뿐만 아니라
- (12) 교수 능력 진단 및 개발을 위한 연수...

9. 단어 선택 적확하게

글 전체가 짜임새 있고 각 문장이 어법에 맞으며 문장을 이루는 단어가 적절하게 쓰여야, 독자가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적절한 단어 선택이야말로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셈이다.

가. 들어맞는 말 찾기

- (1) 파격적인 미술전의 관람 가격
- (2) 병에 걸릴 가능성
- (3) 난이도를 낮추어 쉬워진 문제
- (4) 추진하는 와중에
- (5-1) 그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5-2) 바람이 너무나 살갑게 느껴져
- (6) 만족도가 선진국에 버금간다.
- (7) 집집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 (8) 고객에게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말로 양해의 말씀을 전한 후

- (9)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0) 희망자는 접수하세요. //방문 접수
 (11) 국어과에서 ‘수준’의 개념을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및 학습 능력에 제한시키지
 않고
 (12)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13) 성공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 동음어·다의어 피하기

<1> 동음어 피하기

- (1) 다과(茶果/茶菓) (2) 방화한(放火-/防火-)
 (3) 수상한(授賞-/受賞-) (4) 유아(幼兒/乳兒)

<2> 다의어 피하기

- (1) 제913조 내지 제915조 (2)子是 父의 姓과 本을 따른다.

다. 같은 말·뜻 겹친 말 피하기

- (1) 타지에 게재한 같은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한 것을
 타지에 임의로 게재하거나 전재할 수 없다.
 (2) 자매결연을 맺고 (3) 기간 동안 (4) 매 순간마다 (5) 널리 선양하여
 (6) 애환과 기쁨 (7) 미리 예약한 (8) 스스로 자인하는 (9) 접수받은
 (10) 탄신일 (11) 현안 과제/현안 문제

라. 쉬운 말과 순화어 쓰기

- (1)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2) 기(既) 제시한 (3) 이에 기(基)한 배당 신청
 (4) 합격증을 교부하고 (5) 의당 동 등기는
 (6-1) ...의 검역은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6-2) 친족회가 행한 동의

마. 차별어 피하기

가정부/파출부: 가사 도우미	간호원: 간호사
결손 가정: 한부모 가정	귀머거리: 청각 장애인
노가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	미망인: (고인 ~의) 부인

미숙아: 이른둥이	백수: 취업 준비자, 구직자
병어리: 언어 장애인	월급쟁이: 월급 생활자
집사람: 아내	처녀 출전: 첫 출전
청소부: 환경미화원	학부형: 학부모
신용 불량자: 금융 채무 연체자/금융 채무 불이행자	
양심적 병역 거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에이즈 환자: 에이치아이브이(HIV) 보균자/감염자	
<기타>	
지도층 인사-달동네 사람	주요 대학-군소 대학
도회지-시골	웅고집(노년)-천방지축(청년)

◆ 셋째 마당: 간결함

10. 간결하게

간결한 문장이 독자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특히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와 점자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글이 어렵고 번잡할 때 조사, 어미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

가. 조사 활용하기

- | | |
|--|--------------------------|
| (1) 사유로 인하여 | (2) 연락을 받은 때로부터 |
| (3) 그 <u>안건에 관하여</u> 는 관심 없다. (4-1) 그의 <u>주장에 대해서는</u> 부인하지 않는다. | |
| (4-2) 교육청은...건강에 이상이 있는 <u>학생에 대해</u> 별도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 |
| (4-3) 이 시기의 어린이는... <u>참가에 대한</u> 만족을 얻는다. | |
| (5-1) 어느 <u>행위에 있어서</u> ...를 정한 때에는 | |
| (5-2) <u>유아기에 있어서도</u> 욕구가 충족될 때 부모에 대한 신뢰를 배운다. | |
| (6) 참가자 <u>에 한하여</u> | (7) 물건이라 함은 ...자연력을 말한다. |

나. 어미 활용하기

- | | |
|---|----------------------------|
| (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2) 쌍방이 <u>수인인 경우에는</u> |
| (3) ...을 <u>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u> | (4) 잉여가 있으면 ... 부족이 있으면 .. |
| (5) 미성년자가 <u>혼인을 할 때에는</u>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

- (6) 채무가 있다고 해도 (7) 세수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8)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어머니

다. 해당 단어 찾아 쓰기

- (1) 근육의 힘이 증가하고 (2) 짧은 기간 동안에 발전하여
(3) 출제 문제 수를 확인하여 (4) 학교로 복귀할 것으로
(5) 때로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6)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7) 우편으로 보낸다. (8) 학교에서의 생활을 관찰하여
(9) 개개의 학생에 대해 상담하여 (10) 뜨거운 태양 아래

라. 불필요한 성분은 생략하기

- (1) 기왕에 소급하지 않을 (2-1) 관할구역 내에서
(2-2)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한다. (2-3) 그 범위 내에서
(3) 제52조의 규정은 (4) 네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5) 연락은 하였지만 전달이 안 되어 (6-1) 여러분들
(6-2) 우리들, 너희들 (6-3) 청중들, 대중들, 언중들

마. 되풀이되는 말 줄여 쓰기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어린이와 청년기의 학생은 학교에서 그것이 악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는 외상, 인플루엔자, 폐렴, 간염, 영양 부족, 치아 질환, 중양 등이 있으며 중·고등학생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에는 음주, 약물 중독, 외상, 자살, 폭행, 성 접촉으로 인한 질병, 운동으로 인한 외상, 임신, 정신 장애와 정서장애가 있다.

바. 문장 길이 알맞게 하기

[대한민국 헌법 전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公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등

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 10月 29日

◆ 넷째 마당: 편안함

11. 편안하게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조리 있게 엮어, 여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가는 일이다. 이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쉽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다른 사람이 별 어려움이 없이 이해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직역 투 표현, 알기 어려운 표현, 상투적 표현 등으로 독자가 편안하게 읽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남겨서는 안 된다.

가. 편하게 하기

- | | |
|---|--|
| (1-1) ...이 ...연주회를 <u>갖게</u> 된 | (1-2) ...그 개막 행사를 <u>갖게</u> 된 |
| (1-3) ... 해단식을 <u>갖게</u> 된 것 | (1-4) ...가 우리에게 어떤 <u>의미</u> 를 <u>갖는</u> 지 |
| (1-5)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1-6) 공무원의 <u>신분</u> 을 <u>갖지는</u> 않았으나 |
| (2) <u>소속단체</u> 에 대한 이해관계 | (3) <u>보다</u>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
| (4-1) 어려운 <u>여건</u> 에도 불구하고. | (4-2) 열악한 <u>환경</u> 에도 불구하고 공을 세운 |
| (5) ...을 확고히 <u>하는</u> 데 <u>있어</u> 선행될 | (6) 평화의 <u>손길</u> 을 필요로 하고 있다. |
| (7) 재창조의 중요성은 <u>아무리</u>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
| (8) 이 <u>00</u> 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 (9) 민원창구에서 <u>이루어지는</u> 업무 |
| (10) <u>한</u>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 (11) 전망 <u>있는</u> 교과로의 <u>변화</u> 를 |
| (12)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 |
| (13)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 |
| (14) <u>창조력</u> 배양에 의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하며 | |
| (15) 국립극장에서의 공연 행사 | |
| (16) 청소년들이 뽑아내게 될 <u>영화</u> 사랑에의 열정 | |
| (17) 관계 부처와의 <u>협의</u> 를 거쳐 | |
| (18) <u>여가시간</u> 확대가 단순한 삶의 질 제고 차원을 넘어 | |

나. 자연스럽게 하기

- | | |
|----------------------|-------------------|
| (1)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 (2)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
| (3) 청산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 (4) 주민들에 대한 치료 계획 |
| (5)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 | |

다. 상투적으로 하지 않기

- | |
|---|
| (1-1)...의 가치를 <u>가장 소중히 여기는</u> 우리는 ...을 위해 |
| (1-2) 가을은 <u>일년 중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u> 계절일 뿐만 아니라 |
| (1-3) 가을의 정취가 <u>가장 짙게 배여 있는</u> 남산에서 |
| (1-4) ...이번 성공의 <u>가장 큰 주역인</u> |
| (2) <u>면면히 이어져 내려 온</u> 우리 조상들의 <u>고결한 숨결과</u> <u>체취가 스며든</u> |
| (3) 사후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u>만전을 기한다.</u> |
| (4) 음악회에 가고 싶고 싫어도... 음악회장이나 극장 <u>등의 무수히 많은</u> <u>턱들과</u> <u>계단</u> 때문에 |
| (5) ...임을 <u>세계만방에</u> 알렸을 뿐만 아니라, |
| (6) ...의 관심과 참여가 ... <u>성공의 절대적인</u> <u>관건이</u> 될 것이라고 |
| (7) ...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발전에 <u>큰</u> <u>일익을</u> 담당하게 되길 |
| (8-1) ...계 <u>전반에 걸쳐</u> <u>탁월한 영향력으로</u> |
| (8-2) ...학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u>탁월한</u> 활동을 이어가면서 ...의 발전에 기여해... |
| (9) ...은 이러한 우리의 <u>아름다운 고전에</u> <u>OOO 선생님의 아름다운 곡과</u> <u>OOO 선생님의 주옥 같은 노랫말을</u> <u>덧붙인</u> ...한국적인 정서가 <u>빼곡히 담겨져</u> <u>있는</u> 작품이다. |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원(2009),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이트.
- 국립국어연구원(1999, 2000),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 국립국어연구원(2003), 국어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 권재일(2005), 바른 문장 쓰기(1),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김문오(2003),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 김문오(2005), 좋은 글의 요건, 국립국어원.
- 김문오(2005), 공문서 바로 쓰기(3),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김수현(2005), 바른 문장 쓰기(3),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김형배(2009), 우리말 다듬기. 국어 과정, 국회사무처.
- 김희진(2003), 교과서 문장 바로 쓰기,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강의 자료)
- 김희진(2008), 공문서의 모습과 보완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 김희진(2010), 의료인의 우리글 바로 쓰기, 출판문화원 (근간)
- 김희진·박용찬·정희창(2007), 방송 뉴스의 어휘 선택, 한국방송기자클럽.
- 남영신(2009), 공공 언어, 국어 과정, 국회사무처.
- 박경현·민현식 외(2003) 고등학교 작문, 금성출판사.
- 박창원(2001), 좋은 글과 문장의 연결,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연구원.
- 법제처(2009),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 안효경(2005), 공문서 바로 쓰기(1),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유하라(2009), 문장 바로 쓰기,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임동훈(2005), 바른 문장 쓰기(2),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정부 각 기관·단체의 누리집.
- 정호성(2001), 한글 맞춤법,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최용기(2005), 국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용례 풀이 참고 자료>

◆ 첫째 마당: 반듯함

1. **목적과 대상에 맞게:** (1)성난, 격분한, 흥분한. (2)(집단)따돌림당하는 (3)‘어떤’ 또는 ‘보잘것없는 한 날’
2. **알차고 합리적으로//** 가. 첫째 항목과 둘째 항목의 통계가 같을뿐더러 휴대 전화를 ‘착용’한다고 표현하여 위 항목을 그대로 복사하였다는 의심을 품게 한다. 나. (1)가 저갑시다/치웁시다. (2)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3)재산의 목록 다. (1) 기념관 건립, 조형물 설치, 거리 명칭 부여, 역사 교육 (2) 출제지(/문제지)와 정답지 (3)...(응답한 농민 중) ‘...을 줄이겠다’가 10%, ‘...품종을 개량하겠다’가 14%, ‘...재배를 하겠다’가 (4) 물건이 정리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음, 외모에 자신이 없음, 업무량이 과다함.
3. **통일성 있게//** 가. ‘현황’이라기보다는 ‘안내’에 가깝다. 현황이라면 각 기관의 수용 인원이나 상담 건 수, 기타 성과나 실적 등 좀 더 구체적인 각종 통계 수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나. 참가비를 내신 분께는 준비한 명찰을 드립니다. 이 명찰을 다셔야 심포지엄, 강좌와 자유 연제에 참석하실 수 있으며, 명찰갑 속에 든 식권을 호텔 식당 직원에게 제시하셔야 식당에 들어가 점심과 저녁을 잡수실 수 있습니다. 다. (1) ...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2)※ ‘그러므로’ 삭제.
4. **일관되게** (1) ...응시할 수 있습니다. (2)반환하지 아니합니다.
5. **문법 지키며//** 가. (1) 이 연구의 목적은 ...제공하는 데에 있다./...제공하는 데에 둔다. (2)일부 시민들은 복조리를 나눠 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3) Herman은 “... 내적 갈등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4)사실을 입증하는 (5)진행하던 중 (6)듣고... 추적하여 (7)...중 첫 번째를 차지하며/첫 번째로 많으며 (8) 연 육류는 완전히 녹인 후에 조리한다. 나. (1)애국심을 고취하고 (2)짧은 시간과 적은(/부족한) 경비/부족한 시간과 경비 (3)... 원인을 파악하고 (4)개인이 보관하거나 헬스장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학교 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해 주고, 학교 폭력 사건사고의 신고를 받기로 (6)보호하거나...(7)...을 인haft하고(/낮추고) 감면 기간을 단축함. 다. (1)을 (2)에게 (3)으로 (4)(그) 누구도/(아무도) (5)을 위반한 혼인이라도 (6)작업하여 (7)했는데 라. <1> (1)강화한다. (2)경감할 (3)시정하기 (4)연결해도 (5)접목해 (6)부각하여/개선하고/육성하고/개최 도시 열 곳을 널리 알리는 <2> (1)실천 방안을 강구하여야 (2)사고를 제약할수록 (3)건강을... 고려하고 (4)나누는/나누어지는 (5)단혀/달리어/열리지 (6)쓰이지 (7)짜인 (8)학습되는
6. **어문 규정 지키고//** 가. <1>(1)내디뎠다. (2)시점 (3)빌려 (4)셋째 (5)첫돌 (6)맞히었다./맞혔다. (7)부치는 (8)생각한/생각했던 <2> (1)갓 스물에 (2)대한민국 (3)덧씩우

는 (4)돌연변이 (5)이때 (6)이들간 (7)전 세계 (8)제자리 (9)틀니 (10)한입 (11)이해
 요소 (12)헨리 4세 <3> (가) (1)‘온대림’ (2)‘된장’// ‘고추장’ (3)‘무정’ (4)읽고(※첨
 표 삭제) (5)발전하며(※첨표 삭제) (나) (1)때: 2010. 5. 5. 오후 2시 (2)곳: 국립
 국어원 세미나실 <4> (1-1)레저용품 (1-2)비전 (2-1)리더십 (2-2)파트너십 (3-1)
 서비스센터 (3-2)시시 (4-1)케이크 (4-2)테이프 나. (1)제삼자 (2)두 사람, 다섯 살
 때, 종이 석 장 다. (1-1)감사합니다. (1-2)축하하며 라.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디
 (CD)를 들었다.

7. **마무리 잘 짓고** (1)갈음할 것/갈음하시기를 바랍니다. //(2)문구를 함을 원칙으로
 함./문구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작성할 것/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4)무료로
 제공하니 이용할 것./제공하오니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둘째 마당: 명료함

8. **명료하게**// 가. (1) 인권을 존중하겠으며,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인권을 존중
 하겠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별항으로) (2) 인물이 한 말을 느낌을
 살려 나. (1)그곳이 (2)그러지 (3)부모가/부모가 (안락하게 지내도록 보살피며) 이해
 로써... 다. (1)안심하고 자녀 (2)정보를 필요 이상 많이 유출하였으며 (3)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품위 손상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자 (4) 1969년부터 10년 넘게 집
 필하여 총 ...라. (1)주제와 발표자 (2)제572조부터 제575조까지 마. (1)완성도를 높
 이는 데에 (2)가능한 한 (3)검사 결과에 (4)추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5)이를 어길
 (6)신체적 욕구, 정서적 욕구, 사회적 욕구, 인지적 욕구, ...(7) ※‘크기와 모양이’
 보충 (8)송아지에게 풀을 뜯기며 (9)금속 활자 인쇄술을 (10)나/그/그들 나름대로
 (11)그뿐만 (12)교수 능력의 진단과 개발을
9. **단어 선택 정확하게**// 가. (1)요금 (2)우려/소지 (3)난도/곤란도 (4).. 중에/... 과정
 에/추진하는데 (5-1)참으로 (5-2)제법 (6)..과 맞먹는다. (7)분류 배출 (8)양해를 구
 하는 말씀을 (9)조언 (10)신청하세요./제출하세요.//방문 제출 (11)국한하지 않고
 (12)진위를 (13)본보기로/거울로/귀감으로 나. <1>(1)차와 과일/차와 과자 (2)불넌/
 불 막은 (3)상 준/상 받은 (4)어린이/젓먹이 <2> (1)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
 제913조 또는 제915조 (2)자녀는 다. (1)타지에 발표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
 지 않으며, 본지에 실었던 것을 재투고하거나... (2)결연하고/인연(을) 맺고 (3)기간
 (4)매 순간/순간마다 (5)선양하여/널리 떨쳐 (6)애환/슬픔과 기쁨 (7)예약한/미리 약
 속한 (8)자인하는/스스로 인정하는 (9)접수한 (10)탄신/탄일/탄생일 (11)현안 라.
 (1)입힌 (2)이미 (3)이에 따른/이를 바탕으로 한 (4)내주고/발급하고 (5)마땅히 이
 등기는 (6-1)하여야/해야 (6-2)한

◆ 셋째 마당: 간결함

10. **간결하게**// 가. (1)사유로 (2)때부터 (3)안건은 (4-1)주장은/주장을 (4-2)학생을 (4-3)참가에 (5-1)에서/와 관련하여 (5-2)유아기에도 (6)에게만 (7)물건이란 나. (1)부득이하면 (2)여럿이면 (3)하지 않아 (4)남으면, 부족하면 (5)혼인하려면 (6)있더라도 (7)세수하려고 (8)못하시는 다. (1)근력 (2)단기간 (3)문항 (4)복교할/복학할 (5)숨길 (6)오랫동안 (7)우송한다. (8)학교생활 (9)학생별로 (10)불별 라. (1)소급하지... (2-1)관할구역에서 (2-2)기간에 (2-3)범위에서 (3)제52조 (4)네 마디 (5)연락하였지만 전달되지 않아 (6-1)여러분 (6-2)우리, 너희 (6-3)청중, 대중, 언중 마. 초등학생의 경우 외상...종양 등이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음주... 정신 장애와 정서장애가 있다.

바.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로 **개정한다**.

우리는 3.1 운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의거의 이념을 계승하며,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 통일을 추구하며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한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자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게 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 넷째 마당: 편안함

11. **편안하게**// 가. (1-1)열게 (1-2)거행하게/치르게 (1-3)하게 (1-4)의미가 있는지 (1-5)...에게는(/...은) 신체의 자유가 있다. (1-6)신분은 아니었으나 (2)소속 단체의 (3)좀 더/더욱/더 (4-1)여건 속에서도 (4-2)환경 속에서도/환경을 무릅쓰고 (5)하는 데에 (6)손길이 필요하다./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7)재창조는 참으로 중요하다. (8)에게서 (9)추진하는/담당하는/하는 (10)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1)전망이 밝은 교과로 변화시키는 일을 (12)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13)...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돕고자 (14)창조력을 배양하여(/길러) 선진국에 향해 도약할 것을 (15)...에서 열린 (16)영화를 향한 열정 (17)...와 협의하여 (18)

여가 증대가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넘어/여가 증대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 (1)소유자에게 가치를 치워 달라고 (2)수요만큼 (3)여럿이면 (4)주민들을 치료할 계획 (5)의견을 교환할 것 다. (1-1)소중히 여기는/존중하는 ..(1-2)아름답고 풍성한 (1-3)질게 뻗 (1-4)주역인 (2)우리 조상의 숨결과 체취가 뻗 (3)노력한다. (4)등에 버티고 있는 많은 턱과 (5)세계에 널리 (6)..를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가 (7)일익/한몫/큰 몫 (8-1)..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8-2)활발한 (9)고전을 바탕으로 000 선생이 만든 노랫말에 000 선생이 곡을 붙인...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학교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1. 여는 글

지금까지 인류가 이루어 낸 문명의 근간에는 문자가 있었다. 문자로 기록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후속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승되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식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literate people)의 수도 늘어났다. 개인에게 독서와 작문은 지적인 성장인 동시에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시민들의 독서와 작문 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나 국가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모든 이들에게 독서와 작문 능력이 요구되면서 읽기와 쓰기는 학교 교육의 기본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문자 언어를 습득하는 글깨치기 활동으로 교육이 시작된다. 이렇게 독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인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개인의 독서 활동이나 학교의 독서 교육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독서가 시대의 영향을 받고 시대와 함께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독서는 인류가 수행한 활동 중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독서의 대상인 텍스트의 기본은 인류 문화유산의 정수인 책이다. 이런 이유로 개인의 독서 활동이나 독서 교육 모두 시대 변화를 초월해 항존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독서나 독서 교육은 각 시대에 따라서 독서의 주체나 목적은 물론 독서의 방법이나 대상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해 왔다. 심지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무엇을 독서로 볼 것인가?’ 하는 독서의 개념과 독서 분야를 탐구하는 기저 이론도 역사적인 변천을 계속해왔다(노명완, 2010). 특히 최근에는 시대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독서의 개념이나 독서 교육의 내용도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수준도 급격하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흔히 지식기반 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라 명명한다. 지식과 정보가 사회 운용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21세기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의 속도와 함께 생산되고 유통되는 지식의 양에 있다.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시기이다. 이런 이유로 학교 교육은 물론 사회 직무 활동의 성패도 빠르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지식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용(이해)하고 재생산(표현)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 즉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능력’의 핵심이 바로 독서이다. 독서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핵적인 인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독서나 문식

성을 ‘21세기 기능(21st century skills)’의 핵심으로 지정하였다(이순영, 2011: 13-16). 최근 교육의 목표로 강조되는 창의성도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지식을 습득하는데서 창출되며, 독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타인의 삶에 공감하며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주요 방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독서는 한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로부터 세계 각국이 독서를 교육의 근간으로 삼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독서 활동을 권장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위기론이 제기될 때마다 정책 입안자들과 교육 연구가들은 독서 교육에 주목해 왔다. 다만 과거에는 문맹 퇴치와 같은 기초 문식성 습득(예: 글깨치기, 읽기 방법을 배우는 것 Learning to read)나 교양 독서가 독서 교육의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읽고 정보를 학습(예: 학습을 위한 독서 Reading to Learn)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적극적인 독서 활동이나 사회의 전문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독서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요구하는 독서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요즘, 1) 독서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2) 이 사회가 요구하는 독서 활동이나 학교 독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

1. 현재 학교 독서교육의 문제는 무엇인가?
2. 독서를 많이 하면, 정말 공부를 잘 하게 되는가?
3. 우리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정말로 높은가?
4. 우리 학생들은 정말로 책을 잘 읽고 있는가?
5. 독서는 다 똑같은가? 미래 세대에게 적합한 독서는?
6. 그냥 독서만 하면 되는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가?
7. 중고등학생이 되면 독서하기가 어렵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9. 우리 학생들의 독서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 좋은 독자, 필자, 학습자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2. 21세기, 독서와 문식성의 재개념화 시기

21세기는 독서는 물론 언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소통하는 문식성(literacy)의 개념 자체가 새로이 규정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은 이런 맥락에서 21세기를 ‘문식성의 재

개념화(reconceptualization)’ 시기라고 명명한다(이순영, 2010).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독서/읽기’라는 용어가 급변하는 새 시대의 읽기 활동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다. 이들은 특히 최근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되는 다양한 양식(mode)이 혼재된 온라인 읽기 활동에 주목하고, 새로운 시대의 읽기 활동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용어를 제시하였다. 디지털 시대에 합당한 문식성에 대한 탐색은 1996년 제임스 지와 알렌 루크를 비롯한 열 명의 연구자들이 뉴런던그룹(New London Group)을 구성하면서 활성화된다. 이들은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문식성을 ‘신(新) 문식성’이라고 명명하고, 문자 언어 중심의 전통적인 문식성에서 벗어난 다중 문식성(multiliteracies)’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문식성의 재개념화 작업은 이후 학계를 넘어서서 사회 각 층에 영향을 주었다. 일례로 2002년 독일 베를린에서는 ‘21세기 문식성 정상회의(21st Century Literacy Summit)’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세계 각국의 행정가, 경영가, 교육연구자, 매체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문식성의 주요 요인으로 테크놀로지 문식성, 정보 문식성, 매체 문식성, 사회적 유능함과 책임감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학계와 사회의 변화는 문식성의 개념을 새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학습과 교육, 직무활동, 시민생활의 개념도 바꾸어 놓게 된다.

사회·문화·철학·경제·과학 분야의 변화 속에서 독서를 포함한 문식성의 개념이 재구성되면서, 독자의 위상과 역할도 크게 달라졌다. 21세기에 재개념화된 문식성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매체 환경의 변화’이다. 인쇄된 텍스트를 읽고 쓰는 활동을 의미하던 전통적인 문식성은 전자 시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집단 지성(예: Wiki), 방대한 사이버 공간의 정보를 탐색하는데 유용한 각종 검색 엔진, 관심 분야의 지식이 내게 오도록 만드는 RSS,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유비쿼터스 시스템과 같은 매체 환경의 변화를 맞게 된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나이나 성별, 학벌, 전문성의 제약 없이 자신의 글이나 이미지, 음향, 영상 등을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출판·공유할 수 있다.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산되고 유통되는 정보의 양·종류·질·속성도 크게 달라졌다(정현선, 2008). 전통적인 문식성이 한 편의 글을 꼼꼼하게 잘 이해하는 능력을 중시했다면, 디지털 사회에서는 방대한 양의 정보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선별하는 능력과 함께 복합 양식의 텍스트나 하이퍼텍스트 읽기 전략이 문식성의 한 요소가 되었다(조병영, 2012).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방식 전반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고(옥현진, 2008), 디지털 공간에서는 의사소통·오락·학습·공부일 간의 경계도 모호하다. 문식성 분야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독서 문화의 형성 기제와 매체 문식성의 특성에 주목하면서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독서 행위 자체는 향후 더욱 위축되리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둘째, ‘학교 밖 문식 활동’의 강화이다. 전통적인 문식성은 학교의 국어 교육, 특히 읽

기와 쓰기 활동 중심이었다. 반면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문식성은 학교나 교실 상황이라는 특정 공간 안에서 인쇄된 텍스트를 읽는 장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가가 늘어나고 디지털 환경이 마련되면서 개인의 문식 활동이나 학습은 학교 밖에서 더욱 풍성하고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 결과 학교 내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역할이 변화하였고,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는 문식 활동 측면에서 성인과 청소년, 아동 간의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지역 사회나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현실 공간 밖에 존재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식 정보의 산출과 소통이 이 시대의 중요한 문식 활동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공간은 일종의 ‘해방과 소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블로그, 메신저, 카페, 트위터 등을 통해 다양한 문식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실·학교·가정에서는 제한되었던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소통, 사회 참여, 다양한 정체성의 구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 문식성’의 부각이다. 21세기 문식성의 재개념화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상은 청소년이다. 전통적인 문식성은 텍스트를 많이, 더 높은 수준까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하였다. 대체로 어린 학생들은 문식성은 낮고, 어른들은 지식의 양이나 수준, 지식을 다루는 능력 모두 아이들에 비해 우월했다. 학생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른들에게 물었고, 어른들은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권위를 인정받았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변화된 문식 환경은 이를 모두 바꾸어 놓았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어른들이나 전문가들이 점유하던 지식은 만인에게 공개되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식성은 새로운 지식에 빠르게 잘 접근하여 정보를 선택하고 가공하고 창의적으로 재생산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식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지식과 기능이 필요하다. ‘디지털 원어민’인 청소년들은 전자 정보나 컴퓨터 문식성 측면에서 ‘디지털 이민자’나 ‘디지털 낙오자’인 성인들에 비해 우위에 있다. 그 결과 ‘문자 문화’에서 어른들이 갖고 있던 지식과 권위는 ‘전자 시대’에 합당한 디지털 문식성을 갖춘 청소년들에게 이양되었다. 청소년들은 가장 적극적인 정보통신 기기의 소비자로서 부각되고 있으면, 디지털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문자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경계되던 청소년 독자들의 문화나 목소리(voice)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시대의 청소년 독자들은 다양한 문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와 공간, 네트워킹을 획득했고, 여러 양식의 정보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고 소통하는 복합 양식 텍스트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

독서=학습, 내용 교과와 학습은 ‘독서’를 통해 가능

교과 독서는 말 그대로 개별 교과와 내용 학습과 연계된 독서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학, 과학, 사회, 가정, 예술 수업에서 교과 내용과 연관된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확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 독서는 교과별로 학습 수준이 심화되는 중등의 학습자에게 더욱 중요한 활동이다. 최근에는 교과 독서

와 교과 작문, 그리고 이를 합친 교과 문식성(content area literacy)이라는 용어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독서는 국어과에서 담당하는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해왔다. 이때 독서의 대상은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 작품인 경우가 많았고, 독서의 목적도 작품 감상이나 인성 함양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독서를 매우 편협하게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서는 근본적으로 텍스트에서 의미(지식)를 구성하는 고도의 사고 작용으로, 모든 독서 활동은 일종의 지식 습득(학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교과, 특히 내용 교과의 학습은 독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독서 능력은 곧 학습 능력이기 때문에 적절한 독서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습자는 학습 부진을 거쳐 학습 장애를 경험할 위험이 높아진다. 학교 교육에서 독서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독서가 각 교과 학습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력 때문이다.

21세기의 독서 교육 정책 : ‘교과 독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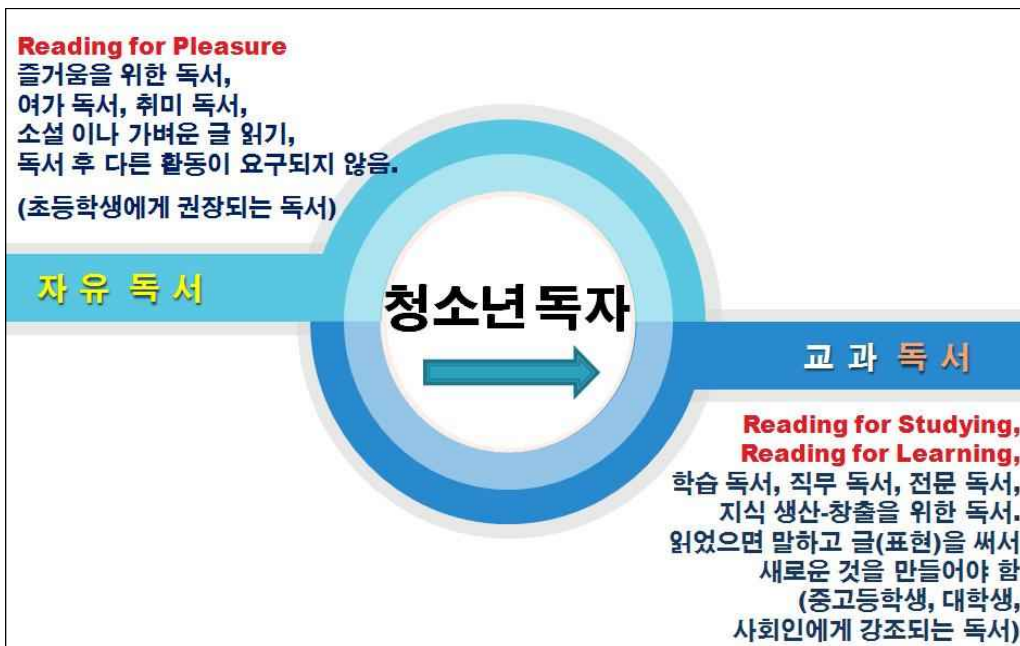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과 독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국제독서학회(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에서는 매년 전문가 설문(What's Hot?)을 실시하는데, 2011년에는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전원이 교과 독서를 주목해야 할 주요 주제로 선정했다.⁴⁾ 미국의 경우, 2010년 일종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CCSS(Common Core State Standards)이 고시되면서 교과 독서 전략(content area literacy strategies)이 독서 학계와 현장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주제와 양식(mode)의 텍스트를 읽고,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가공·수용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식으로 재생산하는 교과 독서 능력은 세계 각국에서 ‘21세기 기능(21st century skills)’으로 강조되고 있다(NCTE, 2008;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2; National Literacy Trust, 2010).

우리 정부도 교과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7월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정책에는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학교생활 속 독서교육 강화 : 정규 교과와 연계된 독서활동 활성화’, 즉 교과 독서이다.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정책의 핵심이 1) 국어교과에서는 독서 활동의 강화(실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확보와 독서 활동 지원), 2) 타 교과에서는 교과 내용(주제)과 연계하여 교과 독서·토론 활동 강조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독서 정책이 ‘교과 독서 중심의 수업 강화’이며, 이는 세계적인 독서 교육의 동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www.reading.org/general/publications/blog/BlogSinglePost/10-12-02/What_s_Hot_for_2011_Survey_Reveals_a_Focus_beyond_Primary_Grades.aspx

21세기 독서교육의 핵심 : ‘자유 독서’에서 ‘학습·교과 독서’로의 이양

교과 독서에 대한 관심은 독서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에 기반을 둔 것이다. 독서는 목적이나 대상이나 독서 활동의 수준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전통적으로 독자의 이미지는 여가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읽는 모습으로 형상화 되어 왔다. 이러한 독서는 일반적으로 독자의 즐거움과 만족(reading for pleasure)을 목적으로 하며, 여가 활동으로 수행되고, 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그래서 ‘취미 독서’나 ‘자유 독서’라 불린다. 독서의 대상은 독자가 좋아하는 책으로 대체로 평이한 내용의 문학 작품이 많다. 자유 독서는 보통 특별한 후속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성인들이 여가 시간에 수행하는 독서나 어린 독자들이 수행하는 독서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어린 독자들에게는 독서에 대한 동기 유발과 독서 습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 독서를 강조하게 된다.



반면 상위 학년의 독자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독서 활동이 강조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과 독서이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자유롭게 즐기는 것은 전 연령대의 학생들은 물론 성인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사회·교육적인 차원에서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유 독서에 있지 않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청소년 독자들에게 강조하는 독서의 핵심은 각 교과 내용을 공부하는 교과 독서나 학습 독서다. 교과 독서는 기본적으로 학습 독서이며, 전문 독서이며, 지식을 이해하고 다루고 생산하는 적극적인 독서 활동이다. 학교의 교과 독서 활동이 대학이나 사회생활에서는 전문 독서나 직무 독서로 이어진다. 텍스트도 문예문 보다는 사회·과학·예술 등 각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문

(informational text)이 일반적이다. 중등 학습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글을 폭넓게 읽고,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교과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독서=자유 독서’라는 왜곡된 인식을 재편하여, 자유 독서와 교과 독서의 균형을 확립하고 나아가 중등에서 요구되는 교과 독서 능력을 증진시키기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 독서, 교실에서 또 도서관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량껏 시작해 보기

각 교과 수업에서 독서 활동을 접목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교사와 학생들의 역량을 고려하여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교과 독서 활동은 ‘교과서 읽기 수업’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다. 전통적인 수업은 교사가 하나의 교과서를 설명하는 형식이었다. 교과 독서는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교과서 학습 후나 교과서와 병행해서 다양한 부가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교과 독서 활동을 처음 기획하는 교사는 자신의 교과 내용 중 교과 독서 활동을 수행하고 싶은 몇 개의 주제(themes, topics)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주제나 내용에 대해 어떠한 텍스트를 제공할 것인지를 계획하면 된다. 텍스트의 수준과 길이는 투입하는 시기(단원 마무리, 차시 수업 중, 과제 활동, 교과서와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각 교과의 교과서나 학년별 교육 내용과 연계된 도서 목록(예: 서울시/경기도교육청의 ‘독서수업(교육)’ 매뉴얼,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의 도서목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차시 단위로 짧은 텍스트를 제공해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확장하는 활동도 좋지만,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정보를 수합해 탐구활동을 수행하도록 기획하는 것도 좋다. 학생들이 각각의 텍스트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고, 이를 기존에 학습한 내용과 연계해서 이해하고, 읽은 내용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탐구 주제와 관련하여 산출물을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Reading - Talking - Writing/Presenting : 읽고 말하고 표현하기)은 모두 교과 독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와 협업을 통한 교과 독서 활동도 강조되고 있다. 교실 내에서 조각글을 활용하는 소박한 수준의 교과 독서에서 나아가 교과 담당 교사와 사서교사가 적극적으로 교과 독서용 텍스트를 선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교과 독서 활동을 통해 우리의 학습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들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뛰어난 독서 능력을 갖추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노명완(2010), 초등 저학년을 위한 문식성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42, 5-50.
- 이순영(2010),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독자와 비판적 읽기, 《독서연구》 24, 87-110..
- 이순영(2011), 읽기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국내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0, 311-340.
- 이순영(2011), 21세기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 미국의 ‘공통핵심기준’의 특성과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3, 7-35.
- 정현선(2008), 인터넷 문식성에 대한 심미적 접근으로서의 디지털 서사의 교육, 《문식성 교육연구》, 한국문화사, 254-275.
-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2008). NCTE position statement : The NCTE definition of 21st century literacies. Urbana, IL: NCTE.
- National Literacy Trust. (2010). NLT Policy : Literacy in the Spending Review.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2). *Reading First*.

학교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 차례 >

- | | |
|----------------|---------------|
| I. 화법 교육의 성격 | II. 화법 교육의 내용 |
| III. 화법 교육의 방법 | IV. 화법 교육의 교재 |
| V. 화법 교육의 평가 | |

I. 화법 교육의 성격

1. 국어과 교육과정과 화법 교육

○ 2009년 개정(고시 2012-14) 교육과정 ‘국어’ 과목 ‘듣기·말하기’ 영역 학년별 성취 기준

- [1-2학년군] 일상생활이나 학습 상황에서 바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귀 기울여 듣고 말하며, 고운 말, 바른말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3-4학년군] 일상생활이나 공식적인 듣기·말하기 상황에서 정확하게 듣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표현하며,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소통한다.
- [5-6학년군] 공식적인 소통 상황에서 듣기·말하기의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언어예절을 갖추고 다양한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 [7-9학년군] 개인적, 공식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듣기·말하기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상황에 대한 종합적 안목을 바탕으로 듣기·말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일상생활, 학습 상황, 개인적·공식적 상황과 같은 다양한 듣기·말하기 상황 설정
- 각 상황에서 요구되는 듣기·말하기 지식, 기능, 태도 반영

○ ‘화법과 작문’ 과목 목표

‘화법과 작문’은 화법과 작문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이나 학습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고 능력, 대인 관계 능력 등을 함양하고 개인적

인 소통 행위를 넘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이해하여 언어 공동체의 관습에 부합하는 언어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올바른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일상생활과 학습상황, 의사소통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을 두루 포괄
-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고 능력, 대인 관계 능력 등을 목표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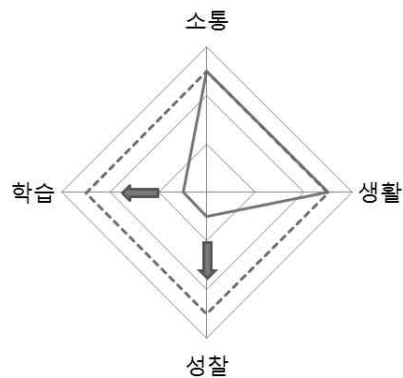
○ 교육과정의 화법 교육 지향성

- 다양한 지향성을 포괄적으로 기술: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언급;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을 두루 포괄; ‘국어 자료의 예’에 듣기·말하기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담화 유형을 포함;
- 기능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했던 제5차 교육과정 이래 몇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누적되고 체계화
- ‘기능’에 대한 강조(행동주의적 관점), ‘전략’에 대한 강조(인지심리학적 관점), ‘실제(담화 유형 또는 장르)’에 대한 강조(사회구성주의적 관점)

2. 화법 교육의 지향성

○ 화법 교육의 지향성: 소통, 성찰, 생활, 학습(민병곤, 2013)

- 소통과 성찰: 화법 교육의 목적을 표상하는 두 지향점
- (일상)생활과 학습: 화법의 상황을 대별하는 두 지향점
- 기존 화법 교육에 반영되어 있는 주된 지향성이 ‘소통’과 ‘생활’에 놓여 있음.
- ‘성찰’과 ‘학습’ 지향성을 화법 교육에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화법 교육의 지향성 위상도

① 소통 지향의 화법 교육

- 소통의 양식성과 합리성을 추구
- 양식성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화법의 구성 요소들을 작동하게 하는 규칙과 관습의 문제이고 합리성은 이상적 소통을 규정하는 원리의 문제
- 화법 교육에서는 우리 사회가 전승해 온 화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보다는 화법의 보편적 원리와 전략을 탐색하는 데 좀 더 주력해 옴.
- 이러한 접근은 언어적으로 관습화된 소통의 양식을 익힘으로써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음.

② 성찰 지향의 화법 교육

- 성찰은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기본 전제
- 국어과 교육과정의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 (예) ‘5-6학년군’ “(3) 설득하거나 주장하는 말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 “(8)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이나 결과를 예상하여 신중하게 말한다.”
- 성찰의 대상은 듣기·말하기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상황적, 사회·문화적 맥락 모두가 포함
- 담화 참여자가 사용하는 언어 자원, 언어 자원을 표현 및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그러한 화법 과정을 가능하게 하거나 강제하는 사회·문화적 배경 모두가 여기에 해당

③ 생활 지향의 화법 교육

- 공적·사적 생활 영역에서 개인과 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정보 및 정서의 소통과 관계 구축 등의 제반 국면을 포괄
- 생활 및 학습은 화법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화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맥락
- 생활이 화법의 목적을 추구하는 소통의 상황이나 맥락으로서 강조될 때 화법 교육의 지향성으로 간주. 실제로 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이나 사회생활이나 성인의 요구를 반영한 화법 교육의 많은 부분이 생활 영역에서의 화법을 주로 강조. 이 점에서 생활 지향성은 소통 지향성과 밀접하게 관련.
- 생활이라는 개념: 여가나 노동과의 관계, 개인적·집단적 생활, 공적·사적 생활과 같은 범주, 교육과의 대응 관계 등. 여기에서는 교육 상황과의 구별을 위한 개념으로 제한

④ 학습 지향의 화법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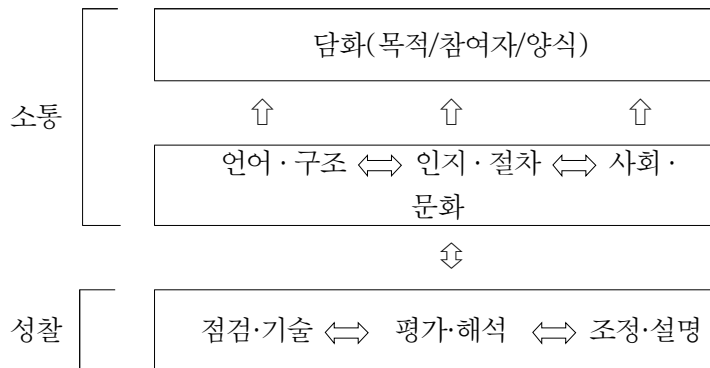
- 교수 학습 과정에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듣기·말하기
- 학습 지향의 화법 교육은 주로 학습을 위한 학생의 화법 활동에 초점

- 정보 전달을 위한 듣기·말하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음.
- 학습을 지향성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은 화법 교육의 범교과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뜻
- 화법이 도구 교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다른 교과 학습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듣기·말하기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 교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듣기·말하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마련이 관건

II. 화법 교육의 내용

1. 화법 교육의 내용 구조

○ 실제 중심의 화법 교육 내용 체계



[그림 2] 화법 교육에서 소통과 성찰의 내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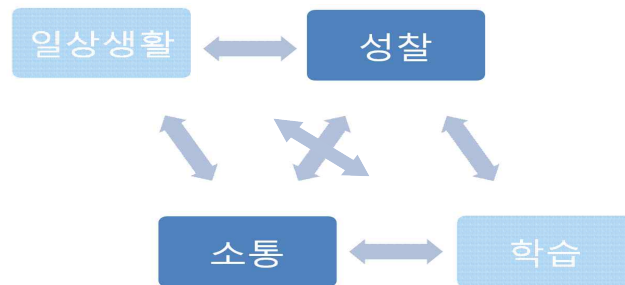
- 화법 능력을 음성 언어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참여하는 일 즉 음성 언어 소통 능력으로 정의
- 화법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다양한 담화 유형을 상정
- 담화의 유형화: 의사소통의 상황(일상생활/학습 상황), 목적(정보 중심/관계 중심 또는 정보 전달/설득/친교 및 정서 표현), 내용(다양한 화제), 참여자 또는 상호작용 방식(일대일/일대다/소집단/대집단), 양식(음성/문자/복합양식매체) 등을 고려
- 담화/텍스트: 언어적·인지적·사회적 행위가 수렴하는 의사소통적 사건 또는 적응적 행위 공간
- 의의: 화법 교육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담화의 언어·구조적 측면, 인지·절차적 측

- 면, 사회·문화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공
- 성찰: 대상(화법의 결과, 과정, 맥락), 단계(예비적 성찰, 과정적 성찰, 사후적 성찰)

2. 화법 교육의 지향성과 담화 상황

○ 화법 교육의 내용과 실제

- 화법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소통과 성찰
- 화법 교육의 실제: 일상생활 상황과 학습 상황



[그림 3] 화법 교육의 지향성과 담화 상황의 관계

○ 일상생활 담화

- 화법의 목적과 매체 특성: 정보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표현 및 매체
- 대안적 분류: 사실적, 문학적, 미디어 담화; 실용적, 심미적, 복합양식 담화
- 실용적 담화: 정보의 소통, 설득과 비판, 관계의 형성과 증진 등 목적의 일상적 의사소통 사건. 대화, 연설, 토의, 협상 등 화법 교육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 왔던 대부분의 유형
- 심미적 담화: 예술이나 문학적 담화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생활 상황의 의사소통적 사건. 시, 이야기, 드라마 등 문학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 왔던 유형
- 복합양식 담화: 의사소통의 목적보다는 매체 측면에 초점을 맞춘 장르 분류로서 실용적, 심미적 측면이 모두 포함.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방송 담화, 인터넷 공간에서 문자 또는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나 토론, SNS 메시지 등

○ 학습 담화

- 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소통 양식에 초점. 강의, 질문과 대답, 발표, 소집단 대화 등
- 강의: 교사가 학생에게 교과 지식을 설명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담화 유형. 학습자 입장에서는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선행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

- 질문과 대답: 강의 내용 또는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점검, 평가, 송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의 양상. 학습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받을 때에는 질문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대답을, 질문을 할 때에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
- 발표: 주로 학습자가 준비한 과제를 여러 사람 앞에서 설명하는 말하기. 내용의 선정과 조직, 효과적인 표현과 전달의 제반 국면이 모두 중시
- 소집단 대화: 말놀이, 탐구 대화(exploratory talk), 토의, 토론, 협상 등. 지식의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 목적의 담화에서 강의를 듣는 활동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담화 양식

III. 화법 교육의 방법

1. 화법 교수·학습의 설계 방향

○ 화법 교육 목표에 대한 점검

- 5가지 관점 - 형식적, 기능적, 전통문화적, 비판적, 개인성장적 관점
- 4가지 차원(이도영, 2006) - 개인·심리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윤리적 차원, 예술적 차원
- 2가지 차원 4가지 지향성(민병곤, 2013) - 소통과 성찰, 일상생활과 학습
⇒ 교육과정 목표 - 지식(체계적 이해), 기능(효과적 의사소통), 태도(능동적 참여) → 화법 능력 신장/바람직한 우리말 문화 창조

○ 내용 체계 및 학년별 내용의 구성과 교수·학습 설계

- 제7차 교육과정: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및 전달로 요약되는 표현의 심리적 과정을 그대로 교육 내용으로 분절하여 제시 → 언어 활동의 실제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텍스트[담화] 중심보다는 내용 요소 중심의 교수 방법을 조장하기 쉬움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실제(담화유형) 중심의 내용 구성
-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듣기·말하기 통합, 학년군 편성, 화법과 작문 통합
⇒ 화법 교수·학습을 ‘기능 중심 방법’과 ‘실제 중심 방법’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말하기·듣기 교수 방법 분류(이도영, 2006: 259-260)

- 교육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교수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그리고 이들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경우
- 교육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내용 요소 중심의 교수 방법 vs 텍스트 중심의 교수 방법
- 내용 요소 중심의 교수 방법 - ① 내용 범주에 따른 교수법[지식 중심의 교수법

- (탐구학습), 기능 중심의 교수법(직접 교수법, 문제 해결 학습법), 태도 중심의 교수법(가치 명료화 학습법)], ② 구체적인 내용 요소에 따른 교수법(발음 교수법, 말할 내용의 선정을 위한 교수법 등),
- 텍스트 중심의 교수법 - ① 말하기 목적에 따른 교수법(정보 전달, 설득, 정서 표현, 친교 등), ② 텍스트 유형에 따른 교수법(대화, 토론, 연설, 발표 등)
 - 실제(장르) 중심의 내용 구성에 따른 화법 교수·학습의 방향
 - 화법 활동에 다차원적인 목적이 동시에 동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방향 설정을 위한 질문 - ① 어떤 장르를 선택할 것인가, ② 그 장르의 생산과 관련되는 다양한 내용 요소 중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내용 요소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③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 실제 중심의 교수 방법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 - ① 텍스트의 구성과 소통 과정에 대한 교수자의 전문성, ② 학습자의 자유롭고 능동적이고 충분한 활동 경험의 보장되는 학습 환경
- ⇒ 교육 목적에 따라서는 기능 중심 접근법의 보완이 요구됨

2. 화법 교수·학습의 방법

○ 수업 또는 교수·학습의 개념

- 좋은 (화법) 수업의 조건: ① 구성 요소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수업, ②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보장되는 수업, ③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수업, ④ 인지적·행동적·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수업, ⑤ 교수·학습 공동체를 지향하고 실현하는 수업
- 좋은 (화법) 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할: ① 수업의 생태 환경 보장, ②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 유도, ③ 수업 목표 성취를 위한 안내와 조력, ④ 진보의 경험을 제공하고 확인, ⑤ 공동체의 언어, 문화, 정서의 조성 및 실천

○ 교육체제에 따른 교육 내용의 이해와 활동: 예시

계획(P)	실행(I)			평가(E)
투입 (input)	교수자/학습자 구분	과정 1 (process 1)	과정 2 (process 2)	산출 (output)
토론 지식 차원: 개념/절차/ 조건 내용:	이해	토론에 대해 안다	토론을 해 본다	토론을 할 줄 안다
	학습자 활동	토론에 대해 배운다.	토론 하면서 배운다.	토론을 할 수 있음을 보인다.

계획(P)		실행(I)		평가(E)	
투입 (input)	교수자/학습자 구분		과정 2 (process 1)	과정 2 (process 2)	산출 (output)
장르/언어/인 지/사회 수준: 일반/구체	교수자	활동	토론에 대해 가르친다.	토론을 시키면서 가르친다.	토론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해 (내용)	토론에 대해 알고 있다.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을 평가할 수 있다.
		이해 (교수 법)	토론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토론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토론 평가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다.

<표 1> 교육 체제에 따른 교육 내용의 이해와 활동

3. 의사소통 친화적인 교실의 조성(Chaney & Burk, 1998: Ch. 2)

○ 교실에서 탐구 대화(exploratory talk) 활성화하기

- 소집단 토의와 같은 협력 학습 활동의 활용
- 행동 수칙(ground rules) 정하기 (예) 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기, ② 모든 사람이 말하기에 참여하기, ③ 친구들을 존중하는 마음 표현하기, ④ 서로에게 참여를 독려하기

○ 음성 언어 의사소통의 모델링: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

① 촉진자로서의 교사

- 학습자는 듣기·말하기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한 토의 과정에서 듣기, 말하기, 비판적 사고, 갈등 관리 등의 기능을 배우게 됨
- 교사는 이러한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집단의 구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나이, 발달 정도, 언어 능력 등이 교실 토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용적인 분위기의 조성
- 학습자가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 (예) Relate(지금까지 배운 것에 새로운 생각을), Encourage(말이 없는 친구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교화해 보도록), Ask(다른 사람의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통찰력 있는 질문을), Think(말하기 전에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Listen(반응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말을)
- 계획과 준비: 토의 계획의 3단계 - 도입(동기설정)/전개(질문)/정리(결론도출)

② 음성언어 과정의 경험

- 다양한 의사소통 목적에 따른 메시지의 전달과 수용: 정보전달, 공감, 상상, 친교, 설득

③ 음성언어 의사소통에 대한 실제적 도전(장애)에 대한 경험

- 경험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 적대감, 두려움, 오해를 안고 있는 사람과의 소통,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경험

④ 존중감의 공유

- 새로운 생각, 관점에 대한 개방성; 정보전달이나 설득의 윤리성; 부동의 표현 시 대인관계 및 갈등해결 전략의 예의 바른 사용; 상호간의 신뢰 등

⑤ 의사소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개발

- 음성언어 의사소통을 통한 새로운 심미적 경험의 공유
- 음성언어 의사소통 기능을 활용한 슬픔이나 상처 같은 부정적 영향의 경감
- 음성언어 의사소통을 통한 공공의 문제 해결 또는 새로운 발견

○ 심리적으로 안전한 의사소통 보장하기

-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 ① 행동 수칙의 제정, ② 나서기 좋아하는 학생에게는 듣기 활동을 격려, ③ 표현 형식에 대한 교정의 최소화, ④ 다양한 비형식적 의사소통의 연습과 활동을 장려, ⑤ 학생의 감정을 수용하고 교사의 신뢰를 확인
- 성이나 문화적 포괄성(inclusiveness)을 위한 전략: 다문화적 교실 상황에 대한 고려

○ 의사소통 불안과 수용자 불안의 극복

- 의사소통 불안(communicative apprehension)
- 수용자 불안(receiver apprehension): 집단 토론이나 질문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강의 등에서 주로 발생

IV. 화법 교육의 교재

1. 화법 교재 구성의 원리

- 교재 개념: 교수·학습의 자료(material); 교과서는 가장 전통적이고 표준적인 교재
- 화법 교과서 개발의 난점
 - 매체적 제약: 음성 언어적 특성 → 교과서에 국한하지 말고 다매체 자료로 제작
 - 내용적 제약: 교육적 장르에 대한 연구 부족 → 경험적 적합성을 준거로 삼되, 지속적 연구

- 자료적 제약: 음성 언어 말뭉치(speech corpus)의 부재 → 공감과 일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료의 선정
- 단원 구성의 방향
 - 내용 체계 및 세부 내용을 단원의 체계와 직접 연계하는 방식
 - 내용 체계 및 세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통합하여 재구성하는 방식
 - 내용 체계의 '실제' 범주를 중심으로 단원 구성하는 방식
 - 내용 체계를 고려하되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 (예) 화제 중심
- ☞ 대체로 내용 체계 및 학년별 내용을 단원 목표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검정 제도 하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자유 발행제가 될 경우 좀 더 창의적인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봄

2. 화법 교재 구성의 실제

○ 텍스트 중심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재화 방안(민병곤, 2009)

- 텍스트 중심 교육과정 구성의 시사점
 - 텍스트 생산 및 수용 행위를 교수·학습 활동의 중심에 두어야 함
 - 담화의 실제에서 출발하여야 함
 - 담화의 생산 및 수용에 관여하는 자원의 활용 또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야 함(내용 요소의 체계적 반영)
 - 원리와 실제의 균형 있는 학습이 요구됨.
- 성취 기준 예시
 - 2007-7-말(3)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 2009-5~6-듣·말(7) 매체를 통한 소통의 특성을 알고, 매체 언어 예절에 맞게 대화한다.
- 인터넷 토론의 성격 규정
 - 개념: 누리꾼들이 토론을 목적으로 개설된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올려 서로를 설득하는 행위. 즉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 특성: 1) 인터넷 토론은 사회자, 토론자, 청중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2)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토론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이 없다.
3) 일반적인 토론과 달리 참여자 수에 제한이 없다.
4)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게시판에 올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하여 댓글을 달 수 있다.
5) 토론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누리꾼들의 의견을 조회하거나 다른 이들이 어떤 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 인터넷 게시판 토론의 구조와 절차

- 발제글: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는 글로 대개 찬반 입장을 모두 소개한다.
- 머리글: 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글
- 꼬리글: 머리글의 꼬리에 붙어서 50자, 100자 정도로 짧게 덧붙이는 글
- 댓 글: Re: 또는 ↳ 와 같은 형태로 붙어서 머리글에 대한 지지나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글
- 재댓글: 댓글에 대한 댓글

－ 다룰 만한 논제들

- 남녀 공학 또는 남녀 합반 필요한가?
-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인가?
- 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은 바람직한가?
- 학교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가?
- 흉악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는가?

－ 단원 및 학습 활동의 구성 예시

(2) 인터넷 토론		
① 인터넷 토론의 원리	② 인터넷 토론의 예시	숲 인터넷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매체의 특성 • 인터넷 토론의 개념과 특성 • 인터넷 게시판의 구조와 기능 • 인터넷 토론 참여 방법 • 인터넷 예절 <p>[학습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글 • 머리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댓글 • 머리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댓글 － 재댓글 • 머리글 <p>[학습 활동]</p>	<p>[학습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론 주제 정하기 2. 발제글 쓰기 3. 머리글 쓰기 4. 게시글 분석하기 5. 댓글, 재댓글 달기

<표 2> 국어 교과서 ‘인터넷 토론’ 관련 단원 구성 예시

V. 화법 교육의 평가

○ 화법 평가의 목표

- － 평가의 목적과 기능: 피평가자의 화법 능력에 대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한 의

사 결정

- 화법 교수·학습 평가의 목표: 학습자의 화법 능력에 대한 진단/형성/총괄적 이해

○ 화법 평가의 내용

- 양식: 평가의 초점에 따라 듣기, 말하기, 듣기·말하기로 나눌 수 있음
- 범주: 실제, 지식, 기능, 태도 각 항목을 세분하여 학년군별 내용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
cf. 분류 방식에 따라서 평가 내용의 선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능력: 화법 능력(또는 수행)의 전체를 평가하느냐(holistic approach), 부분을 평가하느냐(atomistic approach)로 나눌 수 있음.
- 평가의 대상 또는 산출 자료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접근 가능함
- 화법을 행동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평가 자료는 직접성, 누적성, 수행성, 상황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화법 평가의 도구

- 평가 주체에 따라 교사 평가, 학생 평가로, 기록 방법에 따라 척도형 평가, 범주형 평가, 기술형 평가로, 분석 방법에 따라 양적 평가, 질적 평가로 나눌 수 있음.
cf. 평가 방법에 평가 주체, 시기 등을 독립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음.

평가 목표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자료	평가 도구
-일반: 선발 /교수·학습/ 정책수립 -교수·학습: 진단/형성/ 총괄	-양식: 듣기/말하 기/ 듣기·말하기 -범주: 실제/지식/ 기능/태도; 사고/ 행위/초인지; 소통 / 관계; 과정/결과 -능력: 부분/전체; 일반/구체	-직접성: 간접적/ 직접적 -누적성: 일회적/ 누적적 -수행성: 서술적/ 수행적 -상황성: 일상적/ 학습적	-평가 주체: 교사/ 학생 -기록 방법: 척도/ 범주/기술 -형식화: 형식/비 형식 -분석 방법: 양적/ 질적

○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과 화법 평가

<국어>

- ‘듣기·말하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듣기·말하기 과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설정 하되, 듣기에서는 사실적·추론적·비판적 듣기 능력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고, 말하기에서는 말할 내용의 생성 및 조직,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과 전달,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에 중점을 두어 설정
- 평가 내용은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영역별 ‘성취 기준’을 근거로 선정하되……

- 평가 방법은 평가 목표와 평가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취하되..... 교사의 학생 평가 외에 학생의 자기 평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 영역의 특성, 평가 목표, 평가 내용, 평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형 평가, 서답형 평가, 연구 보고서법, 자료철(포트폴리오), 면접법, 토론법, 관찰법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

<국어 I>

- ‘화법’ 영역의 평가 목표는 화법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를 배려하며, 예의 바르고 품격 있게 대화하는 태도에 중점을 두어 설정.

<국어 II>

- ‘화법’ 영역의 평가 목표는 화법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를 배려하며, 예의 바르고 품격 있게 대화하는 태도에 중점을 두어 설정.

<화법과 작문>

- 화법과 작문에 대한 지식, 기능(전략), 태도를 평가할 때는 각각 적합한 평가 방법을 선택
 - 선택형, 단답형과 같은 평가 방법은 주로 지식의 평가에 적용
 - 실기형, 자료철(포트폴리오) 평가와 같은 방법은 주로 실제 기능의 평가에 적용
 - 관찰법, 점검표(체크리스트)와 같은 방법은 주로 태도의 평가에 적용
- ‘화법과 작문’의 평가에서는 화법 및 작문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를 병행
 - 화법은 말하기 과정뿐만 아니라 말하기의 준비 과정에 대한 평가도 병행. 듣기도 듣기의 결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듣기 과정에 대한 평가도 병행
- 화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평가
 - 내용의 생성과 조직, 표현 및 전달, 태도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되 이를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총체적으로 평가 가능
 - 개별 평가뿐만 아니라 모둠별 활동에 대한 평가도 가능

○ 화법 평가의 난점과 실천 방향

- 화법 평가의 문제점과 원인, 바람직한 화법 평가 방향은?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김지홍(역)(2008). 말하기 1. 2: 그 의도에서 조음까지. 나남. Levelt, W. J. M.(1989),
Speaking: From Intention to Articulation. Massachussetts: MIT Press.
- 민병곤(2005). 화법 교육의 이론화 방향 탐색. 국어국문학 140, 305-332.
- 민병곤(2006ㄱ). 말하기·듣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5,
5-38.
- 민병곤(2006ㄴ). 텍스트 중심 말하기 교육 내용 구성의 전제와 함축. 어문학교육 33, 7
-30.
- 민병곤(2009). 텍스트 중심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재화 방안: 7학년 말하기 영역 "인터넷
토론"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6, 189-217.
- 민병곤(2012). 화법 교육에서 어휘의 위상. 국어교육 139, 417-449.
- 민병곤(2013). 학습을 위한 화법의 위상과 과제. 선청어문 40, 411-432.
- 이도영(2006). 말하기·듣기 교수 방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6, 253-276.
- Chaney, A. L. and T. L. Burk(1998), *Teaching Oral Communication in Grade K-8*,
Boston: Allyn and Bacon.
- Hill, S. (2001). Ch. 2. *Theoretical Tools for Talk*. In P. G. Smith (ed.). *Talking
Classrooms: Shaping Children's Learning Through Oral Language Instruction*,
14-26. Newark, Delawar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Mercer, N. and Hodgkinson, S. (eds.) (2008). *Exploring talk in schools*. Los
Angeles: SAGE.

훈민정음의 이해



1. 들어가며

‘훈민정음’은 이제 단순히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다. 세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하나는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이라는 점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을 다른 나라에서 표기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위상을 부분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자는 21세기 ‘한글’로 불리며 외국인이 한국어를 처음 학습할 때, 읽기와 쓰기의 기본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렇듯 훈민정음의 가치는 이제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국제화되었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는 앞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그 빛이 좀 더 영롱하게 빛나기 위해서는 역사적 측면에서 ‘훈민정음’의 속살을 들추어 이해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은 크게 <훈민정음>의 창제와 문헌, 창제 목적, 텍스트의 내용 구성 체계, 몇 가지 물음과 번역 등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것들은 한데 모아 엮은 것이다. 따라서 이 역사적인 문화적 응축물을 언중의 시각에서 주목하고자 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문제를 함께 공유한다는 의도로 “훈민정음”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2. <훈민정음> 들추기

2.1. <훈민정음>의 창제와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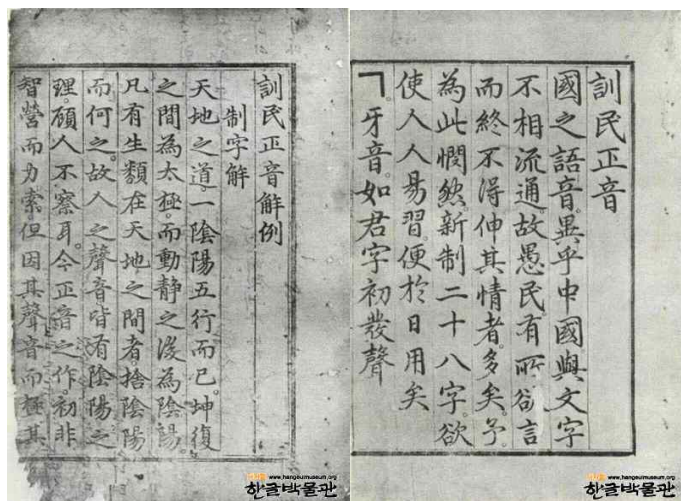
훈민정음은 15세기에 탄생한 우리 고유의 문자다. 우리 고유의 문자라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그러한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전의 문자 생활이란 불완전한 한자 문화권 속에서의 몸부림이었다. 그 몸부림의 소산은 외국 문자로서 한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문화적 축적의 산물로 만들어낸 차자 표기일 것이다. 그러나 한문을 써 왔든 아니면 차자 표기로 우리의 문자 생활을 지속해 왔든지 간에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이란 곧 한자로 대변되는 언어 권위관¹⁾ 깃들린 역사였다고 해도 과

1) 언어 권위관은 고대 국어 이후 19세기까지 지배해 온 한자 및 한문의 권위관으로 우리의 말글살이

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자 생활을 통해 우리는 그 나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에 이르렀지만, 그 한계는 명백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유 문자가 필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역사적 필연성, 문자 발생의 문화적 축적은 결국 우리에게 소중한 고유 문자인 훈민정음을 안겨 주었다. 그것은 우리 국어사 및 국어학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자, 문화적 혁명이다.

1443년 문자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3년이 지나 1446년 9월에 문자 ‘훈민정음’의 원리와 실재를 보여주는 문헌 <훈민정음>이 공간(公刊)되었다. 이 문헌은 세종의 ‘어제 서문’과 ‘예의’, 그리고 다섯 개의 ‘해’와 한 개의 ‘예’, 마지막의 ‘정인지 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5해1례의 구성이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한문 문헌을 우리는 <훈민정음>해례본이라고 부른다. 공식적으로 현재까지는 유일본이다.

목판본 총 33장 1권 1책으로 1962년 12월에 국보 70호로 지정된 바 있다. 현전하는 최고본으로 문자의 창제 시기, 주체, 목적, 원리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문자 해설서이며, 문헌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1997년에는 UNESCO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문헌은 1940년에 경북 안동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으며, 당시 간송 전형필이 거금을 들여 구입하여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그래서 <간송본> 혹은 <전형필본>이라고 부른다.



<훈민정음>해례본의 일부

1940년 발견되기 전까지는 훈민정음 기원에 대한 많은 억측들이 난무했으나, 원본이 발견된 후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원본 『훈민정음』 발견 경위

가 한자 및 한문에 종속되어 한문 숭상주의라는 필연적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인식 태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은 마치 서양에서 라틴어가 과거에 가졌던 권위에 비견되는 것으로 한자 및 한문은 동양의 라틴어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의 문자였던 것이다. 김민수(1980)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되었으며, 이상혁(1999), 이상혁(2004)에서도 다룬 바 있다.

에 대하여 정확하게 최초로 언급한 글로 판단되기에 「국어국문학」 9호에 실린 그 전체 원문을 그대로 여기에 옮긴다.

原本 訓民正音의 保存 經緯에 대하여

鄭喆

여기서 말씀 드리려는 「原本 訓民正音」은 이미 崔鉉培님이 “한글갈”을 통하여 발표하신 全鑒弼本을 이룹니다. 이 原本 訓民正音이 全鑒弼님 手中에 넘어갈 때까지의 保存 經緯를 밝히고자 합니다.

崔鉉培님의 “한글갈”에 보면 原本 訓民正音이 慶北 義城 某古家の 집에서 나왔다고 적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事實은 慶北 安東郡 臥龍面 周下洞 李漢杰님 宅의 家寶였습니다. 이 어른은 號 後村(西紀 1880~1950) 本貫 眞城 退溪의 宗派이며 일찍 先祖께서 女眞征伐의 功이 있어 世宗大王으로부터 賞을 받아(단 한卷) 늘 箠中에 감추어 世傳家寶로 남겨 오다가 燕山君 때 諺文冊 所持者를 嚴罰할 때 生命을 유지하기 위하여 不得已 첫 머리 두 장을 뜯어 버리고 돌돌 말아서 書笈에 秘藏했던 것입니다.

後村 李漢杰先生은 林下名儒로서 安東一圓 뿐 아니라 嶺南 一帶에까지 名譽가 孜孜한 분으로서 抗敵 志操와 그의 排日 教育熱은 단단하였다. 先生의 長男에 容規(裡里農大 國語講師로 在職中 病死 柳님의 紹介) 二男 容薰(慶北 安東師範校 在職中), 三男 容準等 세 子弟가 있었으며 三男 되는 李容準님은 서울 經學院(成大 前身)에서 공부하였는데, 當時 成大 助教授 金某의 가장 寵愛하는 弟子였습니다. 그 當時 全鑒弼님은 家産이 넉넉하여 金某를 시켜서 貴重한 책이면 값의 高下를 不問하고 모조리 사들이게 하였습니다. 이 때 李容準님은 그의 가장 尊敬하는 스승 金某에게 師事하는 가운데 自己 故鄉 安東에 訓民正音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金某는 곧 全鑒弼님으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 가지고 당장에 安東으로 내려와서 現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原本 訓民正音의 現品은 意外에도 表紙부터 첫 머리 두 장이 毀損되어 있어졌으므로 不得已 世宗實錄 本에 原本을 記憶해가면서 漢紙를 끊어 써 넣어 汲기로 하였습니다. 기우려 해보니 安東에도 古色蒼然한 原本과는 差異가 많음을 느끼어 드디어 이 漢紙를 소죽 술에 삶아 누른 빛을 내어서 原本과 비슷하게 裁斷하여 꿰어매고 李容準님(鮮展에 入選한 書藝家)으로 하여금 原本 書體와 비슷하게 書寫시켰다. 原本은 軟美 整齊한 書風으로 一家를 이루으신 安平大君의 글씨가 分明하며 李容準님은 安平大君體에 造詣가 있었으므로 글씨 自體로 봐서는 거의 다름이 없었으나 아무리하여도 기운 데는 宛然히 달라 보였고 特히 意外의 誤字 一字는 다름 아니라, 序文 末尾에 “便於日用耳”라 한 것

을 “便於日用矣”라고 곧耳를 矣로 쓴 것이 큰 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勿論, 이 誤字는 뒷날 알게 된 것임).

이와 같이 하느라고 이 집에 오래 묵은 金某는 斯學界의 研究資料로 이 책을 서울로 가져 가기로 許諾을 請하였다. 이에 後村先生은 所願을 承諾하고 同時에 五百餘年 傳해오던 國寶 原本 訓民正音은 金某 手中으로(結局 全鑒弼님) 永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金某는 서슴지 않고 一金 三千圓을(1940년) 謝禮金으로 冊主 後村先生에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金某는 結局 이 책을 所願대로 購入하여 還京하여 全鑒弼님에게 전해 주고 이 소문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게 되어 當時 朝鮮語學會 會員을 비롯하여 이 책에 關心을 가진 이는 그 책을 보고 싶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全鑒弼님은 愛藝한 이 책을 及其也 公開하게 되어 모든 實物을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崔鉉培님 같은 이는 쉽사리 卷頭 補修한 것을 辨別하셨을 뿐 아니라 耳를 矣로 誤書한 것까지 다 아시게 되었으며 더운 解放後 國語講習會 席上에서 말씀하시기를 後村先生의 德澤으로 原本 訓民正音이 傳하게 됨은 實로 感慨無量하다고 所懷를 披瀝 하셨습니다. 그런데 義城 某 古家로 訛傳(崔先生님은 뒤에 아시게 되었으나) 된 것은 原 冊主인 後村先生이 不尠한 謝禮金을 받고 世傳家寶를 남의 손에 넘겼다는 것이 不名譽스러워 金某에게 故意로 부탁한 所以가 있었습니다.

이에 國寶 原本 訓民正音의 保存 經緯를 널리 아뢰어 後村先生의 文化愛를 기리고자 합니다.(筆者는 一般會員 慶北 安東 高校 教師)

대체로 <훈민정음>해례본의 발견 경위와 관련하여 두 입장이 상존한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이한걸 씨 집안의 세전 가보(世傳家寶)라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박영진(2005)과 박종덕(2006)에 따르면 다른 하나는 이한걸의 셋째 아들 이용준의 처가인 광산 김씨 안동 종가 궁구당(肯構堂)의 세전가보였다는 입장이다. 이 두 견해는 <간송본>의 실체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소유주가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갈등과 대립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2008년 경북 상주에서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같은 판본이 발견되었다. 여러 서지적 측면에서 조선조 세종 당시 간행된 것으로 국보 70호와 같은 초간본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의 『훈민정음』 해례본의 등장으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상주본> 소유를 둘러싸고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 그 문헌을 훔친 자로 지목되는 배모 씨가 어딘가에 비장해 놓고 있어 그 실체를 정확히 알 길이 없다. 다만 아래 <상주본>은 배모 씨가 2009년 10월 한국일보 기자에게 공개한 해례본의 일부이다.



<훈민정음>해례본(상주본)



<훈민정음>해례본(간송본)

이 문헌의 실체가 온전히 세상에 드러난다면 <훈민정음>해례본은 이제 유일본이 아니라 <간송본>과 <상주본> 두 문헌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간송본> 발견 당시 책표지와 본문 두 장이 낙장돼 있어서 간송 전형필이 소장 후 낙장된 부분을 원본에 가깝게 보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제 서문 말미에 ‘耳’를 ‘矣’로 잘못 보사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었다. <상주본>이 책표지와 본문 두 장을 온전히 갖추고 있으면 <훈민정음>해례본의 실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훈민정음> (국역본)

이 <해례본>과는 별도로 이 한문본의 예의 부분만을 따로 번역한 문헌은 <훈민정음> 국역본, 혹은 언해본이라고 부른다. 1459년 <월인석보>권두에 실려 있어 <월인석보>권두본이라고도 하며, 서강대 도서관에 소장돼 있어 <서강대본>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이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金敏洙(1957)에서 인용된 표를 바탕으로 필자가 약간 추가하여 아래에 제시하기로 한다.

- | | | |
|-----|-----|---|
| 해례본 | 한문본 | -1) 간송 전형필본
2) 상주본 |
| 예의본 | 한문본 | -1) 해례본의 권두에 실린 것
2) 세종실록본
3) 예부운략본
4) 열성어제본
5) 경세훈민정음도설본 |
| 국역본 | | -1) 월인석보 권두본
2) 박승빈본
3) 가네사와(金澤庄三郎)본
4) 일본 궁내성(宮内省)본 |

2.2.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 다시 보기

훈민정음은 그 문자가 만들어진 지 450여 년이 지나서야 훈민정음은 진정한 ‘국문’으로서²⁾ 그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문에 밀려 신문자의 위상을 명실상

부하게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훈민정음』이라는 문헌이 20세기 중반에 발견되고,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여러 역사적 정황 및 다양한 문헌적 근거가 제시되면서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논의도 학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훈민정음 창제 목적과 관련된 연구가 학제적 만남의 장에서 조용하여 한데 얹히지 못하고 각 학문 분야에서 고립된 양상으로 전개된 바가 없지 않다. 다시 말하거니와 인문학적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훈민정음 창제 목적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훈민정음 창제 목적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논의를 재정리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훈민정음 창제 목적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2.2.1. 훈민정음 창제 목적에 대한 국어학적 견해와 그 문제

훈민정음 창제 목적은 우선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 드러나는 문헌적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왔다.

- 1)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³⁾ 더불어 서로 통하지 않는다.
- 2) 어리석은 백성이 그 뜻을 펴지 못한다.
- 3) 세종 자신이 그러한 것을 불쌍히 여겨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1)과 관련해서는 조선의 자주 정신, 2), 3)과 관련해서는 애민·실용 정신이라는 내용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파악하였다. 곧 고유 문자가 없는 국가적 체면과 백성을 사랑하고 어여뻐 여겨 그들의 문자를 갖게 했으며 그것은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백성들의 문자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또한 『훈민정음』 말미의 정인지 후서를 보면 이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고 덧붙이고 있다. 남풍현(1978, 1980)은 이 정인지의 후서를 근거로 삼아⁴⁾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이 이두로 대표되는 차자 표기 수단을 대체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어제 서문에 첫머리에 나타나는 “國之語音”과 그 국역인 “말씀”에 주목하여 훈민정음 창제 목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즉 “國之語音”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였다. 강길운(1972)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이 한자음(注音)에 있었다고 보고 “國之語音”을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자음이라는 논의를 펼쳤다. 그러한 논의는 이미 이승녕(1958)에서도 훈민정음 창제 목적을 한자음 改新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2) 法律勅令總之國文爲本漢文附譯或混用國漢文(勅令 第一號 第十四條)(1894.11.21), 法律勅令은다國文으로書本 삼고漢譯으로附하며或國漢文을混用함(1895.5.8)

3) 일반적으로 이 ‘문자’는 한자, 혹은 한자음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홍윤표(2003)에서는 이 문자를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한자로 된 속어나 成句, 또는 문장”으로 이해해야만 ‘나라말씀’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제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4) 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文字以通其用 是猶柄鑿之鉅鍬也 豈能達而無礙乎.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強之使同也.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기문(1974)에서는 고유어 표기와 한자어 표기가 다 국어 표기의 일면임을 강조하고 한자음 주음을 위해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는 시각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훈민정음이 ‘愚民’을 위해 ‘便民’할 목적으로 창제된 것이라고 하면서 ‘國字’의 필요성에 대한 세종 자신의 절실한 자각이 창제의 직접적인 동기라고 보았다.

한편 훈민정음이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 논의도 있었다. 김완진(1972)에서는 당시의 문헌에서 한자음을 주음하는 방식이 문헌마다 차이가 나는 점에 주목하여 훈민정음 창제 후 문자 사용의 측면에서 독자층을 고려한 국면이 있다고 해석하여,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은 한자와 훈민정음의 조화로운 병용을 의도한 것이었다는 견해를 강조하였다. 곧 한자의 대체 수단으로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소위 세종 정신은 한글 전용의 정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다양하게 훈민정음 창제 목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창제 목적”이라는 다소 추상적 논제에 대한 미시적 문제 제기들이 제시되었다. 즉, 김완진(1972)나 이성연(1984)에서는 창제의 ‘목적’과 ‘동기’를⁵⁾ 구분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현희(1990)에서는 ‘창제 동기’란 창제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이 창제가 있게 된 직접적 원인과 관련되는 국면이고, ‘창제 목적’은 창제를 한 의도와 관련되는 국면이라고 구별하고 있다⁶⁾. 한편 강신항(1977)에서는 ‘聖人之道’를 밝혀 이상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인식이 직접적 동기이며, 표기 수단이 없는 점, 국가 체면의 문제, 한자음, 외국어음을 표기의 문제는 수단과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훈민정음 창제 결과 이루어진 신문자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 본다면 고유어를 위한 표기니, 한자음을 위한 표기니 하면서 그 창제 목적을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 창제 이후, 『훈민정음』에서는 <用字例>를 통해서 신문자로 고유어를 94개 표기하고 있다⁷⁾. 『훈민정음』이라는 문헌에 기대어 본다면 당연히 훈민정음은 고유어 표기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東國正韻』의 편찬과 『洪武正韻譯訓』의 간행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국정운』은 金敏洙(1980)의 견해에 비추어 본다면 최초로 이루어진 한자음 통일안으로서 조선 한자음 자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홍무정운역훈』 역시 한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한어발음사전이자 한조(漢朝) 사전이다. 이 경우는 대신에 표음 문자

5) 김완진(1972)에서는 고유어 표기 수단에 대한 필요성, 한자음 표기를 위한 수단의 필요성, 자주 의식의 대두 등을 내적 동기로 보고 있고, 元 세조의 파스와 문자 제정에 의한 영향을 외적 동기로 삼아서 내적 동기론과 외적 동기론을 구분하고 있다.

6) 이현희(1990)에서는 일례로 우리의 고유 문자가 없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었다 함은 창제의 동기가 되겠지만, 고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유 문자를 가질 수 있게끔 새 문자를 창제하였다 함은 창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 문맥에서 말하는 ‘창제의 동기’는 지금까지의 훈민정음 창제 목적과 관련된 논의의 ‘창제 목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별이 안 되는 듯싶고, 고유 문자를 가질 수 있도록 새 문자를 창제하였다함이 ‘창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7) 이상혁(2004)의 『훈민정음』의 <용자례> 분석”을 참고할 것.

로서의 훈민정음이 발음 기호로서 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각종 언해류 문헌들의 간행에 비추어 본다면 번역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메타언어(meta-language)로 대상 언어(한문)에 대한 상위 언어적 기능을 수행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훈민정음』 국역본에서 “國之語音이 異乎中國訖야 與文字로 不相流通홀썩...”에서 보여주는 표기 방식을 보면 한문 원문에 토를 훈민정음으로 달아 놓은 텍스트 구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은 한자 차자 표기로 토를 달던 그 이전의 구결문의 형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그 토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했다는 측면에서 신문자가 차자 표기 대체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이 사용된 당대의 양상에 초점을 맞춰 바라본 창제 목적은 고유어 표기, 東音과 華音을 포함하는 한자음 표기, 번역어, 그리고 구결이나 이두를 대체하는 문자 체계로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훈민정음 창제 목적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라는 점을 현재의 시각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2.2.2. 훈민정음 창제 목적에 대한 역사학적 견해와 그 문제

역사학계에서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는 이우성(1976)과 강만길(1977)이 있다. 이우성(1977)에서는 강신항(1967)의 견해를 국어학계의 한글 창제 목적이라고 소개하면서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역사적 배경이 동시에 설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왕조의 정치·사회적 구조와 결부시켜 당시 국가 정책으로서의 훈민정책을, 그리고 훈민정책 수행을 위한 국자 제정의 불가피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농민을 훈도해야 할 사정의 절실함과 반대로 농민에 대한 전달 수단이 너무나 오환(迂闊)했던 사실은 조선 왕조의 정치적 고충이 아닐 수 없었고, 이러한 고충은 드디어 세종으로 하여금 새로운 전달 수단의 창안에 부심케 하였다...왕조 자체의 지향은 이러한 농민들에게 훈도를 통해 항구적이며 안정된 공민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 공민들을 부당한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그들에게 말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동시에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였다. 정음은 곧 이 우민(愚民)들로 하여금 말로써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함이다. 훈민정음 어제 서문은 바로 이것을 강조함이었다”

강만길(1977)에서는 이우성(1976)의 견해를 새로운 이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 전엔 지배층이 백성들의 문자를 만들지 않고서도 백성을 다스리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왜 하필 15세기에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창제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어느 개인의 능력이나 심리 상태가 역사적 사실의 중요 원인으로 부각되면 역사가 우연의 소산물로 이해되거나 영웅주의적 사관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계하고 한글 창제의 동기의 새로운 이해로 백성들의 자의식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그것은 결코 치자층의 자애심이 바탕이 되어 어리석은 백성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 세계가 스스로

자의식을 높여 감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전리품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곧 치자층의 입장에선 지배 목적의 일환인 통치이데올로기의 보급을 위한 수단이었으나, 백성의 처지에서 보면 값 높은 전리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훈민정음은 처음부터 진정한 백성의 것이 될 수 있었다는 시각이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역사학계의 두 견해는 그동안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을 언어내적 동기론에서 찾고자 했던 국어학계의 시각을 역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한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거시적 틀 속에서만 훈민정음 창제 목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국어학사적 시각에서 보면 지극히 공허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국어학계의 미시적 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정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훈민정음 사용 양상을 살펴보게 되면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을 ‘백성의 글’이라는 추상적 틀 속에 묶을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반절 대신에 그것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동음과 화음 표기를 위해서 훈민정음이 사용된 측면, 곧 운서의 한자음 발음 표기 수단으로서의 훈민정음 기능은 강만길(1977)에서 언급하는 ‘백성의 글’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이라는 표음 문자가 가지는 내재적인 다기능성을 포착하지 못했거나 무시한 측면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계 내에서 훈민정음 창제 목적론은 거시적 담론으로서의 의의와 국어학계에서 간과할 수 있는 점을 제기한 의의는 있겠으나, 훈민정음의 언어학적·문자사적 의의에 대한 깊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연구 성과들이었다. 또한 그것은 진보적인 역사학계에서 훈민정음이 지니고 있는 언어학사적 가치를 본의 아니게 폄하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어학계의 시각이 영웅주의적 관점에 경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 자체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세종의 친제(親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은 국어학사의 시각에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다만 그 목적을 논함에 있어 역사적 의미를 국어학사 속에서 역사학계가 지정한 측면을 흡수하고 수용하여 통합적으로 논의될 때 더 의의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설령 역사학계에서 훈민정음 창제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을 하더라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거시 담론의 전제 속에는 국어학적 미시 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① 훈민정음이라는 신문자가 탄생할 당시의 언어학 및 인문학적 자양분은 무엇이었는가?
- ② 훈민정음 창제 목적과 관련된 언어내적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 ③ 훈민정음 창제 목적과 관련된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었으며, 언어내적 의미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①, ②, ③을 바탕으로 국어학사 틀을 견지하면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시대는 성운학의 발달을 가져온 시기이다. 그 과정 속에서 중국으로부터 운서가 직접 수입되기도 하고, 혹은 고려에서 직접 운서를 복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체적인 운서를 간행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고려말 조선초 문자 음운학의 발전이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이 유입되고 조선 왕조가 건설되면서 불교에서 유교로 국가적 이데올로기가 바뀌면서 철학적인 면에서 역철학의 발전이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어사에서 볼 때, 차자 표기로 대표되는 이두나 구결이 지니는 표현상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언어학 및 인문학적 배경 아래서 훈민정음은 창제되었다. 『훈민정음』 <용자례>의 고유어, 각종 언해류의 간행 등을 보게 되면 그 신문자는 고유어 표기를 위한, 그리고 우민을 편민(便民)하고자 했던 실용적이고 표기 체계였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고유어 표기만을 위한 문자 체계만은 아니었다. 발음기호로서 반절을 대체하는 수단이었으며 그 결과는 『동국정운』이나 『홍무정운역훈』의 정음 표기와 같은 한자음 정리였다. 이 때의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라기보다는 음소문자가 보일 수 있는 표음 기호, 주음 기호의 성격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한문의 권위가 여전히 지배하는 당대에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의 정인지 후서의 주장과 『훈민정음』 국역본 텍스트의 구결문 형식에 초점을 맞추면 차자 표기를 대체하는 수단이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문자 사용 면에서 언어 내적 동기론에 비추어 보면 훈민정음 창제 목적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음소문자인 훈민정음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 장점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내적인 창제 목적 이면에는 정치사적·사회사적 의미에서 언어외적 창제 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것은 훈민정음이 치자층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훈민 정책을 보급하고 백성들을 교화하는 중요한 통치 이데올로기적 수단이었으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자의식 성장에 따라서 그들이 얻어낸 문화적 자기 무기였던 셈이다. 따라서 훈민정음의 창제는 역사적으로도 필연적으로 치자층의 지배 논리, 혹은 훈민 정책과 백성들의 언어 표현 욕구를 불가피하게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언어학적으로 성숙된 문화적 환경이 한데 어울려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산물이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훈민정음 창제 목적은 그 자체가 국어학적 의의가 있는 동시에 역사적 사실로서 국어학적 관점과 역사학적 관점이 독립적이고 서로 다르다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제적 접근 혹은 인문학사적 관점 속에서 총체적으로 논의될 성질이 것이며 당시의 창제 목적 또한 그러한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다.

2.3. <훈민정음> 텍스트의 내용 구성 체계

2.3.1. <훈민정음>해례본의 내용 구성 체계

이 절에서는 그 한문본 『훈민정음』<해례본>과 국역본 『훈민정음』<예의본>의 내용 구성 체계와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훈민정음』<해례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예의 - 어제서문 // 자모의 음가 // 중성법 / 연서법 / 병서법 / 부서법 /
성음법 / 사성법

해례 - 제자해 / 초성해 / 중성해 / 종성해 / 합자해 // 용자례 // 정인지
후서

『훈민정음』<해례본>의 구성은 위와 같이 되어 있으나, 그 내용과 관련지어 보면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⁸⁾ 예의는 어제 서문과 자모의 음가, 그리고 나머지 규정으로 되어 있고, 해례는 五解와 一例 및 정인지의 후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책의 전체 분량이 33장인데, 대부분의 분량을 해례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예의의 일부

먼저 예의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제서문은 세종의 문자 창제 동기를 밝힌 부분이며, 자모의 음가를 설명한 그 다음 단락은 한자를 이용해 초성 17자와 중성 11자의 음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 각 문자의 운용법을 다른 문자와 서로 관련지어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15세기 성조 언어인 국어의 표기를 위한 사성법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자모의 음가 설명이 중성을 끝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단락에서는 “終聲復用初聲”이라는 종성의 표기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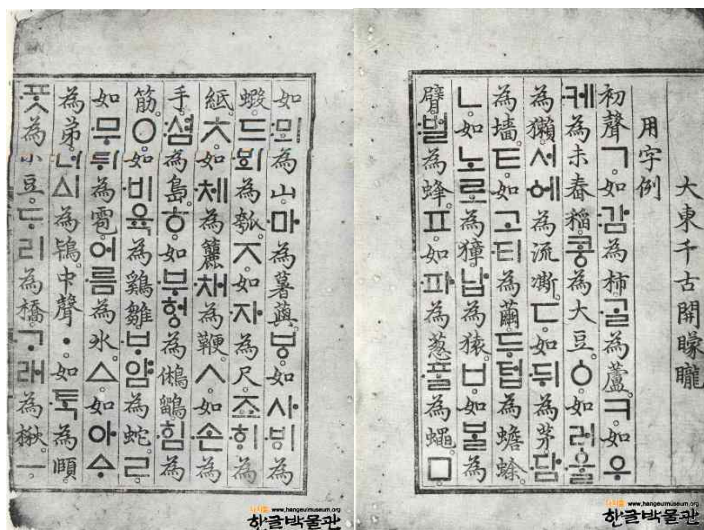
8) 이 글에서는 내용상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지만, 『훈민정음』<해례본>의 예의 부분은 각 장 7행에 11자, 해례 부분은 각 장 8행에 13자, 정인지 서 부분은 각 장 8행에 12자로 되어 있어서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게 일반적이다.

단락의 자모의 음가 설명 부분은 단순히 음가만을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문자로서의 초성자, 중성자의 쓰임을 강조한 부분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 보면 그 다음에 왜 “終聲復用初聲”이 연이어 나왔는지가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예의 부분은 음운론 혹은 음운사의 관점에서도 논의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당대 어문 규정, 다시 말하면 표기법 규정으로 논의될 내용이기도 한 것이다.

해례 부분은 오해일례로 구성되었는데, 제자해에서는 문자의 제자 원리를 상형에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오음 기본자(ㄱ, ㄴ, ㄷ, ㄹ, ㅇ)를 바탕으로 因聲加劃과 異體의 원리에 따라 나머지 초성자가 만들어졌음을 서술하고 있다. 중성은 삼재(천지인)를 상형하여 만들어졌는데, 중성 기본자 석 자(·, 一, 丨)가 그것이고, 이 기본자의 결합으로 초출자와 재출자 8자를 만들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초성해에서는 초성의 위치에서 초성이 중중성과 결합하여 음을 이루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며, 중성해에서는 중성의 위치에서 초중성과 결합하여 음을 이루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 중성의 병서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二字合用’과 ‘三字合用’으로 가능한 중성자의 18자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종성해에서는 종성의 위치에서 초중성과 결합하여 음을 이루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어서 입성법을 통해 ‘以影補來’에 대한 설명을, ‘八終聲法’을 통해 현실적 받침 규정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합자해에서는 먼저 부서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합용병서와 각자병서가 쓰인 예를 고유어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한자와 우리말을 섞어 쓸 때의 규정인 ‘補以中終聲法’과 우리말의 사성법, 그리고 국어에서의 ‘ㅇ’과 ‘ㅇ’의 통용, 반설경음을 통해서 연서법 규정을 보충하고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용자례 일부

용자례에서는 95개의 고유어 어휘를 제시하여 초성, 중성, 종성에 따라 어떻게 그것이 실현되고 표기될 수 있는지를 당시의 기초 어휘 중심으로 나열해 주고 있다. 이런 양상을 앞의 다섯 가지 解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은 언어 이론과 그 응용의 구조를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구현한 연구 축적물로 우리의 문자의 전모를 논하는 데 있어 그 텍스트 구조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용자례를 제외한 다섯 가지 解 뒤에서 각각 같은 방식으로 ‘訣曰’이라 하여 칠언의 시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 ‘訣文’은 내용상 보면 본문의 중복이긴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한시로 정리하여 다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이것은 마치 파니니 문법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수많은 규칙을 간략화하여 정리해 그것을 암송하게 했던 인도 고대 문법의 간결성을 유사한 방식으로 『훈민정음』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해례 편찬자들의 역량을 다시금 높이 보지 않을 수 없다.

정인지의 서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의 이유, 훈민정음의 우수성, 창제 및 편찬 인물, 편찬자, 그 편찬 시기 등을 밝힌 부분인데, 결국은 <해례본>의 편찬 경과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두 사용의 불편함, 한문 사용에 따른 송사의 어려움은 훈민정음이 창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히고, 훈민정음은 전환이 무궁하고 간단하면서도 긴요하며 정밀하여 어떤 소리라도 다 적을 수 있는 보편적 문자 체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훈민정음』 <해례본>은 당대 성운학과 지식과 역철학이라는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국어학적 업적이자 우리 문화사 및 그것을 뛰어 넘는 세계 문자학사에서 길이 빛날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당대의 언어학적 역량의 최고 집적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2.3.2. <훈민정음>국역본의 내용 구성 체계

다음은 국역본 『훈민정음』 <예의본>의 체계를 간략히 살펴보자. 이 문헌의 이본 관계는 전술한 바와 같고, 그 체계를 보면 구결문 → 협주 → 언해문의 구조가 일관되게 반복되어 국역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구결문	國國之京語聲音음이
협주	國國은 나라히라之京은 입겨지라語聲는 말쑥미라
언해문	나라말쑥미

먼저 구결문의 형식으로 한문 원문에 우리말로 토를 달았다. 그것은 이전의 차자 표기에서 한자의 약자 등으로 토를 달던 방식에서 그 약자 대신에 훈민정음이 그 기능을 이어받은 것으로 한문 원문을 구 단위로 끊고 주로 조사나 어미 등의 허사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방식이다. 훈민정음의 懸吐 기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기능은 한문의 보조적 수단으로 훈민정음이 활용된 것으로 20세기 초까지 계속 계승되었다.

또한 원문 한자 아래 그 한자의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달아 놓았다. 당시의 속음, 곧 조선 현실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한자음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조선 현실음과 중국 원음(한음)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東國正韻』(1448) 운서에서 제정한 한자음으로 이상적 교정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훈민정음의 또 다른 기능은 바로 한자음을 전사하는 발음 기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역시 훈민정음이 한문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당시의 漢音 표기를 위해서도 훈민정음이 그 注音의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이 보편적 표음성을 지닌 문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중국 反切의 기능을 훈민정음이 이어받은 것으로 표음 문자, 음소 문자가 지닌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엔 한 행에 두 줄로 앞에 나온 한문의 한자를 우리말로 새긴 협주의 방식이다. 그리하여 해당 한자의 우리말 뜻을 정확히 풀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하나는 한번 출현된 한자는 다시 새기지 않는 원칙이다. 즉 위의 예에서 보듯이 ‘國之語音’의 한자 새김은 ‘國之語’까지만 제시되고 있다. ‘音’의 경우는 이미 이 국역본의 제목, ‘世宗御製訓民正音’에서 출현된 한자로 이미 새김을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의 원칙은 각 한자를 새길 때, 그 한자가 어떤 단어 부류에 속하는 지를 판단한 후에 그 새김의 형식을 한자마다 달리 하는 것이다. 즉, 그 한자가 명사류에 속하면 ‘-이라’의 형식으로, 용언류에 속하면, ‘-르씨라’의 형식으로, 부사류에 속하면 ‘- 호는 쓰디라’의 형식으로, 허사류에 속하면 ‘아모그에 호는 겨체 쓰는 字이라’, 혹은 ‘입겨지라’의 형식으로 뜻풀이를 한 것이다.⁹⁾ 일종의 초기적 품사 의식의 발로라고 아닐 할 수 없다. 또한 새김은 곧 뜻풀이이고 뜻풀이는 사전의 메타 언어적 형식인데,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이 협주를 통해서 사전 뜻풀이의 초기적 지각 단서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번역의 정교함을 전제해 주는 당시 언해자의 수준 높은 형태 의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국역본의 체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사성법의 언해가 끝난 후 말미에 중국 한음에 대한 규정이 첨가된 부분이다. 치두와 정치에 대한 설명인데, 한문본에는 없는 규정으로 언해자가 임의적으로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삽입한 부분이었다 할지라도 그 형식이 여전히 구결문 → 협주 → 언해문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이미 그 국역 이전에 그 한문 원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원문을 아래와 같이 복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9) ‘文문은글와리라, 異音은돌씨라, 不불은아니호는쓰디라, 乎嚮는아모그에호는겨체쓰는字종 | 라’ 따위가 그것이다.

漢音齒聲有齒頭正齒之別, ㄱ ㅋ ㆁ ㄷ ㅌ ㄴ ㄹ 字用於齒頭, ㄷ ㅌ ㆁ ㄷ ㅌ ㄴ ㄹ 用於正齒,
牙舌脣喉之字通用於漢音

한문본에는 위의 원문이 없지만, 위와 같은 한문 문장의 복원은 가능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언해자는 구결문 → 협주 → 언해문의 형식으로 국역을 했을 개연성도 있다. 훈민정음이 우리말 표기를 위한 문자 체계로, 이상적 교정음을 전사하기 위한 표음 기호로, 중국 한음을 전사하기 위한 주음 기호로 다양하게 당시에 쓰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와 치두의 첨가는 어찌보면 당시의 훈민정음의 기능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임의적 추가인가 아니면 원문을 보고 언해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현재로서는 한문본에 이 규정이 없는 걸 봐서는 언해자의 의도에 따른 추가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4. <훈민정음>에 대한 몇 가지 물음

2.4.1. ‘國之語音’과 ‘나랏말씀’

<훈민정음해례본>과 <훈민정음국역본>에는 각각 ‘國之語音’와 ‘나랏말씀’이라는 표현이 어제서문에 나온다. <국역본>이 <해례본>의 번역일 터이니 ‘國之語音’의 번역이 ‘나랏말씀’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여기엔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國之語音’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 그 하나요, 왜 하필 ‘나랏말씀’으로 번역했을까 하는 점이 그 두 번째이다.

‘國之語音’에 대한 내포적 의미는 많은 학자들의 논란거리였다. 문자로 보는 시각, 당시 조선어로 보는 시각, 소리로 보는 시각, 조선어 문장으로 보는 시각, 소리 중 한자음으로 보는 시각 등등이 논의돼 왔다. 심지어 ‘國之語音’을 랑그로, 혹은 빠롤로 해석해 보면서 서구 구조주의의 개념을 도입해 이해하고자 했다. 과연 무엇일까?

어제서문에 ‘與文字不相流通’라는 표현과 대응해 보면 ‘國之語音’은 우리 문자일 수도 있겠으나, 창제 초기에 우리 문자는 없었으니 그것도 마땅치 않다. ‘國之語音’을 당시 조선어로 보게 되면 랑그(langue)든 빠롤(parole)이든 그 어느 것으로 봐도 해석은 가능할 듯하다. ‘國之語音’의 한자 뜻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말소리’에 해당하는 바, 이것도 분명히 당시 중국의 소리와 달랐다. 또한 ‘國之語音’은 ‘與文字不相流通’와 연관 지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문자와 더불어 서로 통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니 조선어 문장일 수도 있겠다. 또한 당시 식자층에서 중국 한자음과 우리 한자음의 불일치와 그 혼란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國之語音’이 우리 한자음이기도 할 것이다.

‘國之語音’에 대한 그 내포적 의미가 다른 것은 어제서문이 띠고 있는 텍스트 자체의 압축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고, 당시 역사적 언어 환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기원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서문에 등장하는 ‘國之語音’의 의미는 깊고도 오묘하다.

그런데 왜 ‘國之語音’의 번역은 ‘나랏말소리’가 아니라 ‘나랏말씀’일까? ‘나랏말씀’이라는 목표언어(target language) 혹은 상위언어로 번역한 번역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직역이 아닌 의역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번역자는 國之語音을 당시 조선어로 보고자 했기에 ‘나랏말씀’으로 번역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세종의 의도와 번역자의 번역 의도에는 간극이 존재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랏말씀’의 해석도 간단한 문제는 아님에 분명하다.

2.4.2. 1443년, 1444년, 1446년, 1459년

훈민정음의 창제는 분명히 계해년 겨울이라고 언급돼 있다. 당시 조선은 음력을 사용했기에 계해년은 1443년임에 분명하다. 세종실록의 기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1444년은 무엇인가? 필자는 짐짓 훈민정음 창제 연도와 관련해 논란 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북쪽의 연구자나, 중국 조선족 연구자, 그리고 일본 총련계 교육자들은 1444년을 훈민정음 창제 연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와 역사적 사실을 보는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조선시대 모든 역사적 사실을 그 기록에 근거하여 음력 연도로 기술한다. 반면에 위에서 언급한 연구자 및 교육자 집단은 현재적 의미의 양력을 기준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도를 기술한다.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현상적 차이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그러나 앞으로 ‘훈민정음’뿐만이 아니라 20세기 이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도 인식에 대한 남과 북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 이것은 사소하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통일되어야 할 문제이다. 남과 북 중에서 누가 양보할 것인가? 아님 복수 연도로 기술할 것인가? 이것도 훈민정음 창제 시기와 관련되어 논란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1443년(1444년)과 1446년의 문제도 다소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1443년은 문자로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해이고 1446년은 <훈민정음해례본>이 공간(公刊)된 해이다. 역사적 기록과 사실이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이 두 해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남과 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사실도 좀 살필 필요가 있다.

우리의 한글날은 10월 9일이다. 그 근거는 당연히 <훈민정음해례본> 정인지 후서의 ‘正統十一年九月上澣’이며 그것을 양력으로 환산했을 때 귀결되는 것이 10월 9일이다. 흔히 <훈민정음해례본>의 공간을 훈민정음의 공식적 반포로 보고 이 날을 기념하여 한글날로 삼은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러나 북쪽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1443년(그들의 시각에서는 1444년) 계해년 겨울을 양력으로 환산한 1월을 한글날로 삼고 있다. 1월의 보름인 1월 15일이 그들의 한글날이다.

양력을 절대적 기준으로만 삼는 북쪽은 그런 의미에서 일관성이 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훈민정음의 기념일은 양력으로 환산하고 있다. 일관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논리가 다소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기념일은 대개 탄생월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훈민정음의 생일은 분명히 음력 1443년 12월, 양력

1444년 1월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월일을 기준으로 기념일을 삼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 역시 ‘한글날’과 연관된 다소 복잡한 문제이다.

1446년의 <훈민정음해례본>은 한문본이다. 신문자가 처음 창제된 시점에서 그 문자의 해설과 예를 담아낸 텍스트는 당시에 지배적인 언어로 기술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신문자로 해설서를 기술한들 그 효용이 뛰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역본>이 발견된 시기인 1459년을 기점으로 보면 <한문본>을 <국역본>으로 번역한 시간적 간극이 13년으로 다소 많이 벌어져 있다.

이 두 간극을 더 좁힐 수 있는 1459년 이전의 <국역본>은 없었을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텍스트를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한문본>의 예의 부분이 <국역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치두와 정치)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역시 훈민정음 원본 번역과 연관된 궁금한 속살이다. 다음 장에서 함께 그 번역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

2.4.3. <해례본>과 <국역본>, 그 차이와 간극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는 당연히 세종이다. 그러나 어제서문과 예의는 세종이 지었다. 그 사실은 <해례본>정인지 후서에 그 근거가 있으니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그것을 뺀 5解와 1例는 정인지를 위시한 집현전 학자 8인이 자세한 설명을 더하라는 왕명을 받들어 이루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해례본>은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함께 엮어내어 공간한 공동 저서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에 대한 <국역본>은 <해례> 부분을 빼고 어제서문과 예의 부분만을 번역하였다. 여럿이 한 번역이라기보다는 그 누군가 혼자 번역한 것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 혼자 번역한 사람의 또 다른 의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말소리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국 한음에 대한 언급이 추가돼 있기 때문이다. 달리 해석하면 지금 전하는 <해례본>의 어제서문과 예의의 또 다른 판본이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하지만, 세종실록에 실린 어제서문과 예의 부분에 ‘치두’와 ‘정치’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시 말하면 <국역본>은 그 번역자의 주관적인 언어관을 반영한 산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번역자는 누구였을까? 분명히 중국어에 깊은 조예가 있는 역관은 아니었을까? 역시 궁금한 훈민정음 번역의 문제이다.

<국역본>의 번역 텍스트 구조는 이미 주지하다시피 한문 원문의 구결식 구조→해당 한자 협주 풀이→우리말 번역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관된 번역 텍스트로서 손색이 없다. 한자 협주 풀이는 전체 번역 텍스트에서 한 번만 이루어졌다는 점도 텍스트의 간결함이다. 그런데 어제서문 및 예의의 국역 번역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다음과 같은 몇 대목이 존재한다.

① 한문 원문(해례본)	② 구결식 구조	③ 한자 협주 풀이	④ 우리말 번역
與文字不相流通	與:영 文文字·종로不·불 相상流류통통홀·씨	與는 이와 더와 亨는 겨체쓰는 字 라文은 글와리라 不은 아니 亨 논쁘디라 相은 서르 亨논쁘디라 流通은 흘 러스므출씨라	文文字종와로서르 스몯디아니홀씨
故愚民有所欲言	故:공·로 愚愚民民·이有: 울所:송 欲·욕言언·하야 도	故는 전치라 愚는 어릴 씨라 有는 이실씨라 所 는 배라 欲은 亨고저 홀 씨라言은 니를씨라	이런전츠로어린百 빅姓성이니르고저 홀배 이셔도
予爲此憫然	予영 爲·윙此:충 憫:민 然然·하야	予는 내 亨습시논쁘디 시니라此는 이라 憫然 은 어엿비너기실씨라	내이를爲윙 亨야어 엿비너겨

위에서 제시된 ①한문 원문, ②구결식 구조, ④우리말 번역에 등장하는 밑줄 친 한자의 협주 풀이가 ③에서 보다시피 없다는 점이다. 전체를 국역하는 과정에서 오직 이 세 한자, ‘字, 民, 爲’에 대한 협주 풀이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귀납되는 결론은 세 한자에 대응되는 당시 우리말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 협주 풀이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④의 우리말 번역 과정에서 ‘字’는 ‘字’로 그냥 다시 쓰고, ‘爲’는 ‘爲하야’로 번역한 꼴이 되었다. 그런데 ‘民’은 ‘民’, 혹은 ‘國民’도 아니고 ‘百姓’으로 번역한 것은 나머지 두 한자의 번역과 사뭇 다르다. 번역 과정에서의 실수는 아니며, 번역자의 고뇌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대상언어와 메타언어 사이의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본다. 이런 번역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전체 국역본 번역 텍스트의 정합성과 함께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2.5. <해례본>을 번역하다, 국역과 영역의 시초

<해례본>이 한문본이었으니, 그 번역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어저서문과 예의를 포함한 번역은 1459년 월인석보 권두본을 그 최고로 이해하고 있다. 기타 이본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20세기 이전에 어저서문과 예의, 그리고 해례 전체를 우리말로 번역한 문헌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과거 문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던 역사적 상황이 있었겠지만, <해례본> 전체에 대한 번역본은 과연 존재할까? 우리 선조의 문화적 역량과 <해례본>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를 생각해 보면 가능할 일인데 600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전하지 않고 있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해례본> 전체가 완전히 국역되었다. 그 시초는 책이 아니라 대중들이 접하는 신문을 통해서였다. 그만큼 이 <해례본>의 존재가 우리 문화사에서는 소중한 중요한 것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해례본> 국역의 시초는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서였고, 그 최초 번역자는 명목상으로 20세기 국어학자였고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역임한 방중현이었다. 그런데 이 번역과 관련해 숨은 이야기가 있다. 명목상 그 최초 번역자는 방중현이지만, 실제 번역자는 홍기문이라는 점이다. 그 최초 번역의 역사적 사실은 아래의 기사와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① 방중현, 1940. 7. 30~8. 4 - <朝鮮日報> 연재 기사본.

② 방중현, 1946. 7. 10 - 『解釋原本 訓民正音』본, 京城: 震學出版協會.

위의 두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1940년 조선일보에 방중현이라는 이름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최초로 번역되었다.

(전략) 여기서 世間에서 傳하는訓民正音が 原本이나 아니냐의 問題가 提起 되거니와 洪起文兄과 나 두 사람은 그곳 原本이 아님을 確信하고 爾來 數年間 그 原本의 考證과 想像的 再現을 爲하여 努力하여 왔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스랴. 數月前 그 原本은 慶北某古家에서 發見되어 市內某氏의 所有로 돌아간 것이다. 그 原本을 對하여 우리 두 사람은 맨먼저 우리의 수고가 헛되었음을 恨하는 同時에 (중략) 千慮의 一得을 스스로 기뻐하지 안 할수 없다. 이제 먼저 그原文의 翻譯을 실고 뒤를 이어 거기 對한 註解 乃至 우리 두사람의 研究를 發表하겠다. 단지 이책을 入手한지 겨우 旬日을 넘지 못하여 그 譯文이 아직 未定稿도 있는것을 諒解하기 바란다. (여기 對한 一切의 發表는 兩人中 누구의 이름으로 되든지 共同勞作임을 付記하여 둔다)

方鍾鉉(1940.7). “소개 1: 原本訓民正音의 發見.” 조선일보 1940.7.30. 4면.

그리고 그 번역된 내용을 1946년 같은 인물의 이름으로 『解釋原本 訓民正音』책이 공간되었다. 그러나 1946년 『解釋原本 訓民正音』의 머리말을 보면 아래와 같은 언급이 있다.

譯者의 말

이글은 벌서 五年前인 庚辰年 七月 三十日로 부터 八月 四日 까지 五回로 分하여 朝鮮日報에 掲載 되었던 것이다. 그 發表者의 名義는 비록 내 이름으로 되었으나 이것을 實際로 翻譯한 이는 洪起文 이다. 洪兄은 特히 訓民正音과 韻書와의 關係를 研究하는 方面에 專力하여 왔고 나는 主로 우리말의 資料 卽 文獻을 考證하는데 致重하여서 以來 數年間 서루 같은 方面의 學問을 或은 分하여서 더러는 合하여서 繼續하여 왔다. 鷄林類事의 註解와 訓民正音의 原本을 찾으려고 한것은 이것은 合議에서 한 일이고 東國正韻의 原本을 他資料의 考證에 依據하여 想像의으로 그 原本을 再現하려고 圖謀하는것 같은 일은 이것은 洪兄의 獨擔의 研究이었다.

그러던 중에 慶北 義城에서 訓民正音의 原本에 가까운 古本이 나와서 (중략) 이 原文의 翻譯을 내이면서 뒤이어 이에 關한 研究를 發表할것을 紙面上으로 約束하였던 것이다. (하략)

方鍾鉉(1946.7). 「原本解釋 訓民正音」(附反對文). 京城: 震學出版協會.

이렇게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을 위해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두 분 사이에서 그 번역자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언급을 번역 서두에 방중현 선생님이 언급한 것이다. 학문적 경쟁자가 아니라 상호 협력자의 관계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방중현(1946)에서 당당하게 그 실제 번역자는 홍기문 선생님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대변한다.

여기서 우리는 국어학 선학들께서 보여준 소중한 태도를 접할 수 있다. 학수고대하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번역한 두 연구자의 열정적이며, 아름다운 우애를 확인할 수 있다. 한 분은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국어학 전공자에게 번역의 공을 넘겨 준 진정한 사표로서 홍기문이며, 다른 한 분은 훈민정음의 국역이 온전히 자신만의 공이 아님을 솔직하게 밝힌 방중현이다. 겸손과 솔직함이 어우러진 최초의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의 역사적 미담은 우리가 널리 전파해야 할 훈민정음 국역 번역의 소중한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결국 Gari K. Ledyard(1998)의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에서 영어로 번역되기에 이른다. 아래의 내용은 그 텍스트에서 발췌한 『훈민정음』 어제 서문의 영문 번역이다.

“The Correct Sound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The sound of our country's languag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iddle Kingdom and are not smoothly adaptable to those of Chinese characters. There, among the simple people, there are many who have something they wish to put into words but are never able to express their feelings. I am distressed but this, and have newly designed twenty-eight letters. I desire only that everyone practice them at their leisure and make them convenient for daily use.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은 1966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 제출된 박사논문을 손질하여 다시 1998년 <국립국어연구원 총서2>로 출간된 것이다. 영문으로 된 이 연구서 제4장의 277~315쪽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문 완역이다. 외국인이 직접 한 영역이기 때문에 영역의 오류와 실수가 있는 듯하다. 위에서 밑줄 친 ‘their feelings’은 어저서문 ‘其情’에 대한 번역인데, 국역 번역의 ‘제 뜯’을 참고했다면 더 좋은 영역 표현이 나왔을 것이다. 영문 번역에 대한 섬세한 검토를 통해서 번역술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다뤄볼 만한 훈민정음의 주변적인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영역을 통한 훈민정음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국제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이제 한국어의 표기 수단이자 창제 당시 한자음 발음 기호의 역할을 한 훈민정음은 이제 다른 언어의 표기 수단 및 발음 기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외국인이나 문자 연구자들에게 우리 문자의 특징을 그들의 언어로 좀더 쉽게 이해시키고자 한다면 이 연구서의 권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해례본>에 대한 외국어 번역은 프랑스어로도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많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나오며

고전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고전은 정합적 텍스트이어야 한다. 둘째 고전은 그 대상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한다. 셋째 고전은 시대를 초월한 전형적 문헌이어야 한다. 넷째, 고전은 그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상기해 보면, 훈민정음이 고전 중의 고전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정합적이어서 압축적이고 논리적이며, 여전히 그 해석에 대한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제는 시대와 지역을 극복한 인류 문화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진정한 고전이 되어 버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주로 큰 주제와 담론에만 주목한 것이 지금까지 한국어학계의 주된 흐름이었다. 훈민정음의 속살 중에서 맛있는 부위만을 맛보고 즐겼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은 당연한 것이며, 그 결과 질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많은 성과를 양산하였다.

이러한 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는 훈민정음의 미시적 부분을 살피고자 했다. 학문적인 영역과 에세이의 영역 그 경계선 위에 있는 숨겨진 주제들과 소홀히 다룬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에서 다루었던 내용 말고도 훈민정음이라는 엄숙한 테마 이면에 있는 문화콘텐츠적 요소, 통섭적 요소 등이 대중과 함께 잘 어울리면 훈민정음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우리 곁에서 그 특징과 본질을 잘 드러낼 수 있다. 주변적인 것이 주변적인 곳에만 머물게 하지 않는 것, 이 임무는 학자와 교사 그리고 대중 모두의 몫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항(2010ㄱ),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강신항(2010ㄴ), 『훈민정음(한글) 창제와 연구사』, 도서출판 경진.
- 국립국어원 편(2008),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 생각의 나무.
- 金敏洙(1957), “訓民正音 解題.” 「한글」 121.
- 金敏洙(1957), 『注解 訓民正音』, 통문관.
- 김영배(2000), “연구 자료의 영인-훈민정음의 경우”, 『새국어생활』 제 10권 제3호, 국립국어원, 161-169.
- 김영옥(2007), 『한글』, 루덴스.
- 김주원(2005ㄱ), “원본 훈민정음의 출현”, 『자연과 문명의 조화』, 제53권 제4호, 대한 토목학회, 84-87.
- 김주원(2005ㄴ), “훈민정음 해례본의 뒷면 글 내용과 그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45, 국어학회, 177-212.
- 김주원(2006), “훈민정음 해례본의 길과 속”, 『새국어생활』 제16권 제3호, 국립국어원, 35-49.
- 김주원 외(2007), “훈민정음 언해본의 정본 제작에 관한 연구”, 『국어사연구』 7, 국어사학회, 7-40.
- 남권희(2009), “새로 발견된<訓民正音解例>원본과 일본판 石峯 <千字文> 소개”, 『훈민정음학회 2009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훈민정음학회, 1-13쪽.
- 문화재청(2007), “훈민정음 언해본 이본 조사 및 정본 제작 연구”, 학술연구 용역사업 보고서.
- 박영진(2005),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 경위에 대한 재고”, 『한글새소식』 395, 한글학회, 8-12.
- 박종덕(2006), “훈민정음 해례본의 유출과정 연구”,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171-194.
- 서울대학교 대학원 國語研究會編(1990),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서울: 東亞出版社.
- 안병희(1976), “훈민정음의 이본”, 『진단학보』 42. [안병희(2007)에 재수록]
- 안병희(1986),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원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927-956.
[안병희(2007)에 재수록]
- 안병희(1997), “훈민정음해례본과 그 복제에 대하여”, 진단학보 84, 진단학회, 191-205.
- 안병희(2002), “훈민정음 해례본 三題”, 진단학보 96. 진단학회, 173-197.
[안병희(2007)에 재수록]
- 안병희(2007), 『訓民正音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상혁(2004ㄱ), 『조선후기 훈민정음 연구의 역사적 변천』, 도서출판: 역락.

- 이상혁(2004ㄴ), 『훈민정음과 국어 연구』, 역락.
- 이상혁(2005), “홍기문과 원본 『訓民正音』의 번역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23,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35-253.
- 이상혁(2006), “훈민정음, 언문, 반절, 한글의 역사적 의미.” 『역학서와 국어사 연구』 서울: 태학사. 487-508.
- 이상혁(2007), “훈민정음에 대한 문화콘텐츠적 접근과 방향” 『한국어학』(한국어학회) 36, 195-220.
- 이상혁(2008), “훈민정음과 한글의 언어문화사적 접근 -문자, 문자 기능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한국어학회)41, 61-81.
- 이상혁(2010), “한국학과 훈민정음 -한국어문화 교육을 기반으로 한 훈민정음 콘텐츠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우리어문학회)35집, 221-246.
- 이상혁(2011), “북한 국어학자의 훈민정음 연구 분석과 학문적 계보”,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75-299.
- 정우영(2000ㄱ), 《訓民正音諺解》의 異本과 原本 再構에 관한 연구, 『佛敎語文論集』 5, 한국불교어문학회, 25-58.
- 정우영(2000ㄴ), 《訓民正音》漢文本의 原本 復原에 대한 研究, 『東岳語文論集』 36, 한국어문학연구, 107-135.
- 정우영(2001), 『訓民正音』한문본의 낙장 복원에 대한 재론,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191-227.
- 정우영(2005), 『訓民正音』언해본의 성립과 원본 재구, 『국어국문학』 139, 국어국문학회, 75-113.

〈인터넷 사이트〉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디지털 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신문기사〉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1/20/6825895.html?cloc=nnc>
<http://news.jtbc.co.kr/html/167/NB10060167.html>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3&cid=307092&iid=580564&oid=023&aid=0002355250&ptype=011>

협력적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을 위한 전제

1.1. 의사소통의 정의

의사소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지 말을 한다는 것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통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화자	청자
(개념→말소리) 소리 내기	듣기(말소리→개념)
코드화	메시지
	코드 해독

1.2. 화자와 청자

대화의 요소는 화자와 청자 그리고 메시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화자와 청자는 고정적으로 결정된 역할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화에서 이야기되는 화제가 계속 이어짐과 동시에 상대방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응대어를 구사하여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토대로 하여,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항상 순환되고 있다. 따라서 대화에서는 말하며 듣고, 들으며 말하는 역할이 계속 바뀐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어서 화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와 청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말을 조음해서 발화해야 하는 화자는 가능한 한 쉽고, 편하고, 간단한 언어 표현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경제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거기에 비해서 발화를 지각해야 하는 청자는 뜻을 식별해야 하고, 의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별성의 원리를 요구한다.

또한 화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만 말하려고 하고, 청자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한다. 심지어는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부분만을 가려 듣기도 한다.

이러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립은 대화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바람직한 대화는 자기중심적이 되려고 하는 욕구를 어떻게 조절하여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느냐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화자는 청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화자이고, 가장 이상적인 청자는 화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청자이다.

1.3. 메시지와 메타-메시지

언어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것을 ‘음성 언어’라고 한다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몸짓, 표정, 목소리 등을 포괄적으로 ‘동작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사용하는 동작 언어들도 있지만 어른들의 언어 행위 안에도 많은 동작 언어들이 사용된다. 사람들은 모두 온몸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음성 언어로 전달하는 정보를 ‘메시지’라고 하고 동작 언어와 환경 요소까지를 포괄하여 전달하는 정보는 ‘메타-메시지’라고 한다.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메타-메시지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극단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이 전달하는 정보는 7%, 목소리나 억양이 전달하는 정보가 38%, 몸동작을 포함한 비언어적 요소가 전달하는 정보가 55%에 이른다(Mehrabian, 1972).

1.3.1.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는 개별성을 갖는다. 성문(聲紋, voice print)을 가지고 범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음질이 다르다. 목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식별할 수 있고, 노인인지 어린이인지도 구별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 상태나 성격, 정서 상태 등도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의 목소리는 가변적이다. 상황에 따라 목소리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목소리를 바꾸는 요소인 소리의 길이, 세기, 높이 등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말의 속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따라서 목소리를 단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목소리는 온도도 가지고 있다. 차가운 목소리는 냉담함과 무관심을 나타내고, 따스한 목소리는 관심과 애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화할 때 들리는 상대의 목소리는 상대의 감정을 나타내는 신호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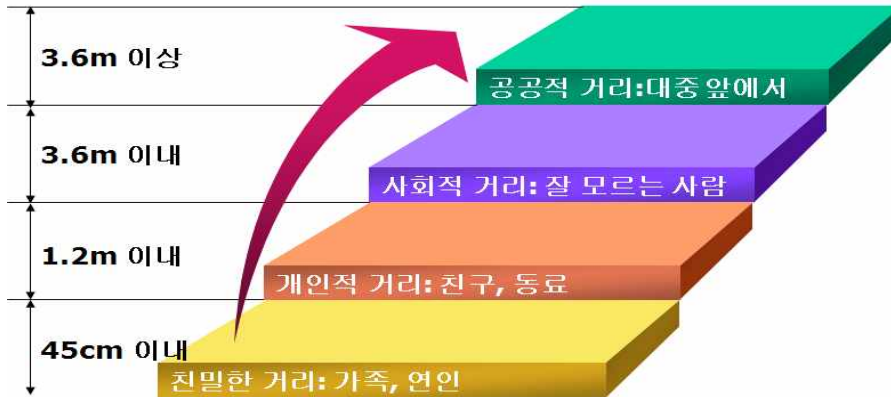
1.3.2. 근접 거리

대부분의 동물은 그들 신체 주변의 일정한 공간을 개인적{개별적} 공간으로 주장한다. 아프리카 밀림의 사자는 반경 50km 이상을 개별적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감금되어 사육된 사자는 아주 좁은 공간을 개별적 공간이라고 받아들인다.

고슴도치는 겨울을 나기 위해 추위를 느끼면 서로 접근하여 모여든다. 그러다가 서로의 가시에 찔리면 다시 뒤로 물러가고, 추위를 느끼면 다가오기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에게에도 나타난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 공간 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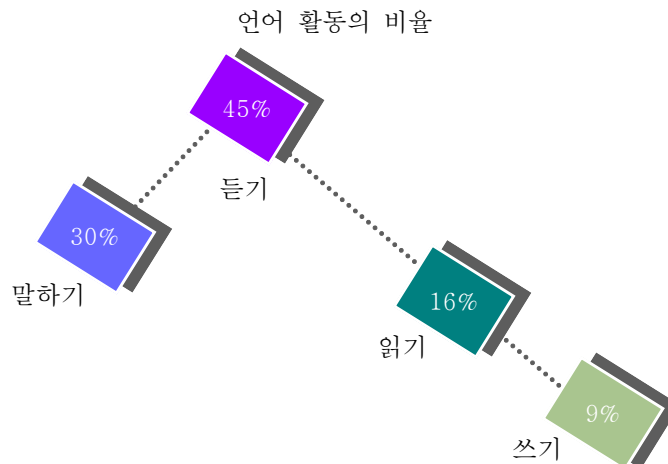
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남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거리, 즉 최적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근접 거리는 다음과 같은 4등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Pease, 1987).



2. 효과적으로 듣기

2.1. 듣기의 유형



2.1.1. 듣기 미숙

일상적인 언어 활동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듣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통 장애는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고 인정하고 부정하면서 듣기 때문에 일어난다. 스스로 열심히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난 직후에 들은 것의 반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더구나 들은 지 8시간 내에 자기가 들은

것의 절반 이상을 잊어버리고, 두 달 후에는 들은 것의 25%만 기억한다.

2.1.2. 듣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 ① 듣기가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이다.
- ② 소리를 듣는 것과 의미를 듣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 ③ 듣는 사람들이 가진 관심과 욕구와 동기가 다르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2.1.3. 의미 듣기와 의도 듣기

- ① 의미 듣기: 표현된 말의 단어나 문법을 통해 말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다.
예) 국어원이 어딘지 아세요?
예, 알아요. (그냥 지나간다.)
- ② 의도 듣기: 표현된 말을 넘어 숨겨진 메타-메시지를 찾고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해석하는 것이다.
예) 국어원이 어딘지 아세요?
예, 길 건너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2.2. 공감적 경청

2.2.1. 듣기의 다섯 가지 수준

- 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전혀 듣지 않는다.
- ② 경청의 표지를 사용하면서 듣는 척만 한다.
- ③ 선택적으로 듣는 것으로, 대화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듣는다.
- ④ 신중한 경청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충력을 기울여서 듣는다.
- ⑤ 가장 고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인 공감적 경청을 한다.



2.2.2. 공감하며 듣기

- ① 공감적 경청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즉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 ②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경우 우리는 귀로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눈과 가슴으로 듣는다.
- ③ 상대방이 생각하는 틀 속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 ④ 상대방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거나 확인하는 종류의 언어적 반응을 한다.
- ⑤ 상대방의 메시지를 재구성해서 되돌려 준다.

3. 효과적으로 말하기

3.1. 대화의 특징

3.1.1. 순서 교대

대화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인 화자와 듣는 사람인 청자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역할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첫째, 대화에서는 반드시 순서 교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너무 길게 하거나 대화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자신의 대화가 문장 단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을 더 짧게 두어서 이어지는 대화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라도 너무 길게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자신의 말이 끝나갈 때는 다음 화자를 지목해 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호칭어를 사용하거나 시선, 억양 등을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좋다.

넷째, 자신이 명시적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대화가 단절되고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는 이야기 되고 있던 화제가 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할 화제라고 판단되면 하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조금 더 부연하다가 다음 화자를 지목하는 신호를 보내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화제이거나 충분히 이야기되었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화제로 바꾸고 다음 화자를 지목하는 신호를 보낸다.

다섯째, 현재 화자가 다른 사람을 다음 화자로 지목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대화에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다음 화자가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서 침묵이 흐르거나 대화 분위기가 경색될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말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현재 화자가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화를 자르거나 가로채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일곱째,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지목하지 않았을 때는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아 결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화에 참여한다. 어떤 대화에도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여러 계층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서열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다른 모든 참여자들이 대화를 했는데도 적당한 순서를 발견하지 못해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화에 끼어들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화 참여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특징인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열심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시선을 주는 등의 동작 언어를 다소 과장되게 사용할 필요도 있다.

3.1.2. 대화의 중복

현재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화자가 말을 시작해서 둘 이상의 화자가 얼마간 동시에 말을 하는 경우가 대화의 중복이다. 대화의 중복이 일어나면 대체로 대화의 흐름이 깨지고 대화자들이 긴장하게 되지만 대화 방식에 따라서는 중복이 나타나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첫째, 대화에서 중복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의적으로 남의 말 가운데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대화의 중복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대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화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한 중복인지, 고의적인 방해인지, 반응 발화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 우연한 중복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중요한 말이 아니라면 끼어든 사람이 대화를 멈추는 것이 좋다.

넷째, 고의적인 방해의 경우는 방해가 일어난 대화 상황의 원인을 분석해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화제를 오래 붙잡고 있었거나, 혼자서 대화를 오래 독점한 경우는 끼어든 화자에게 대화를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습관적으로 남의 말은 자르거나 불필요하게 끼어든 경우라면 상대를 무시하고 하던 대화를 계속해 가는 것도 무방하다.

다섯째, 중복이 일어났을 경우 상대방의 대화 습관을 고려해서 적극 관여형의 사람이 끼어든 경우는 반응 발화로 간주하고 하던 대화를 계속해 나가도 되지만, 중복 자체를 방해로 받아들이는 심사숙고형의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가급적 끼어들거나 반응 발화를 피하는 것이 좋다.

3.2. 대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학자는 그라이스(Paul Grice)이다. 그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는 데 어떤 목시적인 지침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것을 격률(maxims)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Grice 1975, 1978). 그라이스는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협동의 원리와 네 가지 기본 대화 격률을 제시하였는데, 이것들은 대화의 결속성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3.2.1. 협동의 원리(The Co-operative principle)

협동의 원리는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상호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향한다고 생각되는 목적이나 방향의 요구에 합치되도록 말을 한다는 것이다. 화자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는 협동의 원리를 준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대화의 방법이 된다.

3.2.2.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양의 격률은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성만을 제공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성을 가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3.2.3.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질의 격률은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타당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3.2.4.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관련성의 격률은 적합성이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다. 적합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최

소한 주어진 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3.2.5. 방법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방법의 격률은 한마디로 간단명료하라는 것이다. 방법의 격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표현의 모호성을 피하라.

둘째, 중의성을 피하라.

셋째, 간결하게 말하라.

넷째, 조리 있게 순서대로 말하라.


3.3. 나-전달법

3.3.1. 나-전달법의 개념

대화에서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화 방법으로는 ‘나-전달법’(I-message)이 있다. 나-전달법이란 주어가 일인칭인 ‘나’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대화 방법을 말한다. 대부분 대화를 가로막는 대화의 걸림돌들은 주어가 ‘너’로 시작하는 ‘너-전달법’이다.

문제 상황에서 상대방의 문제에 관해 상대방을 주어로 이야기하는 너-전달법은 직접적이어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대화에서 많은 역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거나 위협을 받을 경우,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게 되고, 도덕적 훈계나 설교, 강의, 지시를 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너-전달법은 강압 때문에 선택 기회가 없어지게 하고, 반발적인 행위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직접성을 간접화하는 방법이 주어를 ‘나’로 바꾸는 나-전달법이다. 상대방인 ‘너’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인 ‘나’의 관점으로 바꾸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체면이 손상되지도 않고, 화자의 심정이나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전달 효과도 더 확실해져서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 된다.

너-전달법과 나-전달법의 전달 과정

메시지	코드	코드 해독·과장
	과장님, 어떻게 제 사정은 묻지도 않고 화를 내세요?	‘과장은 나쁜 사람이다.’
	저는 과장님이 제 사정을 묻지도 않고 화를 내셔서 서운했습니다.	‘윤계장은 서운하다’

3.3.2. 나-전달법의 세 가지 요소

나-전달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첫째, 문제를 유발하는 상대의 행동은 무엇인가? 둘째,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셋째, 나는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요소는 행동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이 섞이지 않은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그 행동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명백하고 구체적인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두 번째 요소는 그 행동이 주는 구체적인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는 영향을 밝혀야지만, 상대방은 왜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요소는 그 결과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밝히는 것이다. 상대방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예를 들자면 실망, 분노, 슬픔, 당황, 걱정, 두려움 등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3.4. 대화의 내용: 인간관계 지능

3.4.1. 대화의 단계 (Powell, 1969)

1단계: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대화이다.

Peak Communication / 필요(Needs)

2단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의 대화이다.

Gut-level Communication / 느낌(Feelings)

3단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준의 대화이다.

Evaluative Communication / 견해(Opinions)

4단계: 사실 보고 수준의 대화이다.

Factual Communication / 사실(Facts)

5단계 : 틀에 박힌 습관적인 대화이다.

Phatic Communication/ 상투어(Cliche)

3.4.2. 인간관계 지능

감성 지능, 다중 지능 등과 같이 인간관계 지능은 스테판 그로스(Stefan F. Gross, 1997)에서 제시되었다. 인간관계 지능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화를 할 때 감사, 칭찬, 존중의 말을 많이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평, 비난, 무시를 많이 하는가에 따라 관계 지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감사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대화법이고, 이 반대가 불평이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힘과 동기를 부여하는 대화법이고, 이 반대가 비난이다.
 존중은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는 대화법이고, 이 반대가 무시이다.

3.4.3. 정중어법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언어학자들은 ‘정중어법’ 또는 ‘공손법(Politeness Principle)’이라고 하였다. 정중어법이란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Leech 1983). 정중어법이란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상대방 중심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이고, 자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현하려는 것을 말한다.

(1) 요령의 격률

요령의 격률(Tact maxim)이란 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청자에게 혜택을 베푸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2) 관용의 격률

관용의 격률(Generosity maxim)은 요령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3) 찬동의 격률

찬동의 격률(Approbation maxim)은 청자를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청자를 칭찬하고 맞장구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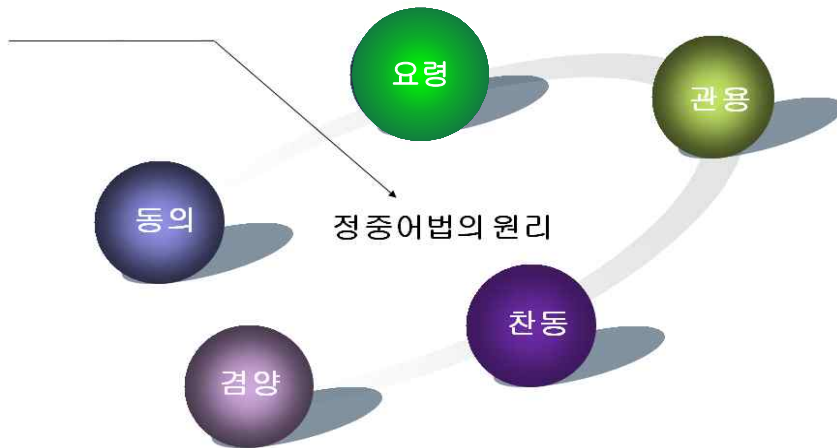
(4) 겸양의 격률

겸양의 격률(Modesty maxim)은 찬동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화자 자신을 칭찬하는 말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말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5) 동의의 격률

동의의 격률(Agreement maxim)이란 상대방과 불일치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과 일치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Leech(1983) Politeness Principle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동의 한 유형이다. 그 행동은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쓰다듬는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야가와’는 말의 이러한 두 측면을 으르렁거리는 말(snarl- words)과 가르랑거리는 말(purr-words)로 나누었다 (Hayagawa 1978). 이런 점에서 한 마디의 대화가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공격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청자의 관점에서는 화자가 말을 통하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은 그냥 듣고 흘릴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대화는 탁구와 같이 빈번한 움직임이 상호 간에 오고 가는 행동이다.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대화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한 고난도 게임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현정. 2009[1997]. 대화의 기법, 도서출판 경진.
- Grice, H. Paul. 1975. Logic and conversation, Cole, P. and Morgan, J. L.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78. Further Notes on logic and conversation, Cole, P. (ed.),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113-128. New York: Academic Press.
- Gross, F. Stefan. 1997. *Beziehungs intelligenz*, 박정미 역, 2000. 인간관계지능, 청년정신.
- Hayakawa, S. 1978.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Fourth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Leech, Geoffrey.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Mehrabian, Albert. 1972. *Nonverbal communication*. Chicago, Illinois: Aldine-Atherton.
- Pease, Allen. 1987[1981]. *Body language: How to read other's thoughts by their gestures*, London: Sheldon Press.
- Powell, John. 1969. *Why am I afraid to tell you who I am?* Niles, IL: Argus Communications.
- Satir, Virginia. 1972. *People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기획·편집 : 황두연(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장)
이유원(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사)

집례 : 한글 맞춤법의 이론: 정호성(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장)
한글 맞춤법의 실제: 유하라(국립국어원 전문위원)
띄어쓰기: 유하라(국립국어원 전문위원)
구별해야 할 말: 김문오(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관)
표준어 규정: 박종덕(국립국어원 전문위원)
표준 발음법: 박종덕(국립국어원 전문위원)
외래어 표기법: 김주미(국립국어원 전문위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박종덕(국립국어원 전문위원)
문장 바로 쓰기: 박종덕(국립국어원 전문위원)
학교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순영(고려대학교 교수)
학교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민병곤(서울대학교 교수)
훈민정음의 이해: 이상혁(한성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수)
협력적 의사소통: 전정미(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국립국어원 2013-03-09

바른 국어 생활

교사 직무 연수 교재

2013년 7월 23일 인쇄

2013년 7월 25일 발행

발행인: 민 현 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 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35
